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9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September Vol.261



Elisabeth
DAS MUSICAL
엘리자벳

2014년 상반기 부산문화회관 정기대관 안내

■대상 : 극장(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전시실(대전시실, 중전시실)

■대관내용

- 대 관 기 간 : 2014. 1. 1(수) ~ 2014. 6. 30(월)
☞ 극장 무대보수 및 시설 점검일은 대관일에서 제외 ▶홈페이지 팝업 참조
☞ 시립예술단 및 시 자체 공연·행사·전시 우선 배정 ▶홈페이지 팝업 참조
- 접 수 기 간 : 2014. 9. 23(월)~10. 4(금) 2주간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접 수 장 소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 대관심의 및 결정 통보
-접수 마지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용허가 통보

■기본방향

- 순수문화예술 공연 우선, 대중 예술 공연 제한적 허용
-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 또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 및 전시
- 오페라, 뮤지컬, 연극 등 종합예술공연 진흥
- 창작 또는 유망신인 작품 발표 기회 제공
※정치·종교적 목적의 공연 및 행사는 대관 제외

■대관신청 및 허가 절차

- 상담(구두, 전화) → 신청 및 접수(적정여부) → 대관심의(일정조정) → 통보

■대관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공연계획서(프로그램, 프로필 등 첨부) 1부
※공연계획서 없는 신청서는 접수되지 아니하며, 공연계획서 내용 미비 등은 대관 심의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납부

-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 허가 후 30일 이내 납부 및 계약체결
- 잔 금 : 공연 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
※기한 내 사용료 미납 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 607-6051~6



백혜선 피아노 리사이틀

H A E S U N P A I K P I A N O R E C I T A L

Into the Variations



PROGRAM

- 하이든/변주곡 f 단조
J.Haydn/ Variations in f minor, Hob.17-6
- 베토벤/에로이카 변주곡
L.v. Beethoven/15Variations with Fugue in E flat Major, Op.35 "Eroica"
- 라흐마니노프/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S. Rachmaninoff / Variations on a Theme of Corelli. Op.42
- 리스트/베네치아와 나폴리
F. Liszt/Venezia e Napoli

“백혜선은 투박한 음악을 승화시켜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한다.
즉이성과감성, 두뇌와 가슴을 둘다 실제로 만족시켜주는
드문테크닉을 가진 연주자이다.” (뮤지컬아메리카)

2013. 10. 31. THU.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OPERA IN CONCERT

리골레토

Giuseppe Verdi

지휘·연출 리 신차오
Li Xincao

Rigoletto 제 상 철

Gilda 김 정 은

Mantova 김 지 호

Sparafucile 함 석 현

Maddalena 김 수 현

Giovanna 박 성 희

Count Ceprano 김 태 우

Matteo Borsa 송 현 정

Count Monterone 유 형 광

Marullo 이 태 영

Court Usher 최 범 석

부산오페라합창단

합창 지휘 이 성 훈

조연출 김 미 정

오페라 코치 손 소 향

2013. 10. 10_목 ~ 11_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문의 607-3111~3 부산시향, 607-3100 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 매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CONTENTS

2013 September Vol.261 culture.busan.go.kr

- 06 커버스토리 | 뮤지컬 '엘리자벳'
- 08 프리뷰
- 12 문화가화제 | 2013 바다미술제 'With 송도 : 기억·흔적·사람'
- 14 반갑습니다 | 뮤지컬 배우 김소현
- 16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츠카 코헤이, 그 후 _ 이흥이
- 20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㉔ |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4번 <죽은 자의 노래> 下 _ 이동신
- 22 불멸의 거장 - 바그너 ④ | 21세기의 바그너 문화국 독일의 간판Ⅳ _ 임채흥
- 24 그림, 풍류를 만나다 ㉓ | 정승도 부림지암소 삼공불환도 _ 변광석
- 26 그곳에 가면 |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 28 우리는 문화가족 | 독서모임 책방골목
- 30 리뷰 | 부산시립합창단 써머판타지를 보고 _ 김윤선
종합편성채널 성장의 명과 암 _ 남인용
- 32 테마가 있는 여행 | 義와 禮의 고장 의성으로 떠나는 여름여행
- 35 Culture Life
- 60 부산문화회관 소식
- 6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년 9월호 통권 261호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발행인 | 박성택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3년 8월 25일

인쇄처 | (주)대주애드 Tel. 051)803-6631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그녀, '엘리자벳'이 돌아온다!

뮤지컬 '엘리자벳' Das Musical ELISABE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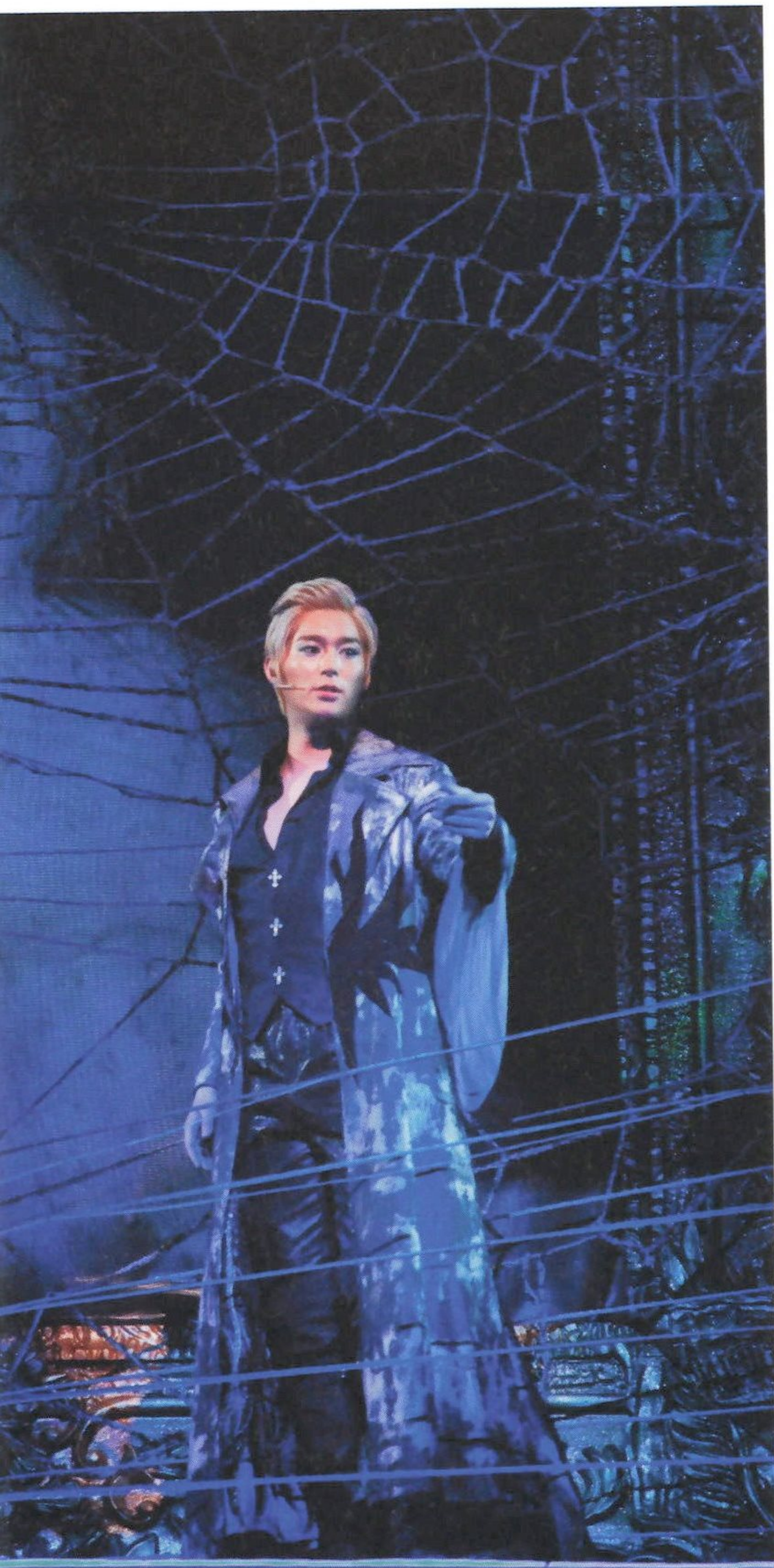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황후
엘리자벳

2012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화제를 모았던 뮤지컬 '엘리자벳'이 2013년 더욱 업그레이드 된 무대로 부산 관객들을 찾아온다.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인 황후 엘리자벳의 일생을 그린 뮤지컬 '엘리자벳'은 '모차르트!', '레베카' 등 한국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유럽 뮤지컬 작품들의 원작자 실베스터 르베이와 미하엘 쿤체의 첫 콤비작품으로 유명하다. 1992년 비엔나에서 초연된 이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일본 등 세계 10개 국가 전역에서 90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인정한 유럽 최고의 흥행대작인 '엘리자벳'은 지난해 공연 20주년을 기념해 비엔나, 쾰른, 뮌헨 등 유럽 전역에서 투어공연을 진행한데 이어 2월, 한국 초연무대로 화제를 모았다.



일 시 9월 14일(토)-9월 15일(일)
 토-일요일 오후 2:00 7: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만 7세 이상 관람가능)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티켓마루(1599-7448)



뮤지컬 '엘리자벳'의 한국 공연은 연일 화제를 모으며 지난해 한국 뮤지컬사를 새롭게 썼다. 예매박스 10주 연속 랭킹 1위, 120회 공연의 전회 전석 기립, 연일 만석 행진, 15만 명의 관객동원 등 새로운 기록을 세웠고 '제6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는 12개 부문 후보작으로 선정되어 역대 최다 노미네이트, 역대 최대 8관왕을 달성한데 이어 제18회 한국뮤지컬대상 남녀 주연상을 석권하며 흥행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11미터에 달하는 브리지(Bridge) 등 기존 무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하고 거대한 무대 장치, 황실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입체영상과 주조연급의 베테랑 배우들이 선사하는 풍부하고 웅장한 하모니는 뮤지컬 '엘리자벳'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황후와 '죽음'의 사랑으로 전개되는 뮤지컬 '엘리자벳'은 드라마틱한 황후 엘리자벳의 일대기에 판타지적인 요소인 '죽음(Tod)'이라는 캐릭터를 추가하여 황후를 그림자처럼 맴돌던 '죽음'과 '죽음'을 동경했던 황후의 사랑이 아름다운 음악과 웅장한 무대 예술로 승화되었다.

올해 앙코르 무대에서는 옥주현과 김소현이 엘리자벳으로, 박효신과 전동석이 죽음 토드로 새롭게 호흡을 맞춘다. 옥주현은 지난해 뮤지컬 '엘리자벳'으로 한국뮤지컬 대상, 더뮤지컬어워즈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뮤지컬 배우 데뷔 이래 최고의 영광을 누렸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으로 스타덤에 오른 김소현은 제14회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제12회 한국뮤지컬대상 인기스타상, 제5회 DIMF 인기스타상, 제3회 DIMF 인기스타상 등을 수상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옥주현과 김소현은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다른 색깔의 엘리자벳으로 작품을 이끌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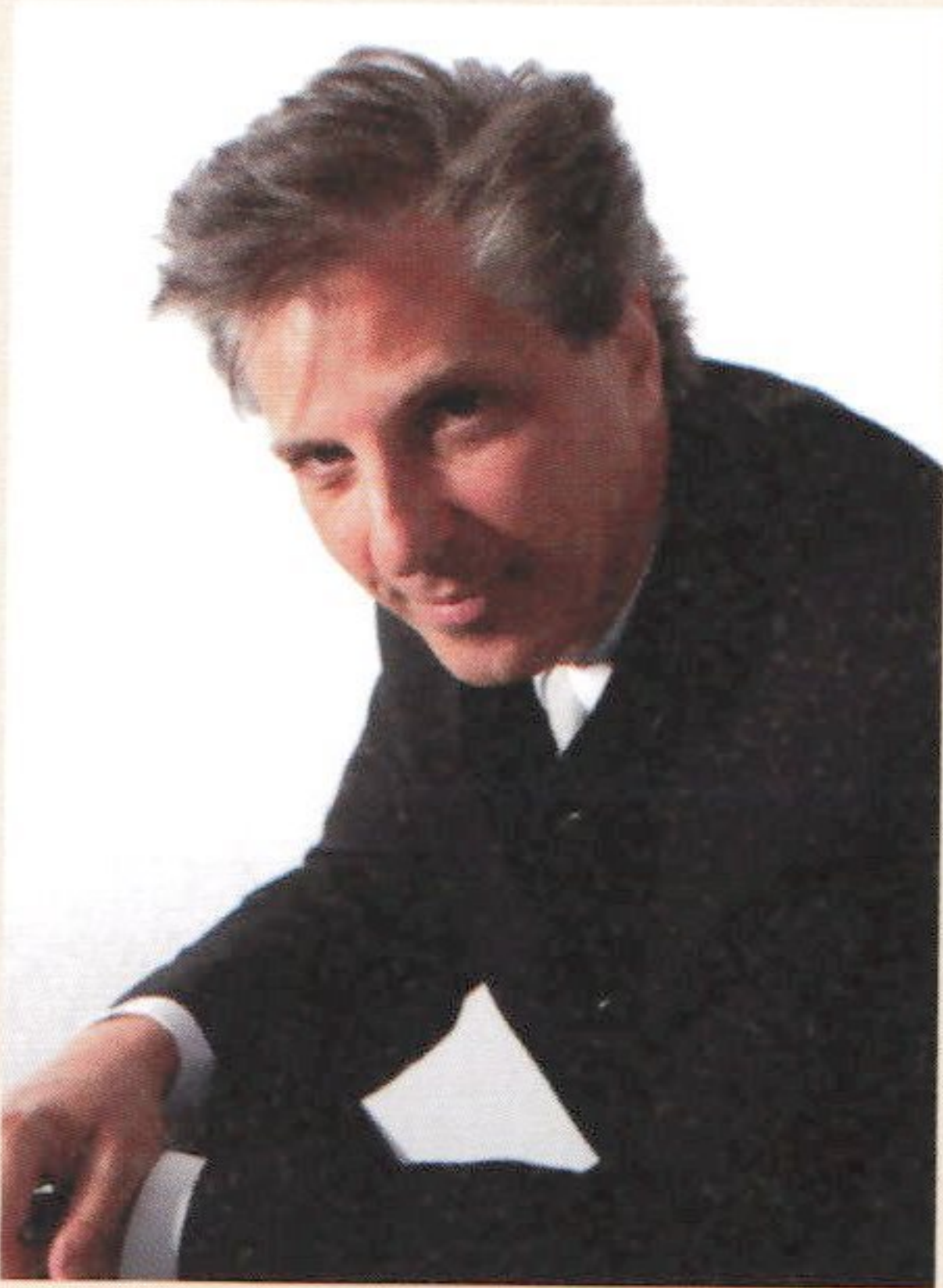
엘리자벳에게 자신만이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유혹하는 죽음 '토드'역에는 박효신과 전동석이 새롭게 호흡을 맞춘다. 토드로 뮤지컬 무대 도전장을 내민 박효신은 타고난 가창력으로 SBS 가요대전 본상, KBS 가요대상, 골든디스크상 등을 수상하며 사랑 받아왔다. 전동석은 해를 품은 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두 도시 이야기, 엘리자벳, 햄릿, 모차르트!, 몬테크리스토, 천국의 눈물, 노트르담 드 파리 등에서 개성 넘치는 연기를 선보여왔다.

엘리자벳을 암살한 이탈리아의 아나키스트 루이지 루첸니(Luigi Lucheni)는 가수, 배우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이지훈과 제17회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신인상, 제4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올해의 신인상 등을 수상한 박은태가 열연하고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엘리자벳만을 사랑한 프란츠 요제프(Franz Joseph) 황제역에는 윤영석과 민영기가 열연한다. 그 외 자유주의적인 엘리자벳과 계속해서 갈등을 겪는 황제의 어머니 대공비 소피역에는 이정화가, 엘리자벳의 아들 황태자 루돌프역에는 김이삭과 노지훈이 열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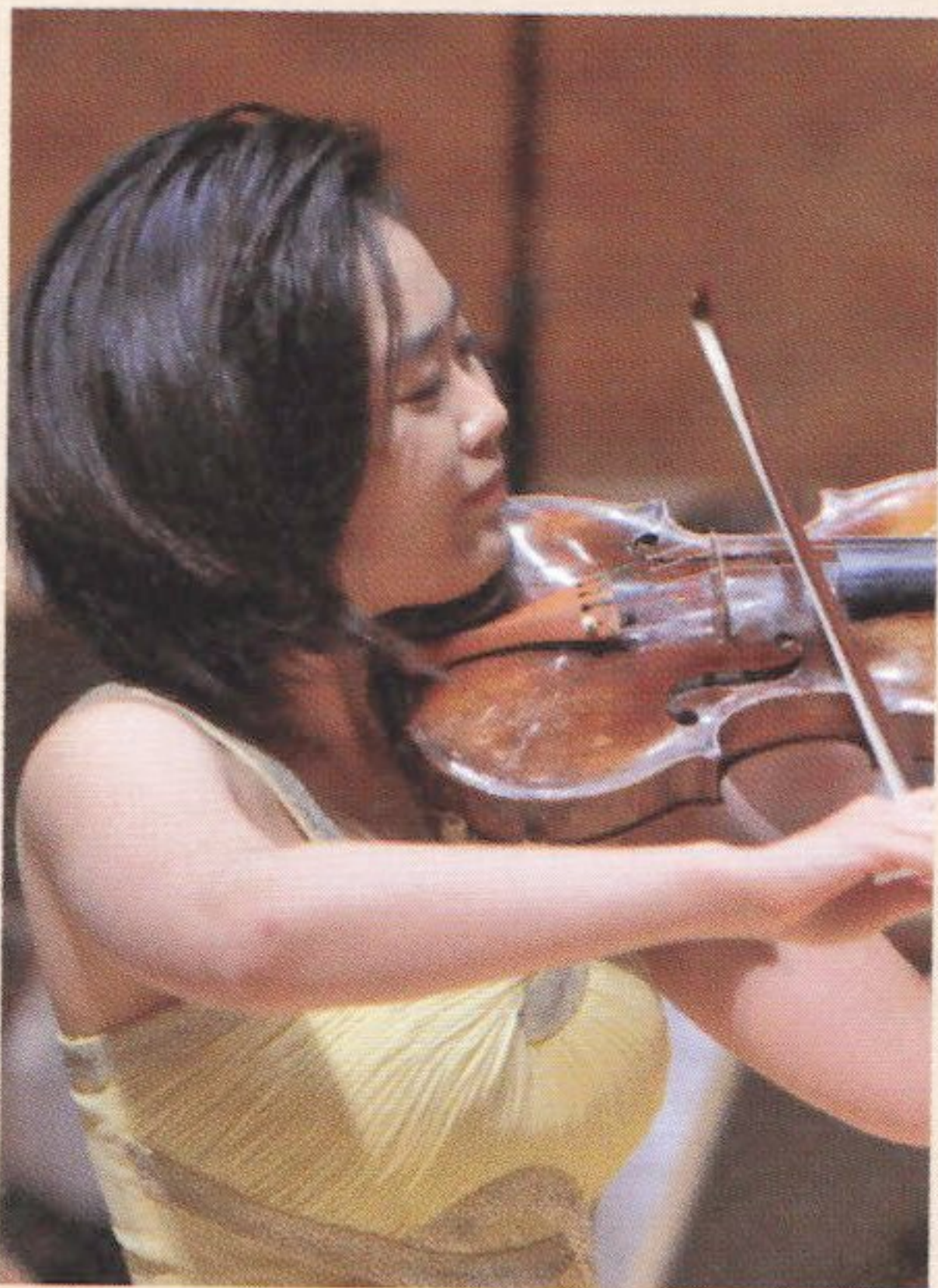
이런 최고 배우들의 열연 외에도 최고의 무대미술, 무대효과, 안무도 엘리자벳을 보는 또 다른 재미. 여름휴가를 위한 궁전에 1400여 개가 넘는 방이 있었을 만큼 성대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호화로운 궁전이 무대 위에서 재현되고 이중 회전무대와 어우러져 웅장한 효과를 나타내는 3개의 리프트, 곳곳에서 보여지는 특수효과, 기발한 소품 등으로 보는 재미를 극대화하였다. 그 외에도 유럽 특유의 웅장하고 드라마틱한 음악과 어우러진 다양한 군무, 황실의 무도회, 결혼식 등에서는 클래식한 춤들로 우아하고 화려한 장면을 연출해 내며, '죽음'의 등장 씬에서는 6명의 전문 무용수로 이루어진 '죽음의 천사들'이 세련된 안무로 무대를 가득 채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3회 정기연주회

프랑스 음악의 밤 - French



■ 지휘 마르코 파리소토



■ 바이올린 이지혜

부산국제마루음악제 폐막 무대를 장식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가을의 서정이 담긴 프랑스 대표 작곡가들을 선곡, '프랑스 음악의 밤 - French' 무대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다시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중국 내 최초의 외국인 지휘자로 상하이 심포니 수석지휘자 및 예술고문으로 활동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온타리오 필하모닉 음악감독 마르코 파리소토가 객원 지휘자로, 시옹 국제콩쿠르 3위 입상, 이프라니만 바이올린콩쿠르 2위 입상, 예후디 메뉴인 국제바이올린콩쿠르 3위 입상, 사라사테 국제콩쿠르 1위 및 청중상 수상, 레오폴트 모차르트 국제콩쿠르 1위 및 청중상, 챔버뮤직상 수상,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에 3위 입상하고 유럽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가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난 마르코 파리소토는 1997년 브장송 국제지휘콩쿠르, 도쿄국제지휘콩쿠르, 콘스탄틴 실베스트리 콩쿠르, 안토니오 페드로티 등에서 우승하고 그동안 몬트리올심포니, 프랑스국립오케스트라, 중국국립심포니, 도쿄심포니, 서울시향 등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해왔다. 마르코 파리소토는 이번 부산 무대에서 라벨과 생상스, 드뷔시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주요곡들을 선곡, 프랑스 음악의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첫 무대를 여는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은 '볼레로'와 더불어 라벨의 작품 가운데 가장 널리 연주되고 있는 곡으로 라벨 특유의 정묘한 관현악법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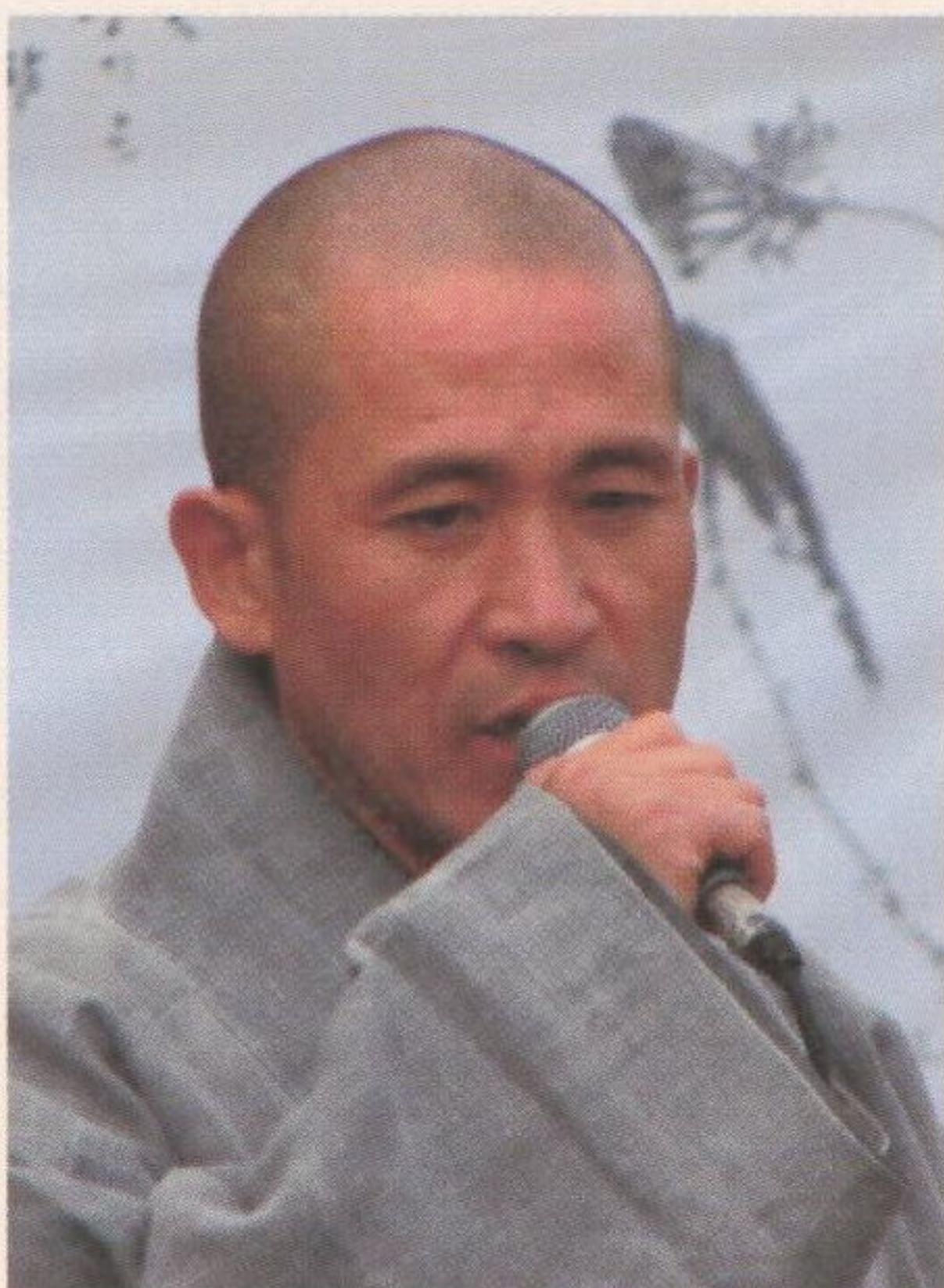
생상스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는 생상스가 사라사테를 위해 작곡한 곡으로 사라사테의 독주로 초연되었다. 기교적인 면에서는 다소 난해하지만, 아름다운 선율과 프랑스적인 세련됨을 갖추고 있어 매력이 풍부하다. 라벨의 '치간느'는 라벨이 헝가리의 강렬한 현악 전통과 집시의 열정을 구사한 바이올리니스트 다리니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으로 소박한 느낌의 바이올린 무반주 카덴차, 화려한 느낌의 건반악기 연주를 지나 바이올리니스트의 초절기교가 두 번째 부분에 다다른다. 촉망받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가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치간느'를 협연한다.

이지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의 미리엄 프리드 사사아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독일 크론베르크 아카데미에서 아나추마첸코를 사사하고 있다. 2011년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수상으로 다시 한 번 한국음악계에 낭보를 안겨준 이지혜는 국내뿐 아니라 러시아와 독일 등 여러 유럽 무대에서 차세대 연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어지는 2부 무대에서는 프랑스 특유의 섬세한 음향, 박진감 넘치는 리듬, 그리고 다양한 색채음의 효과로 라벨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라벨 관현악을 위한 무용시 '라 발스', 교향적 스케치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드뷔시 관현악을 위한 3개의 교향적 스케치 '바다'를 들려준다.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하는 '바다'는 발표 당시에는 유명하지 못했으나, 드뷔시의 관현악곡 중 가장 규모가 큰 20세기의 가장 거대한 오케스트라로 꼽히고 있다.

일 시 9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열네 살 舞子



■ 심진스님



■ 홍순연

‘팔빙수 같이 시원한 음악회’로 더위에 지친 부산시민들에게 청량감 넘치는 열정의 무대를 선사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9월 26일 대규모 악기 편성이 주는 웅장함 대신 가을의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잔잔한 실내악 무대로 국악애호가들과 다시 만난다. 실내악 무대는 연주자의 연주 뿐만 아니라, 표현을 이루어 내는 몸동작, 얼굴표정 하나까지도 감상의 대상이 된다.

각 연주자들의 음악적 감성과 개성, 악기 하나하나의 고유한 음색 특징을 느낄 수 있는 이번 무대는 노래하는 심진스님과 홍순연이 협연자로 청중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의 부제인 ‘열네 살 舞子’는 이번 연주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곡으로 종군위안부의 아픈 기억과 안타까운 생활, 비극적 참담함을 전통적 선율과 역동적 퍼포먼스로 담아낸 곡이다. ‘舞子’는 종군위안부로 끌려간 14살 소녀의 이름이다. 2007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린 정신대 해원상생 대동굿에서 초연, 화제를 모은 ‘열네 살 舞子’는 이번 연주회에서 1인 시극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무대화된다.

첫 무대는 한태수의 ‘Fly the sky’, 황호준의 ‘노을이 머무는 언덕’로 연다. ‘Fly to sky’는 고단한 삶이지만 언제나 기쁨과 행복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흥과 멋이 담긴 굿거리 장단의 리듬으로 마치 넓은 광야의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경쾌한 곡이다.

공연의 중반부는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 ‘심진스님과 함께 하는 국악실내악’ 강봉천 1인 시극 ‘열네 살 舞子’로 이어진다. 1991년 1집 음반 ‘그대를 위한 시’를 발

표, 노래하는 스님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심진스님은 2002년 3집 음반 ‘바람 부는 날에는 너에게로 가고 싶다’를 출판한지 11년 만인 올해 4월, 4집 음반 ‘사는 일 눈물나면 하룻밤의 꿈’을 출판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는 일 눈물나면’ (강호중 곡), ‘아버지의 노래’ (윤은선 곡), ‘소녀아리랑’ (조광재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열네 살 舞子’에서 1인 시극을 이끌어갈 홍순연은 진도들노래, 동래학춤구음, 판소리 춘향가를 故조공례, 유금선, 성우향을 사사한 소리꾼으로 현재 극단 자갈치, 술래소리마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 무대는 이경섭의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장식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 여름밤에 어울리는 꿈 같은 선율에 자진모리 장단을 엮은 신나는 리듬으로 꿈과 같은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창작곡이다.

그 외 이번 무대를 위해 MBC대학가요제 금상을 수상한 ‘asco’ bass 유경훈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객원 연주자로 참가, 우리가락과 베이스 기타의 조화를 이끌어낸다.



일 시 9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균일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1~2)

부산시립극단 제48회 정기공연

언챙이 곡마단 - Story Concert '봄날은 간다'



연출 문석봉



연출 오세준

이근삼의 대표작 '게사니' 부산 초연무대를 가진 부산시립극단이 9월 '언챙이 곡마단'으로 새로운 레퍼토리에 도전한다.

삼국시대 황산벌 전투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MBC 드라마 '수사반장'의 작가로 유명한 연출자이자 극작가인 故 김상열(1941~1998) 작가의 대표작이다.

'언챙이 곡마단'은 철저하게 역사를 거꾸로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계백장군은 자기가 전사할 것을 알고 전투에 영광스럽게 참전하고, 김춘추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지만 이길 것을 알고 김유신에게 전쟁을 명령한다. 의자왕은 백제의 패망을 알고 3천궁녀에게 낙화암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시킨다. 철저하게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라 흘러가지만, 이를 쳐다보는 시선은 제각각이다.

수많은 침략과 전쟁이 난무한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인명들이 죄 없이 죽어간 것을 풍자하고, 역사는 늘 습관처럼 돌고 돈다는 대전제를 피력하고 있는 언챙이 곡마단은 액자무대 위에 마당극 형식을 도입, 배우들이 자신의 배역을 마친 후에도 무대 한쪽에 남아 관객이 되는 독특한 형식의 극중극으로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극중 서사극 기법의 일환으로 해설자인 노파가 등장하는데, 노파는 관객에게 사건 전반을 정리해주고, 객석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

지하며 이야기를 엮어 간다.

김상열 작가는 극작가, 연출가로서 수많은 창작극과 더불어 우리 민속연희의 생명체였던 풍자와 해학을 주류로 관객과 함께 만들어 가는 놀이마당의 현장성을 예술성 있는 마당놀이로 절묘하게 승화시켰다.

동심을 잃지 않았던 그는 어린이 뮤지컬 분야의 개척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1990년대에는 현대로 끌어들이는 악극작업으로 대중극의 선풍적 바람을 일으켜 놓았다. 1988년에는 극단 '神市', 1995년 신시뮤지컬컴퍼니를 창설해 작고 하기전까지 창작극, 창작 뮤지컬, 마당놀이, 악극 등 왕성한 창작과 힘찬 무대를 만들며 백상예술대상 희곡상 및 연출상, TV극본상, 서울연극제 작품상 및 희곡상 등을 수상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언챙이 곡마단'의 관람포인트는 다양하다. 역사 창조

의 중심에 서기 위해 반복적으로 전쟁을 계획하는 김춘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남의 감정과 어려움을 이용하려 하는 김유신 등 기존 우리 역사 비틀어보기, 원작과 다른 극중 인물들의 다양한 캐릭터, 시대와 동떨어진 다양한 의상과 소품, 노래 등을 꼼꼼하게 챙기면 극을 보는 재미도 배가된다.

부산시립극단 문석봉 예술감독과 동서대학교 오세준 교수가 연출을 맡아 스토리콘서트 형식으로 재구성, 부산연극애호가들에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부제 : Story Concert - 봄날은 간다

2013. 9.26(목) ~ 29(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평일 19:30 / 토요일 15:00, 19:30 / 일요일 15:00 /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광역시 / 부산시립극단 / 051-789-1111

부산시립극단 홍보대행부 607-3100 / 부산시립극단 607-3151

부산시립극단 culture.busan.go.kr / 티켓링크 1588-7990 www.ticketlink.co.kr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 사생활을 이용하시면 3,000원에 관함이 가능합니다. (www.saf.or.kr)

일 시 9월 26일~29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

인, 청소년 전화 예매시 50% 할

인, 시아가림 좌석인 A E구역은

예매시 5,000원)

문의 부산시립극단(607-3151~2)

2013 제9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 ▶ 전시일정(27일~29일)
 - 대전시실: 추사, 초의 백선, 한일도자전, 추전선생 특강 동영상
 - 중전시실: 한일공예대전, '문향'전, 한일꽃꽂이
- ▶ 행사일정
 - 27일 대극장: 숙우회 행다, 개막식
중극장: 짱유화 작가, 류건집 작가, 박정희 작가 강연
 - 28일 중극장: 현영조 박사 강연, 제회 청소년 전통예절문화체험발표
 - 29일 중극장: 행다발표, 온천 김성태선생 강연, 정동주 작가 강연

일시 9월 27일-9월 29일 금-일요일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중극장, 대전시실, 중전시실, 대극장 앞 중앙광장
 입장료 균일 10,000원(통합입장권)
 문의 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

현대인의 생활 속에 점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차 문화를 올바르게 전파하고 여유로운 삶을 재발견하기 위해 개최되는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2013년 축제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차단체인 숙우회에서 차문화 시연 작품 발표를 비롯해 선고茶人 금당 최규용, 다촌 정상구, 목춘 구혜경, 원광스님, 범하스님 등의 현대 다례, 정점교, 이정환, 김시영, 김영식, 김경수, 강영준, 이수백, 나가자토 타로우에몬, 카와카미 키요미, 카자하라 야스모토, 오카모토 사쿠레이 등 한일 작가들의 한·일 도자전, 한·일 공예대전에서 초대하는 하카타전통공예관 전통전승공예 전시체험교류전, '한국차문화사' '동다송주해' '다부' 등의 저자 유건집의 '茶詩에 담긴 한국의 차정신' 주제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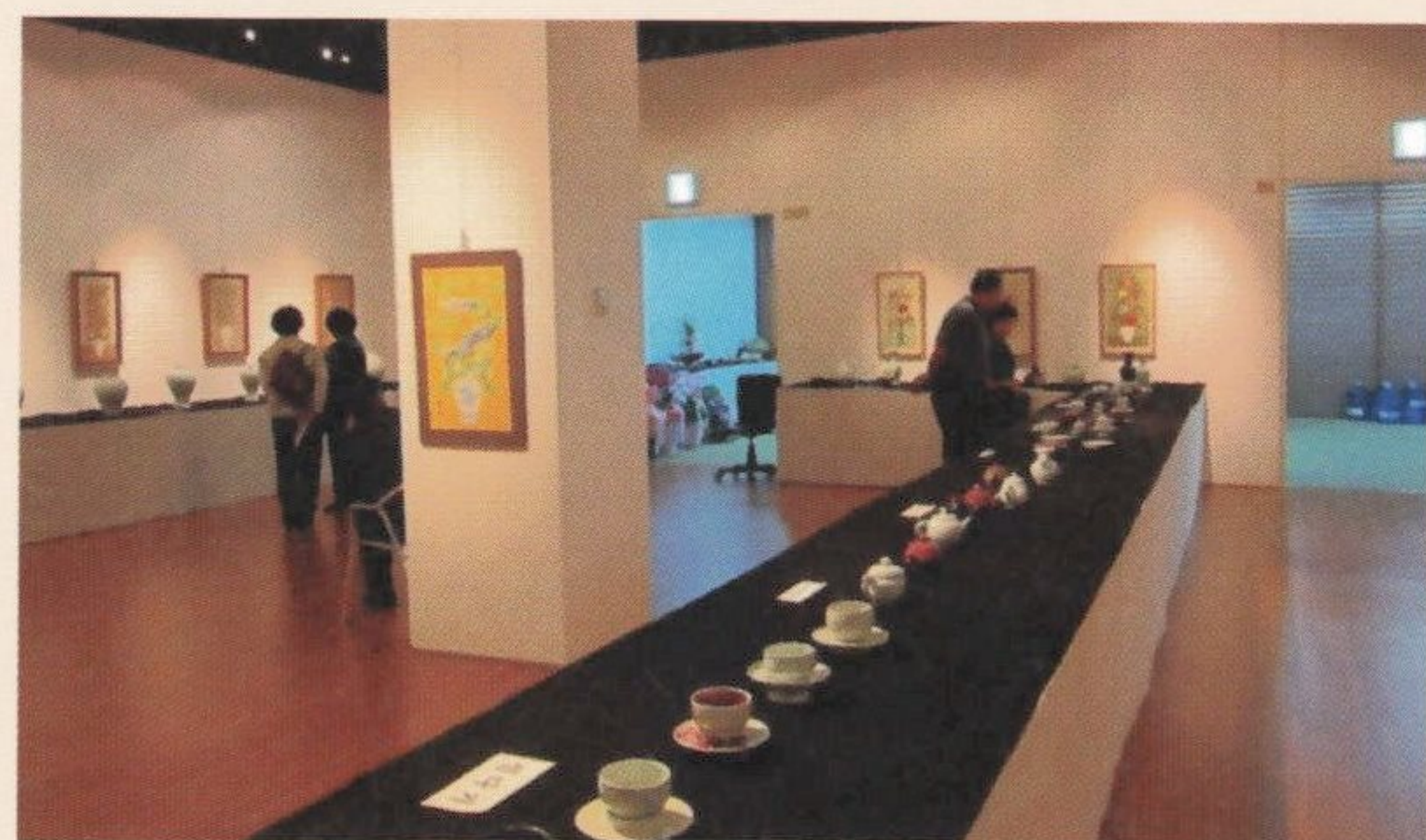
제9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프로그램은 조선후기 최고 명인들이 생전에 담긴 글씨나 그림을 전시하는 유묵전 '추사·초의 백선전'이다. 대전시실에서는 추사작품인 '서도' '茶僮' '난' '세한도' '산수도' '매화' 풍경화 등 대작들과 초의작품 '禪境' '茶煙' 병풍 서간문 등 박물관에서도 보기 힘든 원작이 출품된다. 또한 추전 김화수 선생의 작품과 초의스님 저서인 '동다송'에 대한 강연을 화면으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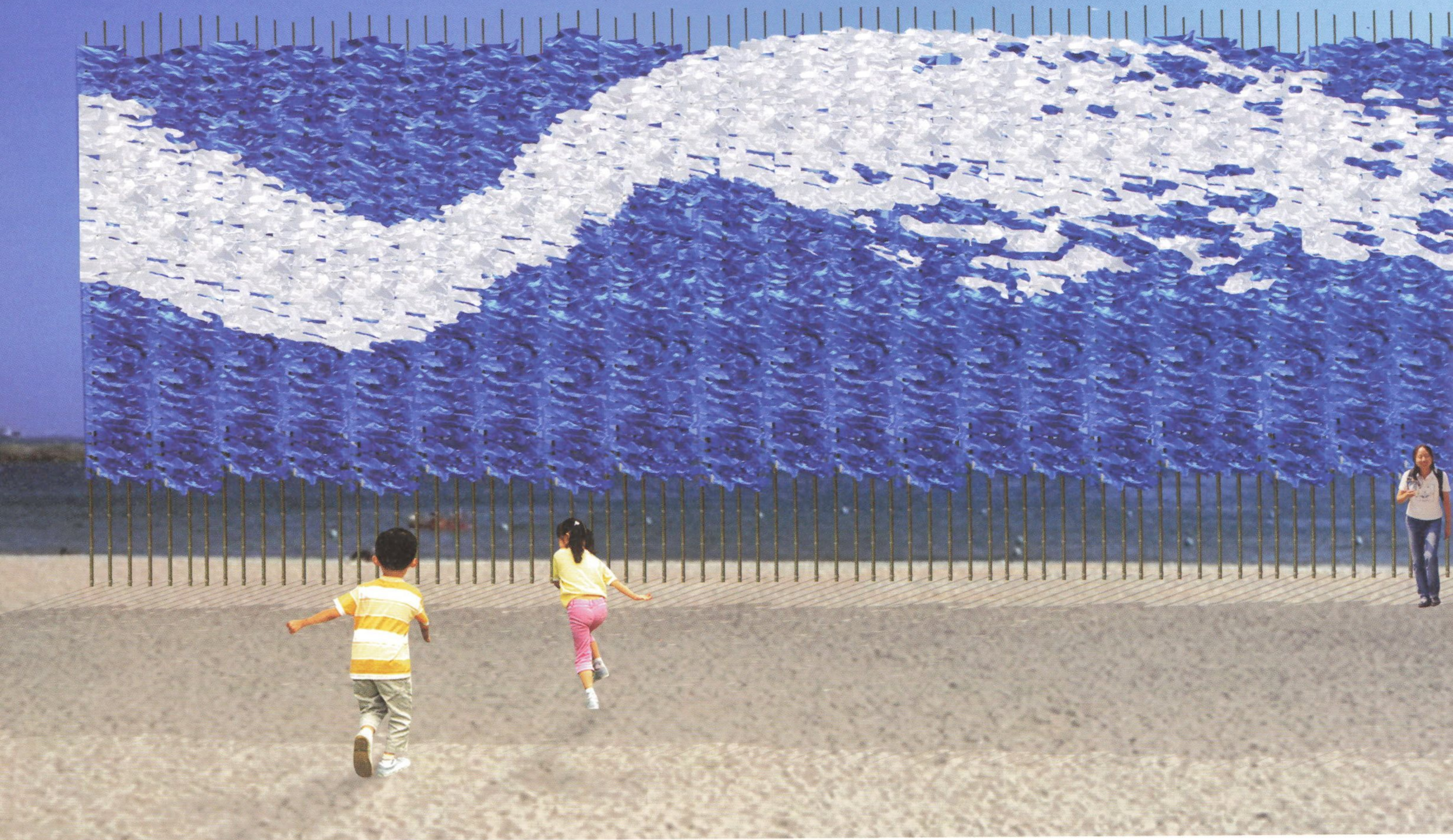
대전시실에서 열리는 '한·일 도자전'은 한국작가 정점교, 이정환, 김시영, 김영식, 김경수, 강영준, 이수백과 420년 전통가마를 운영한 14대 나가자토 타로우에몬,

쓰시마 출생인 카와카미 키요미, 미나미히타 출신의 카자하라 야스모토, 오카모토요, 오카모토 사쿠레이, 카라츠시 출생의 후지노키 도헤이, 카타오시출생인 마루타 무네히코 등 일본 작가가 대거 참가하고 직접 토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는다.

또 중전시실에서는 한·일공예대전에서 초대하는 하카타전통공예관 전통전승공예 전시체험교류전이 열리고, 일본의 전통인형인 하리코 인형 명인인 카와노 마사야키(河野 正明)와 함께 하리코 전통인형 채색과 일본 전통의상 체험도 할 수 있다.

그 외 한국전통향가의 취운향당(翠雲香堂)개원 20주년 기념특별전으로 '聞香'인 '문향'전, 찻자리에 꼭 필요한 다화를 연구 발표하는 한·일꽃꽂이가 펼쳐지고 중극장에서는 '차과학개론' '차과학길라잡이' '동국다서집록' 등의 저자 짱유화 강연회, '17~18세기 통신사에 대한 일본의 의식다례'의 저자 박정희의 강연, 대전시실에서 중국도자사와 도자기의 최고 보유자라 할 수 있는 은천 김성태 선생의 강연과 '장계향 조선의 큰 어머니' '茶와 茶살림' '조선의 막사발' '한국다완의 문양' 등의 정동주작가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3 바다미술제

With 송도 : 기억·흔적·사람

With Songdo : Remembrance·Marks·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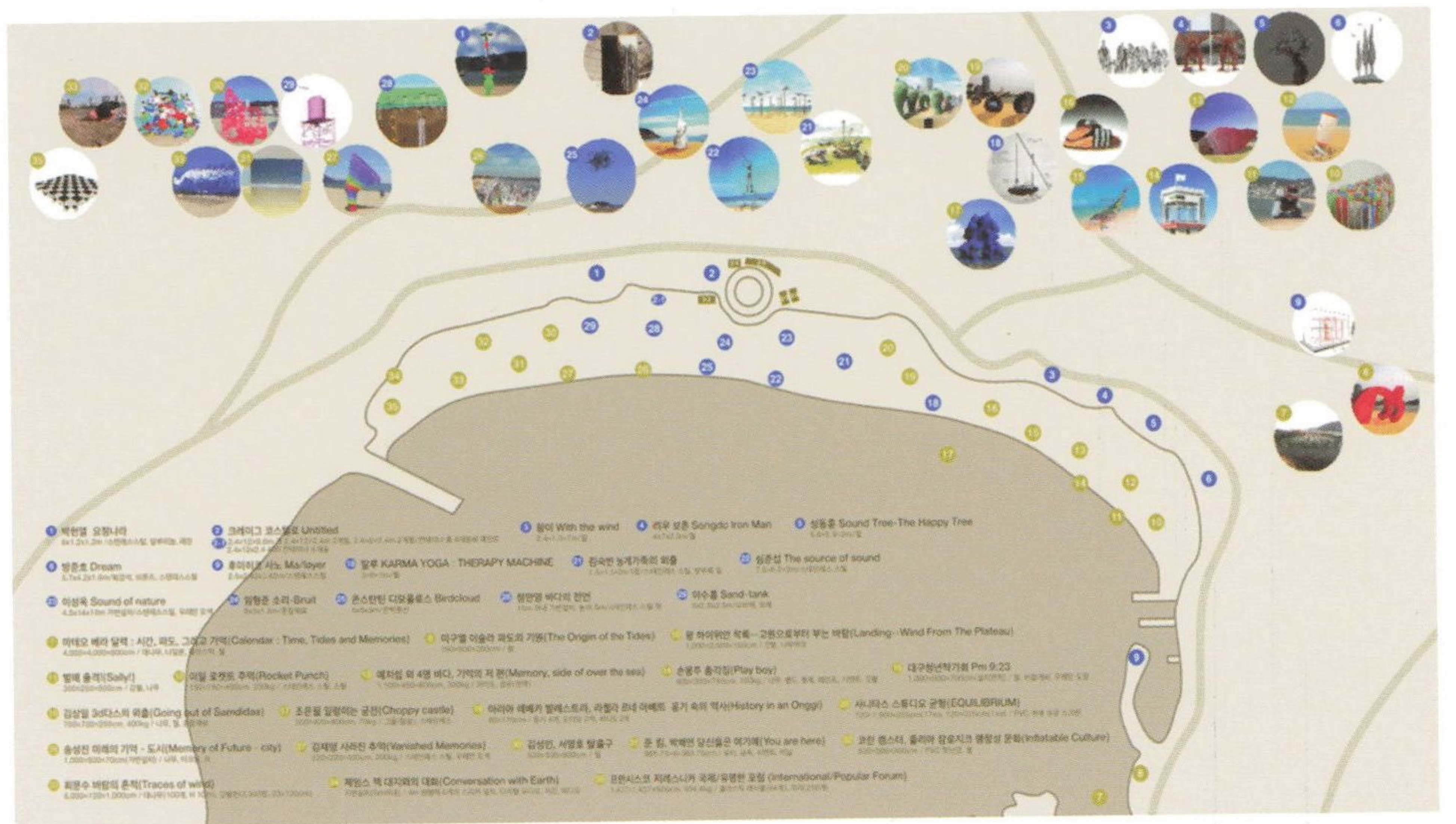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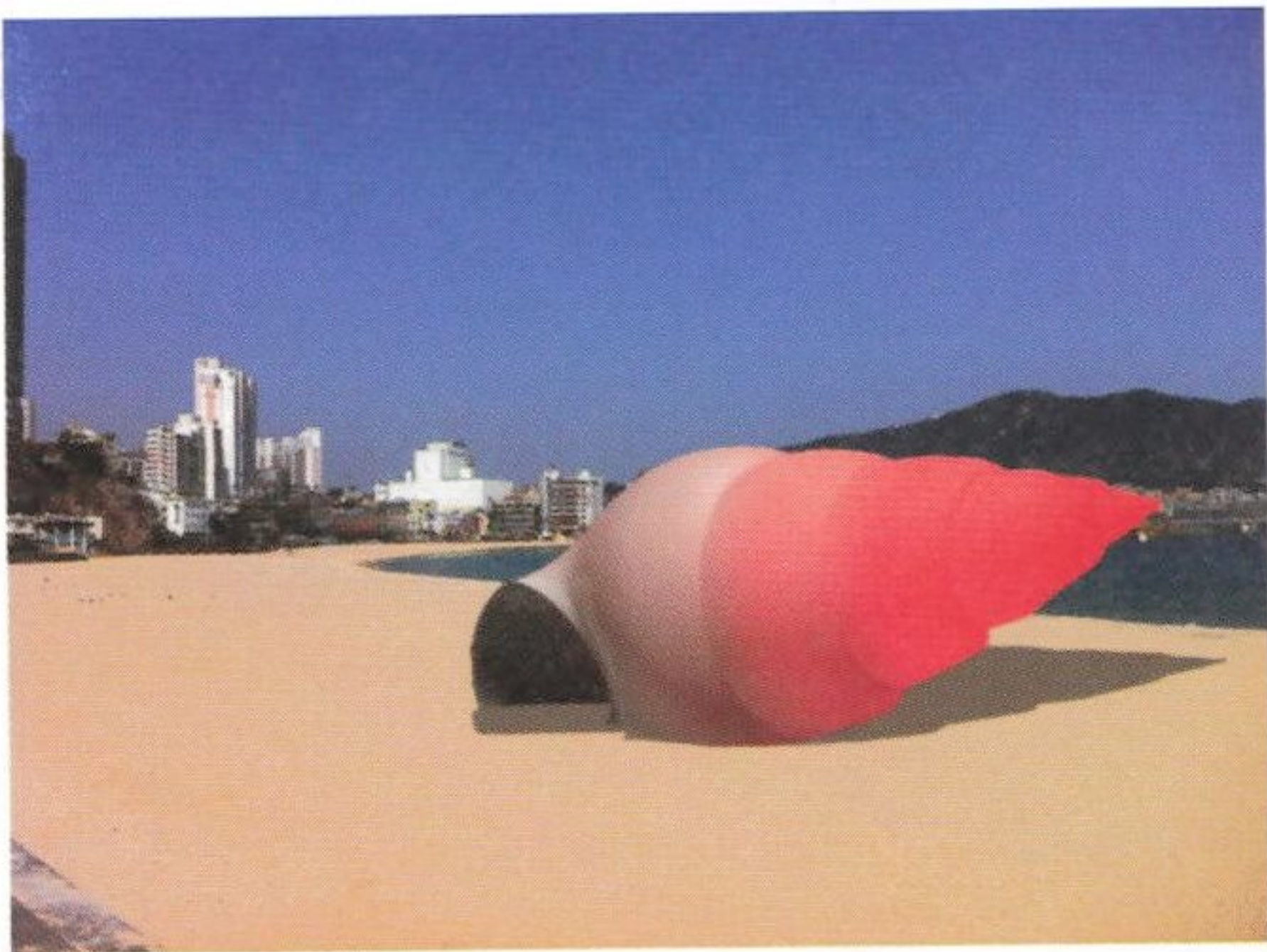
부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바다미술제 2013년 축제가 개장 100년을 맞은 송도해수욕장에서 9월 14일 막이 오른다.

12개국 35점의 작품들을 출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2013 바다미술제는 국제공모에서 25개국 109점의 작품이 접수될 정도로 예년보다 많은 작가들이 참여해 열기가 뜨겁다. 특히 올해는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시감독제를 도입하고 박태원 조각가를 전시감독으로 영입, 부산 특유의

전시양식이자 개방적이고도 대중친화적인 바다미술제의 전시 특성을 살리고 향후 바다미술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1987년 88서울올림픽의 프레올림픽 문화행사로 처음 개최된 바다미술제는 1993년까지 매년 개최되었고, 1995년 제8회 바다미술제 이후 5년의 공백기를 거쳐 2000 PICA(부산비엔날레 전신)에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2004년까지 바다미술제는 기획력이 강조된 전시라기 보다는 해양이라는 자연환경을 배

9월 14일-10월 13일(30일간)
송도해수욕장 일원
문의 : 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501-9369)



경으로 작가들간의 교감과 소통을 중시하는 현장성 짙은 야외설치미술 행사였다. 이후 2006년 백사장과 해수면에 한정되었던 공간에 대한 개념을 과감히 확장하고 공공미술의 개념을 접목시킨 퍼블릭 아트를 통해 '생활속의 예술'을 실현코자 하였다.

2011년, 바다미술제의 청년성과 실험성을 살리고 부산비엔날레와 함께 새로운 예술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 개최되면서 바다미술제는 큰 전환기를 맞았다. 2013년의 부제 'With 송도 : 기억·흔적·사람'은 원형의 전시 방식과 의미를 회복하려는 바다미술제와 100년의 장구한 역사속에 송도해수욕장이 가진 의미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송도라는 공간을 다시 선택한 것 또한, 화려하였으나 잊혀진 송도의 과거(기억)와 변화하는 현재(흔적), 아직 오지 않은 미래(사람)가 바다미술제와 같은 출발점에 있음(With 송도)을 제시한다.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2013 바다미술제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사준비는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부대행사 'Sea Art Fun Zone'는 '축제행사'로 이름을 바꾸고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고 각 프로그램들은 생활공간기획 통, 문화소통단체 숨, 부대프리마켓 아마존 등의 지역문화단체 및 공공단체와의 협업이 이루어졌다.

E·I 개발 역시 부산지역의 디자이너와 협업 속에 진행되었다. 디자이너는 공모를 통해 아

이텐티티, 인쇄매체, 모션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디자인 그룹 그린그림(박성진, 천지원)이 선정되어 2013 바다미술제의 E·I 개발을 맡았다. 2013 바다미술제의 영상광고는 부산의 독립영화감독 홍석진 감독이 총 책임을 맡았아 'With 송도 : 기억·흔적·사람' 주제에 맞는 모래를 오브제로 한 영상광고를 촬영 중에 있다. 또한 인기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음악감독을 맡았던 3인조 모던 락밴드 '에브리싱글데이 (Every Single Day)'가 12개국 35점의 작품해설과 라디오광고에 목소리를 재능기부한다. 축제행사는 광안리사람들 대표 이승욱이 축제행사감독을 맡아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송도해수욕장 전면을 축제장으로 조성, 중앙분수대 내 컨테이너 공간을 활용한 '바다살롱', '여러 가지 공작소'를 설치해 문화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산지역 인문학 단체들이 참여하는 '바다미술길'을 조성, 작품관람 및 좌담공간으로 활용한다.

10월 13일까지 행사기간 동안 주말마다 송도해수욕장 중앙분수대 간이무대에 아트마켓을 형성, 수공예 작가 제작 소품 전시, 초상화 그리기 등 부산지역 작가들이 만든 소품, 작품을 전시하여 참여문화단체의 활동을 알리고 풍성한 볼거리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티투어버스 내 아트버스를 신설, 바다미술제 기간 중 오픈탑버스 특별공연 등을 선보인다.

아름다운 도전, 오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벳' 김소현

뮤지컬 배우

뮤지컬 배우 김소현이 오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벳'의 일생을 그린 뮤지컬 '엘리자벳'으로 9월 부산을 찾는다.

"뮤지컬 '삼총사' 이후 오랜만에 부산을 찾습니다. 작품마다, 지역마다 관객의 반응이 다르지만 부산은 관객들이 무대를 적극적으로 즐기고 열정적으로 반응해 주셔서 부산 공연이 언제나 기다려집니다."

성악을 전공한 어머니의 권유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뒤늦게 성악공부를 시작한 김소현은 대학 진학 후 우연한 기회에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오디션에 참가하게 됐고, 그 한 번의 오디션으로 주인공 크리스틴役に 발탁되었다. 김소현의 인생을 바꾼 '우연'의 순간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디바 김소현을 만날 수 있었던 것.

당시를 추억하며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용감했다"고 말하는 그녀는 최고의 '크리스틴'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해 연기했고 지금까지 최고의 스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김소현은 '오페라의 유령'을 시작으로 '지킬 앤 하이드', '로미오 앤 줄리엣' 등 수많은 뮤지컬 주연과 더불어 'MBC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3'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중과 친숙해 졌다.

"배우에게는 연기의 폭이 물론 넓어야겠지만 자기의 이미지, 목소리에 맞는 작품이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로 처음 만난 오페라의 유령 '크리스틴'은 수백번을 공연했기 때문에 더 각별하죠, 그리고 2004년 초연 때부터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지킬 앤 하이드의 '엠마'도 잊을 수 없는 배역입니다."

어느새 데뷔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번에 연기하는 뮤

지컬 '엘리자벳'은 그에게도 큰 도전이다. 뮤지컬 '엘리자벳'은 유럽 최고의 대작 뮤지컬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초연 당시 많은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죽음마저 사랑에 빠지게 한 오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벳'이 실존 인물이고 소녀에서부터 어머니까지 연령대가 넓은 배역을 소화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부담이 크다. 그래도 누구나 한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대작인 만큼 무대를 준비하고 투어를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김소현에게 후회는 없다.

"엘리자벳을 떠나보낼 때까지 엘리자벳을 마음껏 사랑하고 그녀를 한 여인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뮤

지컬 '엘리자벳'은 음악은 물론 무대, 의상까지 굉장히 많은 볼거리가 있는 작품이라 뮤지컬을 많이 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라면 한번쯤 해보고 싶어 하는 훌륭한 작품인만큼 꼭 오셔서 많이 느끼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올해는 엘리자벳과의 만남으로 더 없이 행복했다는 그는 기회가 된다면 '미스사이공'의 '킴'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단다.

"킴은 여배우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꿔보는 배역이죠.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힘겨운 삶을 산 한 여인의 일생을 그린 작품인 만큼 '킴'의 아픔과 사랑, 모성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아름다운 배우 김소현. 김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바쁜 공연 일정 중에도 제자, 후배 양성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김소현은 그동안 대구 계명문화대학 생활음악학부 특임교수로 제자들을 지도했고 최근에는 남서울예술전문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뮤지컬의 기본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하고 인성과 감성이 겸비된 교육을 펼칠 계획으로 틈틈이 강의 준비를 하고 있다.

부산 공연을 오면 잊지 않고 서면시장의 돼지국밥집을 즐겨 찾는다는 김소현 씨. 꾸밈없는 솔직함과 열정적인 무대로 우리에게 행복에너지를 전해주는 김소현과의 만남이 그래서 더욱 기다려진다.



■ 뮤지컬 '엘리자벳'의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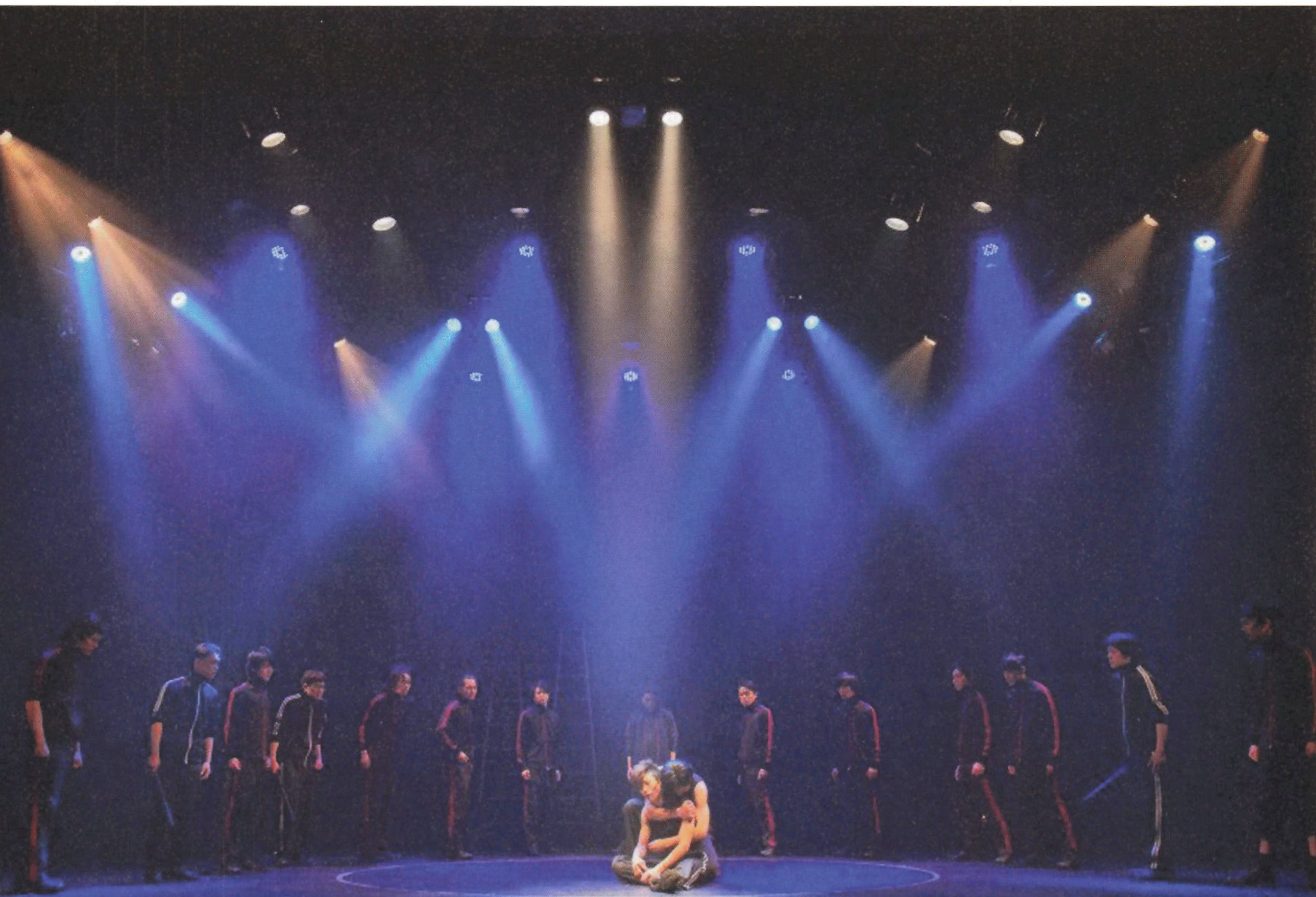
츠카 코헤이, 그 후

■ 이홍이_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박사과정 / 한일연극교류협의회 전문위원

일본 현대연극사 안에서 츄카 코헤이(1948-2010)의 위치는 독보적이다. 1970년대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그는, 극작가로서 또 연출가로서 전혀 새로운 작품을 쏟아냈다. 소위 신극이라는 서구 사실주의 연극이 수입된 이래로 줄곧 문학적 연극이 제창되던 일본 연극계에, 그는 다시 배우 중심의 작품 만들기 방식을 가져와 획기적인 장르를 개척한 인물이다. 대표작 <아타미 살인사건>, <카마타 행진곡>, <스트리퍼 이야기>, <비룡전> 등은 수많은 버전으로 무대에 올랐고, 영화나 소설로도 재탄생되었다.

그가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이유는 '김봉웅'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재일교포이기 때문인데, 일본 현대연극사 안에서 커다란 한 획을 그은 그의 작품은 의외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실적이고, 문학적인 서구연극의 고정된 연극 개념이 지배적인 우리의 연극계에서, 그의 연극이 보여주는 낯설음은 극

■ 나카야시키 노리히토 연출의 <비룡전> 사진제공: GORCH Br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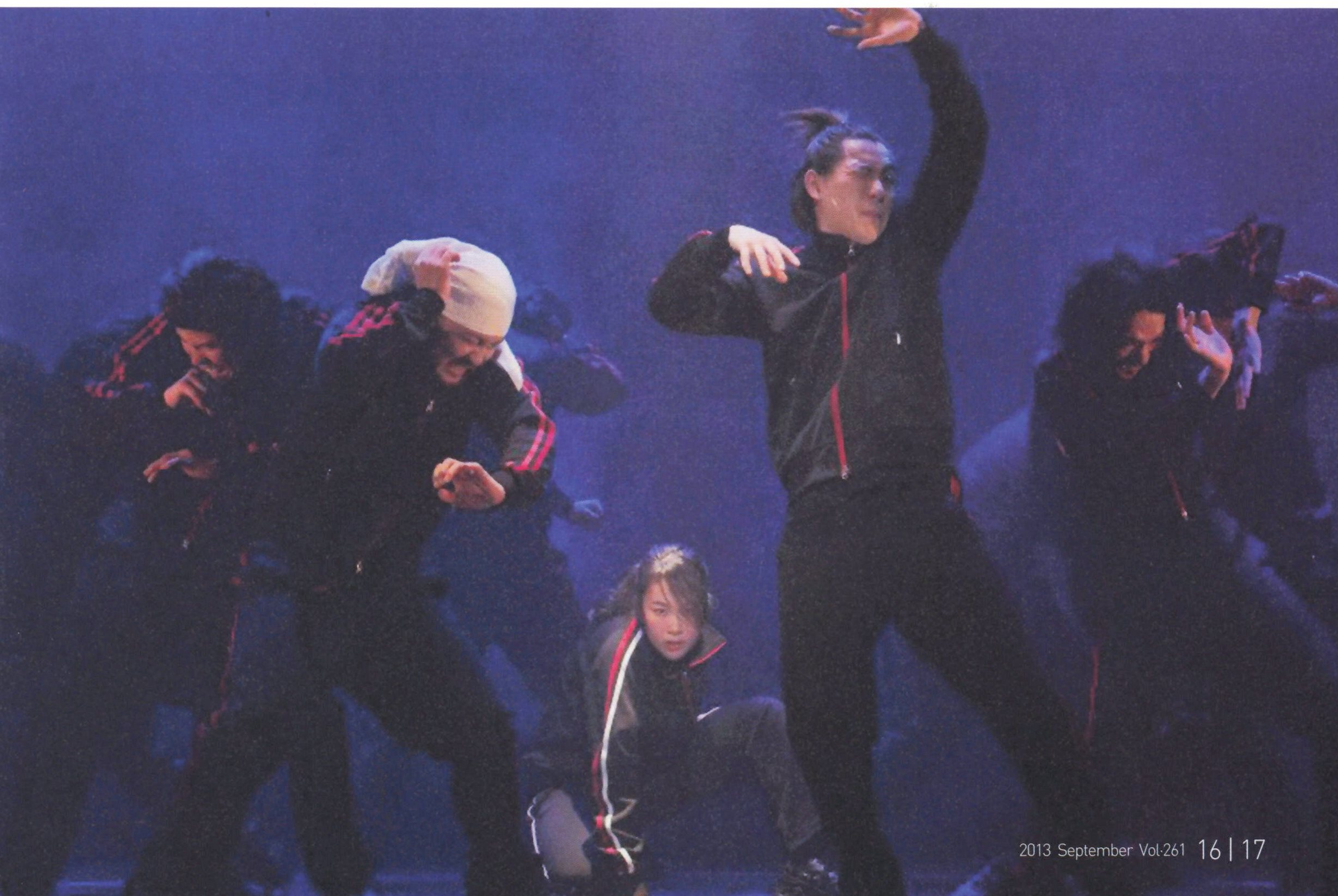


일본 현대연극사 안에서
츠카 코헤이(1948-2010)의
위치는 독보적이다.
그가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이유는
'김봉웅'이라는 한국이름을 가진
재일교포이기 때문이다.

복하기 어려운 과제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재일교포 작가로서, 일본대중문화의 유입이 금지되었던 1985년에 내한했다. 그리고 대표작 <아타미 살인사건>을 <뜨거운 바다>라는 제목으로 고쳐 전무송, 최주봉, 강태기, 김지숙의 출연으로 한국 공연(11월 1일~9일, 문예회관 대극장)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이후 이 작품은 1987년(6월 23일~7월 12일, 미리내 예술극장)에 재연되었고, 1994년(12월, 창무포스트 극장)에는 극단 전설에 의해, 또 1999년(4월 16일~27일, 서울 문예회관)에는 한국을 다시 찾은 츠카 코헤이에 의해 <뜨거운 바다~도쿄에서 온 형사>, <뜨거운 파도~평양에서 온 형사>, <뜨거운 파도~여형사 이야기(일본어 공연)>가 공연되었다. 극단 전설은 그의 또 다른 작품 <카다타 행진곡>을 1996년(2월, 학전 소극장)에서 공연한 적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그의 명성은 <뜨거운 바다>로 이어져, 2012년(8월 4일~19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 고선웅의 연출로 다시 주목을 받았다.

2010년 7월 10일,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쉽게도 조국에서 다시 무대를 밟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다. 대신 그에게 있어 평생의 일터였던 일본에서는 추모의 열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희곡은 쉬지 않고 일본의 곳곳에서 무대화되고 있다.





■ 기타구 츠카 코헤이 극단 <초급혁명강좌 '80> [사진제공: 유타스(구-타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발길이 향했던 것은 2011년의 기타구 츠카 코헤이 극단(北区つかこうへい劇団) 해산공연이었다. 이 해산 공연은 5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두 달 동안, 세 개의 극장에서 총 8개의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이 극단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자면, 츠카 코헤이가 1974년에 창단해 1982년에 '츠카 코헤이 사무소'를 해산한 후, 1994년에 실질적인 극단 활동을 위해 창단한 것으로 주로 배우의 양성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특징으로는 도쿄의 기타구를 거점으로 활동해, 그 지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운영되었다는 점인데, 이러한 관계는 이 극단이 해산된 이후에도 '기타구 AKT STAGE(After Kouhei Tsuka/At KiTaku를 의미)'라는 이름으로 재출발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들의 해산공연에서 직접 본 작품은 <초급혁명강좌 비룡전 '80>과 <매춘수사관> 두 작품이다. 먼저, <매춘수사관>은 기타구에 위치한 타키노가와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는데, 제목은 생소하지만, 사실은 <뜨거운 바다> 즉 <아타미 살인사건>의 여형사 편이었다. 주인공을 여형사로 설정해 제일교포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 되었다. 츠카 코헤이가 '차별'을 다루는 방식은 매우 독특한데,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세상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낮 뜨거울 정도로 심한 차별적 용어들을 배우들이 직접, 그것도 있는 힘껏 외치게 만들어 마치 한풀이에 가까운 경지에 이르게 한다.

<비룡전>의 여러 버전 중 하나인, <초급혁명강좌 비룡전 '80> 역시 그와 비슷한데, 이 이야기는 1960년대 한창이었던 일본의 학생운동을 배경으로 강도 높은 사회비판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역시, 관찮은 대학에 다니며 학생운동의 선두에 섰다가 졸업하고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남자, 가난 때문에 대학 공부를 못하고 기동대원이 되어 대학생들을

계속 내리치며 살아가는 남자, 그리고 그 둘 사이 푹푹 하지만 학생운동의 희생양이 된 여자의 삼각관계를 그리고 있다. 밑바닥까지 추락하고, 더러워지고 창피한, 그래서 숨기고 싶은 약한 자들의 삶이 빈 무대에 고스란히 올려져, 처참할 정도로 큰 소리로 적나라하게 두서없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해지기보다 후련하고 개운한 느낌이 든다.

이와 같이 배우가 빛을 발하는 무대를 만든다는 원칙은, 츠카 코헤이의 극작술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특징이 된다. 그의 모든 공연기록이 모두 다 다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매번 만나는 배우마다 특성과 개성을 고려해, 작품을 만들면서 대사를 쓰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연극 만들기 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동시에 근대극에 반하는 지극히 현대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기타구 츠카 코헤이 극단이 이러한 그의 방식을 그대로 재현했다면, 올해 1월(23일~27일, 혼다 극장)에 본 나카야시키 노리히토(中屋敷法仁) 연출의 <비룡전>은 거기에 새로운 색깔을 입힌 또 다른 비룡전이었다. 1984년생으로 자신의 극단 카키쿠우카쿠를 이끌고 있는 나카야시키 노리히토는, 어떤 면에서는 츠카 코헤이를 매우 닮았다 할 수 있다. 우선, '조용한 연극'이 주를 이루던 최근 일본 연극계 속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연극을 하고 있다는 점이 그 첫 번째 이유다. 게다가 작/연출을 맡는 그의 희곡 집필 속도는 깜짝 놀랄 만큼 빠르며, 예리한 눈으로 배우들을 관찰해 각 배우의 매력이 어떻게 하면 관객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지를 고려하는 작가다. 형식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것은 연극입니다"를 강하게 어필하는 대사들은, 나카야시키 연출가가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출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특히 츠카 코헤이의 <비룡전>을 학생운동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자신의 또래와 만든다는 대담한 시도가 흥미로웠다. 삼각관계 속 세 사람은 한풀이 대신 놀이를 하고 있었고, 그들의 울분은 세상이라는 우스운 부조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나카야시키 노리히토와 츠카 코헤이의 궁합이 잘 맞는

것과 다른 식으로, 올해 7월에는 또 한 명의 젊은 연출가가 그의 희곡으로 신선한 무대를 선보여 큰 주목을 받고 있었다. 미우라 다이스케(三浦大輔) 연출의 <스트리퍼 이야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7월 10일~28일 도쿄예술극장 씨어터 이스트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도쿄예술극장이 일본 거장의 희곡과 현재 떠오르고 있는 젊은 연출가의 만남을 주선한 제1탄으로, 'Root Vol. 1'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었다. 와세다 대학 출신에, 자신의 극단 포트도루(ポツドール)의 대표이자 작/연출가인 미우라 다이스케는 1975년생이지만, 이미 그의 파격적이고 개성 넘치는 연출력은 중견 연출가의 명성에 뒤지지 않는다.

특히 이번 <스트리퍼 이야기>는 활자로 된 대본이 출판된 적이 없는 전설의 희곡으로,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된 채로 영화화되었을 때의 시나리오만이 츠카 코헤이 전집 속에 수록되어 있다. 원작 <스트리퍼 이야기>에 자신의 해석을 더한 이번 작품은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공연하는 스트리퍼들과 그녀들에게 기생하며 살아가는 한심한 남자들의 이야기라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밑바닥 인생의 삶을 미화하지도, 헛된 희망으로 감싸지도 않는 츠카 코헤이의 세계관은 여전했지만, 극장 전체를 스트리퍼들의 공연장과 분장실, 조명실로 보이게끔 만드는 기술이 놀라웠다. 특히 몰래 객석에 앉아 대기하던 배우들이 돌연 소리를 지르며 스트리퍼가 있는 무대 위로 올라가는 장면에서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재미와 함께 생생하게 전해지는 그 장면의 존재감에 몸을 떨 수밖에 없었다.

큰 줄기가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트리퍼인 여주인공은 사랑도 행복도 아기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녀의 불행은 자신을 놓아주지 않은 지독한 남자 때문인데,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아내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순진한 딸이 찾아와 무작정 미국으로 가서 발레스쿨에 들어갈 거라는 꿈을 말하고, 그녀는 그 어린 소녀 앞에서 뮤지컬 영화에서 봤던 춤을 취보여주고(실은 자기보다 훨씬 제대로 된 무용을 할 줄 아는 소녀 앞에서), 그 소녀를 위해 살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결국 매독에 걸려 정신까지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이 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 자체가 비극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소설가로 잘 알려진 릴리 프랭키가 남자 주인공을 맡아 그려낸 한심한 남자는 미우라 다이스케의 연출을 더해 색다른 츠카 코헤이의 인물을 만들어냈지만, 그 세계 속 모든 사람들의 응어리가 물풍선 터지듯 시원하게 터지고, 세상을 지독한 것이 아닌 한 판의 연희처럼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여전했다. 역시, 츠카 코헤이와 함께 김봉웅이라는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어떤 젊은 연출가가 또 그의 작품과 만날까? 기쁜 마음으로 기대해본다.

■ 미우라 다이스케 연출의 <스트리퍼 이야기> [사진제공: 도쿄예술극장]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 14번 죽은 자의 노래 (下)

■ 이동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3악장 '로렐라이' 말라게나 리듬이 절정에 이를 즈음 갑자기 채찍 소리가 두 번 들리고 바로 3악장이 시작된다. 프랑스 작가인 기욤 아폴리네르가 라인 강 유래설화를 주제로 쓴 시인데, 대화체는 아니지만 레치타티보처럼 읊조리는 투로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번갈아 부른다. 기악 연결구를 거쳐 잠시 템포가 느려지면, 소프라노가 마녀의 유혹을 나타내는 부분을 부드럽게 부른다. 소프라노가 부르는 반음계적인 노래는 절망과 격분에 의해 방향을 잃은 듯 방황하고 있다. 이에 베이스가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하며 다시 분위기가 급변하는 등 오페라 풍의 전개를 취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인상적인 첼로 독주가 등장하면서 바로 4악장으로 연결된다.

라인의 물굽이 위로 배가 나아간다. 그 안에는 연인이 앉아 있다.

그리고 나를 부르고 있다.

잔잔한 물결위에 비치는 라인 강처럼

맑은 내 눈동자 빛나는 머릿결을 보고

높이 솟아 있는 낭떠러지에서 몸을 던지고 만다.

4악장 '자살' 역시 아폴리네르의 시이며, 이후 8악장까지 그의 시이다. 이전 악장 후반부부터 시작된 첼로 독주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는 소프라노 독창의 오블리가토로 취급된다. 자살한 이의 시점에서 부드럽게 부르는 소프라노의 노래는 아름다운 서정성의 베일에 가려진 슬픔과 분노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며 자살하는 자의 영혼이 가진 설움과 우울함을 섬세하게 그리는데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인상적인 선율이다. 클라이맥스의 찌르는 듯한 연타의 실로폰 소리는 호전적이며 어딘가 불안감이 느껴진다.

세 송이 백합 세 송이 백합.

십자가 없는 내 무덤위에 놓인 세 송이 백합.



■ 피카소가 그린 시인 아폴리네르

5악장 '조심스럽게' 행진곡풍의 실로폰의 솔로 이후 타악기들이 스트라빈스키의 '병사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우스꽝스러운 행진곡 리듬을 연주하여 4악장과의 예리한 대조를 이룬다. 소프라노가 이에 맞춰 비교적 경쾌하고 신랄한 선율을 노래하는데, 가사 내용은 오히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지켜보는 여인의 시선을 그리고 있다.

장미꽃이 시들듯이 오늘 그가 죽어간다.

나의 작은 병사 나의 연인 내 형제여.

근친상간과 죽음 속에서 나는 아름다워지고 싶다.

6악장 '부인, 보십시오!' 5악장에 이어 우스꽝스러운 느낌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3악장처럼 대화 형태로 주고받는다. '부인, 보십시오!'라는 베이스의 진지한 질문에 대한 소프라노의 대답은 죽음에 의해 사랑을 잃은 관능과 육감의 공허함을 허탈한 웃음으로 달래어 신랄함과 비애감을 동시에 가져다준다. 구상은 아주 단순한 형태로 되어있으며 날카로운 풍자에 상처 입은 의식과 씩씩한 비애가 여운이 되어 남는다.

7악장은 '라 상떼 감옥에서' 시인 아폴리네르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어난 미술품 도난 사건에 휘말려 1주일 동안 라 상떼 감옥에 수감됐는데, 이때의 경험을 살려 지은 시이다. 5, 6악장의 아이러니와 신랄함 대신 여기서는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강하다. 4, 5, 6악장은 소프라노가 주인공인데 비해 7, 8, 9악장은 베이스가 주인공이다. 피치카토와 콜레노(활동으로 현을 두드려 소리 내는 주법)의 유니즌으로 연주되는 현악기의 중얼거리는 듯한 노래가 인상적이다. 저음현과 베이스의 심각함과 우스꽝스러운 풍자의 대비가 효과적이다.

8악장 '콘스탄티노플의 술탄에게 보내는 자포로제 코사크들의 답장' 오스만 튀르크의 술탄인 무함마드 4세에게 코사크들이 도발과 비꼴을 가득 담은 편지를 보낸 일화를 각색한 시이다. 이 교향곡에서 가장 빠르고 동적이며 기악과 베이스 모두 날카롭고 독기가 가득한 음악으로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자아낸다. 후반부에서는 10대의 바이올린들이 10개의 성부로 갈라져 불협화음을 유발하는 부분은 현대적인 음향을 위해 클러스터(음송이) 효과를 사용한 것으로 리듬이 확실하면서도 전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9악장 '오, 델비크, 델비크!' 갑자기 분위기가 다시 무겁고 비통하게 가라앉고, 베이스가 강한 탄식조로 시를 읊듯이 노래한다. 유일한 러시아시인의 시로서, 독일계 러시아시인 빌헬름 쿠헤베케르가 안톤 델비크에게 헌정한 시를 사용했다. 델비크와 푸시킨과 친구였던 쿠헤베케르는 1825년에 황제 니콜라이 1세의 폭정에 대대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데카브리스트 파의 일원이었지만, 봉기가 실패한 뒤 종신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사망했다. 이 시는 친구인 안톤 델비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시로, 유배당한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오, 델비크, 델비크!
무엇으로 보답 받을 수 있을까.
대사업과 시작(詩作)은?
천재에게 기쁨은 무엇인가? 어디인가?
악당들과 우매한 자들 속에서?

10악장 '시인의 죽음' 마지막 악장과 마찬가지로 독일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를



■ 시인 릴케

취했으며, 1악장 초반에 나왔던 바이올린의 희미한 연주가 다시 나오면서 소프라노가 죽은 시인의 모습을 묘사하는 담담한 노래를 부른다.

시인은 죽어있었다.

그 얼굴은

전처럼 창백함을 유지하면서도 무언가를 거부하고 있었다.

11악장 '결말' 이전 악장에서 문답형식으로 쓰였던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창형태를 취한다. 결국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타고나는 죽음의 위대함을 주장하는 시인데, 중창이 끝난 뒤 현악 파트의 점점 빨라지는 리듬으로 연주되는 불협화음으로 강렬하게 마무리된다. 고음의 바이올린과 분할된 더블베이스가 대조를 이루며 그 어둡 침침한 음조를 만드는데 첼로가 빠짐으로써 더욱 강렬하게 어둠이 느껴진다.

죽음은 전능하다.

환희의 순간에도 그것은 지켜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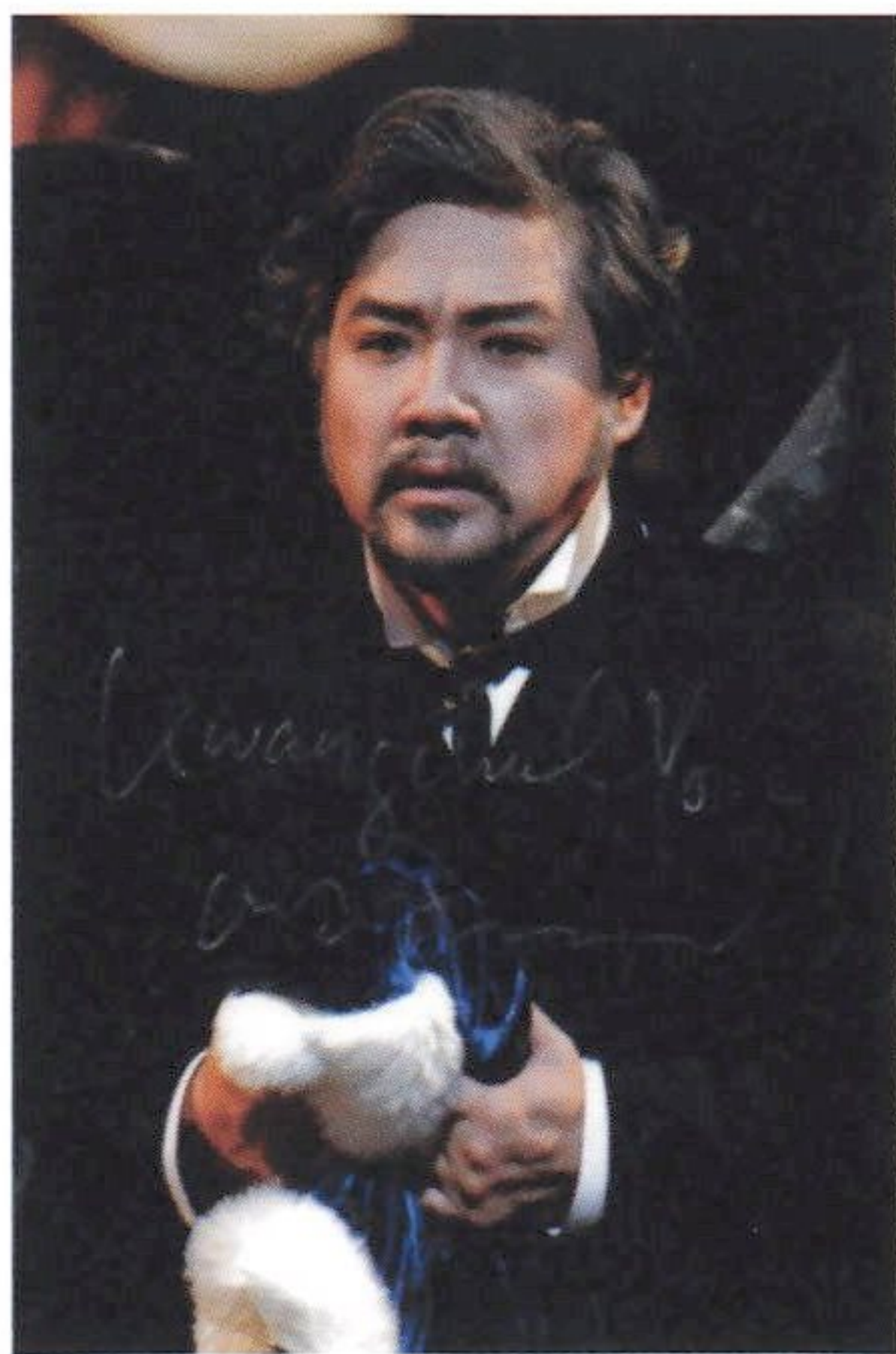
인생 최고의 순간 우리 안에서 몸부림치고

우리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우리 안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

21세기의 바그너 문화국 독일의 간판 IV

■ 임채홍
바이로이트대학교 음악학 박사



■ 슈테판 헤어하임 연출 '파르지팔'에서 '구르네만츠'로 분장한 연광철(2008년)

바그너의 가장 중요한 예술이론서로 인정되고 있는 '오페라와 드라마(Oper und Drama)'는 그가 1850년 9월부터 1851년 2월까지 망명지인 취리히에서 저술하여 그의 친구 테오도르 울리히(Theodor Uhlig)에게 헌정한 것이다. 후일에 바그너는 이 광범위한 글을 그의 평생저작집인 '수집된 글들'의 제3, 4권으로 발표한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것을 '음악에 관한 모든 책들 중의 책'이라 불렀다.

바그너는 '예술과 종교'와 '미래의 예술'이라는 제목을 붙인 글들에서 이미 예술의 분열에 대해 하소연 하면서, 이상적인 예술형태로의 길들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것은 곧 모든 예술들을 포괄하는 '총체예술작품'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심역할을 하는 것은 드라마와 음악이 융해되어 '악극'의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저서는 세 부분, 곧 '오페라와 음악의 실제', '연극과 드라마적 시 예술의 실제', '미래의 드라마에 있어서 문학예술과 음악예술'로 나뉜다. 여기서 바그너는 먼저 '언어문학'과 '음향문학'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고, 음악을 인간 언어의 가장 완전한 형태, 곧 시의 대관으로 정의한다.

"학문은 우리에게 언어의 유기체를 노출시켰다; 그러나 학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사멸한, 또는 마비된 유기체였으며, 오로지 최고의 '시인의 곤경'만이 그것을 소생시킬 수 있는데, 이 시인의 곤경이, 자동 해부도가 자른 상처들을 언어의 몸에서 다시금 아물게 하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 행위를 통해서 소생시키는 것이다. 이 생기, 곧 호흡이 바로 음악이다!"

시인작곡가인 바그너는 이 '언어문학'과 '음향문학'에서 극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두운의 아주 특별한 효과와 원초적인 근친 음들로 이루어진 화성적 전조를 즐겨 사용한다. 그는 또 특정한 음들과 조성들을 찾아내기 위해 수공예적인 절차를 도입 및 설명한다. 바그너는 사실상 '음설치자'라는 개념으로 대변되는 작곡가로서 하나의 새로운 방법을 발전시키는데, 그것은 인간의 감정에 가능한 최고도의 효과를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는 거의 학문적으로 음악의 효과와 씨름한 첫 번째 작곡가인데, 이것은 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음악의 생리학적 기능을 연구했으며, '음악의 생리학적 기초로서의 음 감각에 관한 학설'을 발표한 베를린의 물리학자 헤르만 폰 헬름홀츠(Hermann von Helmholtz)의 이해와도 유사하다.

'음회화'와 '유도동기'는 바그너의 작곡기법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실상 여성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화성은 바그너에게서 '출산하는 요소'인데, 그는 시 쓰기에서 '의도'를 생식하는 씨앗으로서 이해한다. 또 그는 음악의 중계를 위해 오케스트라에 최적의 기능을 일임함으로써 '음회화'의 개념을 정의한다. 한 작곡가가 음악의 효과를 마치 제도관 위에다 제도하듯 '계획하는' 시도는 바그너가 처음으로 한 것인데, 그것은 음악을 이용하여 '드라마의 줄거리의 휴식단계에서 긴장을 강화시켜 주며', 청취자에게서 기대와 요구를 일깨우고 상승시키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음악은 청취자의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

소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이해다. 그 다음에 그는 '멜로디적 요소들'에 대해 말하는데, 그것들은 '감정의 길잡이'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감을 회상하게 하고, 회상을 예감하게 함으로써 드라마의 중요한 건축자재들이 된다. 바그너는 여기서 자신의 '유도동기기법'을 밝히는데, 그것은 '니벨룽의 반지'에서는 '무한선율(unendliche Melodie)'로서 컨 베이어벨트와도 같이 흐르는 드라마의 줄거리에 놀랍게 사용된다.

음의 시인인 바그너는 그의 저서 '오페라와 드라마'를 마감하면서, 효과로 가득 찬 하나의 드라마는 오로지 음으로 된 시로부터 생성될 수 있으며, 시인과 음악가는 하나의 완전한 음악적 표현이 현실이 되게끔 서로 조율을 해야 한다고 변론한다. "노래로 불려질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시로서의 가치도 없다"라는 논리로 그는 이것을 주장한다. 책의 마감부인 '향후 전망' 부분에서 바그너는 예술 환경의 혁명적 변화를 위한 희망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행정가는 체념하고, 정치인은 손을 놓고, 사회주의자는 결실 없는 체계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철학자 자신도 단지 해명만 할 뿐, 예고는 할 수 없는 바로 거기에 서있는 사람이 바로 예술가인데, 그는 해맑은 눈으로 유일한 참된 것, 바로 '인간'을 향한 동경에 스스로를 비추어 그 형상들을 바라볼 수 있다. 오직 예술가만이 앞서서 아직 형태가 없는 세계를, 형태를 갖춘 세계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즐기는 것은 바로 통보하는 것이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통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감성과 감각'을 발견한다. 그의 음악은 사실상 이와 같은 '통보'로 점철되어 있다. 이 통보의 개념은 가장 쉽게는 '광파레' 또는 '행진곡'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은 점점 변화 내지 발전되어 낭만성이 풍부한 '선포'의 형태를 띤다. 여기에 속하는 예로서, '파르지팔'에서 중지 없이 장2도 상향진행으로 머무는 '신앙의 모티브', '사랑의 만찬 모티브' 등이 되겠다. 미래의 예술작품의 생산자는 어느 누구도 아닌 현재의 예술가인데, 그는



■ 바이로이트축제 무대의 '니벨룽의 반지' 중 '발퀴레'들(2008년)

1^{te} Vorstellung im vierten Abonnement.
Königlich Sächsisches Hoftheater.
Montag, den 2. Januar 1843.
Zum ersten Male:
Der fliegende Holländer.
Romantische Oper in drei Akten, von Richard Wagner.

Personen
Zerkow, netterlicher Doctor. — Der Koffe.
Centa, sein Tochter. — Frau Schreiber-Dorant.
Graf, ein Adliger. — Der Knecht.
Herr, Hausherrin Talant. — Frau Wälder.
Der Herrmann Talant. — Der Wälder.
Der Holländer. — Der Wälder.
Katerin des Wälders. — Die Wälder des Wälders. Wälder.
Centa, Tochter des Koffe.
Centa, Tochter des Koffe.

Leitender ist an der Spitze des Orchesters Herr Dr. Richter.
Krautl. Herr Dietrich.

Einlaß-Preise:
Das Orchester in der Loge des ersten Ranges und das Amphitheater. . . 1 Zlot. — 10gr.
...
Der freie Einlaß ist beschränkt sich bei der heutigen Vorstellung bloß auf die zum Hoffaule gehörigen Personen und die Mitglieder des Königl. Hoftheaters.

Einlaß um 5 Uhr. Anfang um 6 Uhr.
Ende gegen 9 Uhr.

■ '방랑하는 화란인의 초연 포스터' (1843년 1월 2일, 드레스덴 작센 왕립극장)

미래의 삶을 예측하고, 그 속에 포함되고자 동경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 동경을 자신의 가장 고유한 능력으로부터 꺼내어 자신을 부양하는 사람은 이미 지금 보다 나은 삶 속에 살고 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그는 바로 예술가다.

일명 '세계드라마(Weltdrama)'로 불리는 4부작 '니벨룽의 반지'는 게르만 신화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의 신화 및 전설들이 소재로서 채택되는데, 일종의 '성인용 동화'인 이 대작 안에서 바그너는 결코 하나의 흥미진진하고, 인생사의 온갖 사건이나 심리적 요소들이 담긴 애깃거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봉건적인 시대상을 풍자적으로 세상에 폭로하여, 보다 정의롭고 인간적인 세상을 만드는 일이었다. 여기서 바그너는 '무대'가 가진 최대의 장점, 곧 사회비평이 허용되어 있었던 유일한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억압세력들을 제거하고, 국가, 교회, 돈의 구속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려 했다.

그의 이상은 자유롭고 새로운 인간, 곧 깊은 인문주의였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투쟁한 노동자들과 교감을 나누었다. 이러한 추구하고 성향은 그의 모든 악극들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되며, 이러한 구원은 결국 순결한 한 인간을 통해서 성취된다. 아름다운 음악으로서의 오페라(특히 아리아)를 바그너는 심도가 결여된 피상적인 것으로 보았고, 자신의 악극은 오직 하나의 또는 무한의 멜로디로 이루어진 통작이 되게 했다.

정승도 부럽지 않소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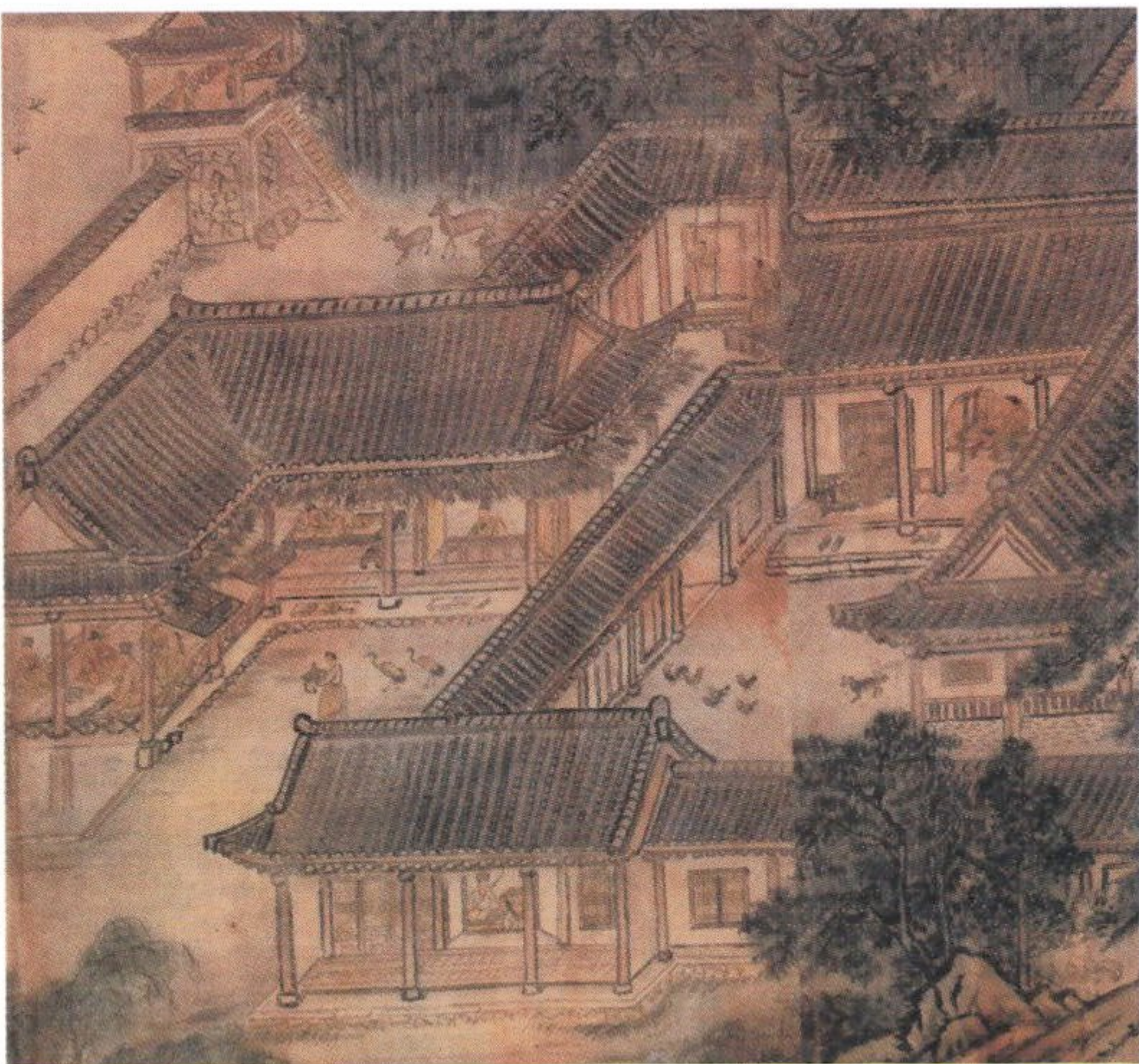
■ 변광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예부터 선비들은 풍광 좋은 자연속에서 음풍농월하며 편안히 사는 것을 즐겼다. 복잡한 세상살이에 구차하고 궁색하게 사는 것보다 산수를 즐기며 안빈낙도하는 삶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관직으로 현달하여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세상에 널리 알리려는 사람들도 많았다. 물론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실현할 뜻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정치인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권력욕과 물욕에 집착하여 눈이 흐려지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마련이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김홍도의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 비단담채, 41.8×133.7cm, 호암미술관>이다. 그의 나이가 이미 중후한 57세(1801년)에 그린 작품이며 8폭병풍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한 전체 그림의 1폭은 결락되어 있다. 이 그림은 긴 호흡으로 보아야 될 것 같다. 화면의 전체는 들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고 외곽으로 나즈막한 산들이 보인다. 원근으로 작은 봉우리를 두고 그 사이 들판의 오른쪽에 큰 저택이 들어서 있다. 긴 용마루 골을 연이어 여러 기와건물이 들어서 안채와 뒷채 및 사랑채의 일곽을 이루었고, 후원의 장독대 및 경치를 전망하는 망대와 외벽담으로 지어진 커다란 가옥이다. 내부를 들여다 보면 방마다 식솔들이 제각기 자기 일에 몰두해 있는 모습이 흥미롭다. 우선 안채에는 물레 돌리고 베짜는 여인들, 행랑 곳간을 지나 앞쪽 외곽으로 나있는 방에는 소년에게 글공부시키는 모습, 안마당에는 닭들이 모이를 쪼고 있으며 강아지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한편 뒷채에는 소녀가 나무에 메단 그네를 타고 아이를 업은 유모는 구경하고 있다. 이어서 ㄱ자형 사랑채의 안쪽 방에는 선비가 난간에 몸을 살짝 붙여 장죽을 문채 마당을 걸어다니는 두루미를 응시하고 있고, 가운데 방에는 평상에 비스듬히 누워 글 읽는 모습이며 앞의 안상위엔 기물이 놓여져 있다. 또 누마루를 이룬 사랑채 끝에는 주인이 손님을 맞아 거문고를 타고 있는데, 사방관과 갓을 쓴 선비가 곡조감상에 빠져있다. 곁에는 시동 2명이 시중을 들 자세다. 시원한 청풍을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어올려 걸쇠에 걸어놓은 모습이 사실적이다. 여기에 아낙네가 술상을 들고 있다. 담장끝 망대에서 선비가 장죽을 입에 물고 멀리 들판너머 응시하고 있다. 마침 버드나무 굽이길을 돌아 손님이 소를 타고 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 순간에 새 두 마리가 반겨날고 벽면 앞에는 소가 쉬고 있는데 마침 노루 가족이 숲에서 나왔다. 요새말로 숲속의 저택이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그려졌다. 앞쪽 대문칸 옆 마구간에는 하인이 말먹이를 주고 있으며, 맨오른쪽 숲으로 아낙이 뭔가 들고 오르는데 뭔지 잘 알 수 없다. 한편 전원의 풍경을 보니 들에 일하는 농부, 강아지를 앞세우고 새참을 이고 가는 아낙과 뒤따르는 아이들, 낚시질하는 남정네가 눈에 들어온다. 전체적으로 보아 모두가 일상에 몰두해 있는 모습으로서 목가적이며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다.

1801년 12월, 어린 국왕 순조의 수두(水痘)가 마침 쾌차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8폭병풍으로 제작했다. 그 중 제6~8폭에는 중국 후한의 중장통(仲長統)이 지은 <낙지론(樂志論)>의 전문과 간재(良齋) 홍의영(洪儀泳:1750~1815)이 지은 제발이 기록되어 있



■ 삼공불환도 저택내부



다. 홍의영은 교리 등을 역임하다가 집안에 화란이 일어나 벼슬길을 단념하고, 여러 화사들과 교류하며 좋은 그림에 제(題)를 많이 썼던 인물이다. 그의 제발은 끝 쪽에 쓰여져 있다.

신유년 겨울 12월에 임금께서 수두가 나으셔서 온 나라가 기뻐하였다. 유후(留後) 한공(韓公)이 계병풍(楔屏)을 만들어 휘하에 나누어 주었는데, 대개 전에 없던 경사를 기념한 것이다. 한공과 나는 <신우치수도(神禹治水圖)>를 얻었고, 총제(摠制)는 <화훼영모(花卉翎毛)>를, 주판(州判)은 <삼공불환도>를 원하여 각기 좋아하는 바를 가졌다. 그림이 완성되자 드디어 중장씨(仲長氏)의 낙지론(樂志論)을 그림 위에 제발하였다. 그 말이 그림에 부합되는 것을 취하였다. 또 좋아하는 바를 이루기를 기약하여, 중장씨가 논제한 내용과 단원 그림의 뜻을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간재가 단원의 삼공불환도에 제를 쓰다.

이 작품은 순조가 쾌유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한공이 중심이 되어 만든 8폭 계병이었다. 여기서의 한공은 곧 그 해 5월 28일 강화부 유수로 임명되었던 한만유(韓晩裕; 1746~1812)를 가리키는데, 후에 한성판윤·이조판서 등 고위직을 지냈다. 그런 인물이었기에 계병풍을 휘하 지인들에게 나눠주는 선배의 아량을 보이고 있다. 이 작품으로 보아 단원은 순조가 재위하던 19세기 초에도 주변의 관리들과의 인맥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작품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다만 환갑 전후 나이로 공적인 작품활동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그리는 수법이면서도 산수배경과 등장인물은 철저히 우리 산하, 우리 선조들을 소재로 하고 있음에 감탄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앞 쪽 장문의 제발은 중장통이 지은 <낙지론>의 전문이다. 산수 좋은 자연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안락하게 사는 것이 벼슬에 연연해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이라는 내용이다. 중장통은 널따란 터에 자리잡은 큰 집에 살았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

아했고 성품이 드높아 과감히 말하였으며 작은 예절을 따지지 않았다. 관아에서 여러차례 불렀으나 병을 칭탁하고 나아가지 않으면서 “무릇 제왕을 따라 노니는 자들은 입신양명하고자 해서이나, 이름은 항상 보존되는 것이 아니요 인생은 죽기 쉬운 법이다. 그러니 한가롭게 놀며 자유롭게 살아 자신의 뜻을 스스로 즐길 뿐이다”라고 말했다.(<고문진보후집(古文眞寶後集)> 권1, 낙지론(樂志論).

그런데 삼공불환이란 말은 송나라 시인 대복고(戴復古)가 후한의 은사(隱士) 엄자릉(嚴子陵)의 고사를 가지고 쓴 시에 나온다. 그가 읊은 시 ‘조대(釣臺; 낚시터)’에 “어떤 일에도 욕심없이 오직 하나의 낚시대뿐, 삼공의 자리도 이 강산과 바꿀 수 없고 말고. 평소 광무제를 잘못 알고 지낸 탓에, 세상 가득 허명을 야기했을 뿐이랴”라는 내용이다. (<석병시집(石屏詩集)> 권6). 평소 광무제가 자릉을 신하로 삼으려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광무제가 집안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릉은 조강지처도 버리는 제왕이 가난한 친구야 생각할 리 없다는 걸 알고서 동강의 조대에서 낚시질만 했다는 얘기가.

삼공불환도는 삼정승(영의정·좌의정·우의정)이라는 최고로 높은 벼슬과도 바꿀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부귀와 명예를 마다하고 자연인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공인이 과연 지금 얼마나 있을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인 자화상은 어떨까 가만히 생각해 본다.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조감도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문화의 배움터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Busan Arts and Culture Center for Students

부산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문화의 배움터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이 오는 9월 1일 새롭게 문을 연다. 북구 구포근린공원 언덕 위에 자리한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989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과 객석 160석의 소극장, 248㎡ 규모의 갤러리 예문이 들어서 있으며, 이 밖에 국악실, 기악실, 실용음악실, 도자공예실, 애니·영상실, 회화실 등 6개의 체험학습실과 체육관, 헬스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갈매기가 날개를 펼친 듯한 건물 외관은 독특한 형상으로 멀리서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행복한 예술문화인 육성을 위한 창의적인 체험활동 지원’이라는 슬로건처럼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은 청소년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최신시설의 공연장과 전시실을 구비하면서 단순한 예술문화의 체험학습장이 아닌, 문화공간이 부족한 서부산

권 시민들을 위한 예술문화 향유 공간으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은 9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지난 8월부터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다. 지난 8월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학생예술아카데미'에서는 초중고생 신청자 75명을 대상으로 국악, 기악, 실용음악, 음악감상 등 음악장르에서부터 회화, 애니메이션, 도자공예, 농구, 방송댄스 등 미술, 체육분야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교실이 펼쳐졌다. 방학이 끝나는 9월부터는 매주 일요일 운영될 예정인데 홈페이지에서 참가자들을 수시 접수받는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재능 및 특기를 계발하기 위한 '개인자율체험학습'은 매주 토요일 오전 운영된다. 난타(모듬북), 가야금, 해금, 우쿨렐레, 통기타 등 악기강좌에서부터 판소리·민요, 보컬·밴드, 회화, 그래피티, 도자기 빚기, 샌드애니메이션, VR 영상제작, 농구, 방송댄스, 요가 등 총 31개 강좌가 월별로 펼쳐진다. 강좌가 열리기 5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강좌 날짜가 다를 경우 여러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주말을 이용해 온가족이 함께 예체능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가족예술아카데미'는 매주 토요일 오전 열린다. 개설강좌는 난타와 도자공예, 배드민턴. 학생과 부모, 형제자매 등 2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역시 강좌가 열리기 5일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예술아카데미'는 올해 실용음악반과 실용도자기반이 개설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월 1기생 54명을 배출한데 이어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간 월별로 4차례 강좌가 펼쳐진다. 특히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교 동아리들에게 체험활동실을 개방할 예정이다.

문화공간이 부족한 서부산권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우선 9월 10일 개관공연을 시작으로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11월 13일), 뮤지컬 '오디션' (11월 28일~30일), 김덕수 사물놀이패(12월 6일) 등 장르별 다양한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9월 10일 개관 기념 공연에서는 배영초등학교 풍물부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와 부산교사합창단, 양정고등학교 밴드, 엄궁중학교 나온누리 줄넘기팀, 신금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테너 안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해 첫 발을 내딛는 부산광역시학생문화예술회관의 출발을 축하한다. 또, 개관일인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갤러리 예문에서는 개관기념 기획전으로 퇴직교직원 중 중진, 원로작가들을 초대, '부산교육을 빛낸 중진, 원로작가 초대전'을 갖는다.

이밖에 9월 24일부터 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에는 다채로운 무대의 상설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문의/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www.bacs.go.kr)



대극장



회화실체험학습



실용음악실



화요모임

책 향기 가득한 책방골목으로 오세요 독서모임 **책방골목**

골목길 구석구석 책 향기로 가득한 보수동 책방골목은 이제는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적 명소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즐겨 찾는 책방골목, 독서 매니아라면 알아야 할 또다른 '책방골목'이 여기 부산에 또 한 곳 있다. 책을 통해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는 독서모임 '책방골목'이 바로 그 곳.

책 블로거로 활동하던 박정일 씨가 지난 2008년 12월 결성한 독서모임 '책방골목'은 초창기 '테마가 있는 맛있는 책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추리문학과 추리소설, 백년어사원과 인문학고전, 보수동 책방골목과 헌책찾기 등 부산지역의 문화를 중심으로 테마가 있는 독서모임을 가져오다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2월 온라인카페 '책방골목 (cafe.naver.com/bookple)'를 개설하고 책 향기 가득한 책방골목을 누비고 있다. 현재 독서모임 '책방골목'의 회원 수는 500여명. 대부분의 회원들이 20~30대 직장인들이다. 독서모임이라는 동호회 성격상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모임 보다는 깊이있는 주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 중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새벽모임'은 명칭 그대로 아침 독서모임이다. 바쁜 저녁시간에

참여할 수 없는 직장인들의 호응이 좋아 매월 두차례 모임이 열린다. 지난 5월에 결성된, 그 이름도 특이한 '라라라 모임'은 책과 오페라를 결합시킨 색다른 독서모임. 대부분의 오페라가 문학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만큼 오페라 원전 읽기와 오페라 감상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다. 지금은 중앙동에 위치한 오페라감상실 '서푼짜리 오페라'를 모임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소설로 세월을 건너는 사람들의 모임'을 줄인 '소세사모임'은 지정된 고전도서를 읽고 감상평을 나누는 모임이다. 가장 최근인 7월에 결성되었으며 매월 셋째주 토요일 모임을 갖고 있다.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도서이나 의외로 가장 읽기 힘들다는 고전소설을 읽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책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있다. 그 이름처럼 열정이 넘치는 '화요모임'은 책 뿐만 아니라 시기에 걸맞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회원들과 소통한다. 여느 소모임보다도 회원들끼리 쉽게 친해질 수 있어서 '화요모임'은 특히 신규회원들의 참석율이 높다. 이밖에도 '책방골목'에는 SF&만화모임, 시와 에세이를 주제로 하는 금요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들이 회원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열리고 있다. 모임이 열리는 요일도 소모임별로 달라 열정만 있다면 관심있는 소모임에 중복해서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책방골목'에서는 지난해 4월 책나눔장터, 일일카페에서 모은 수익금으로 책을 필요로 하는 에콰도르의 어린이들에게 도서를 기증하기도 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책 나눔사업은 계속해서 펼쳐 나갈 계획이다. 독서모임답게 부산지역 서점이나 인문학카페에서 열리는 '저자와의 만남' 행사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회원들은 가끔은 번개를 통해 영화나 공연관람 등 문화생활도 함께 즐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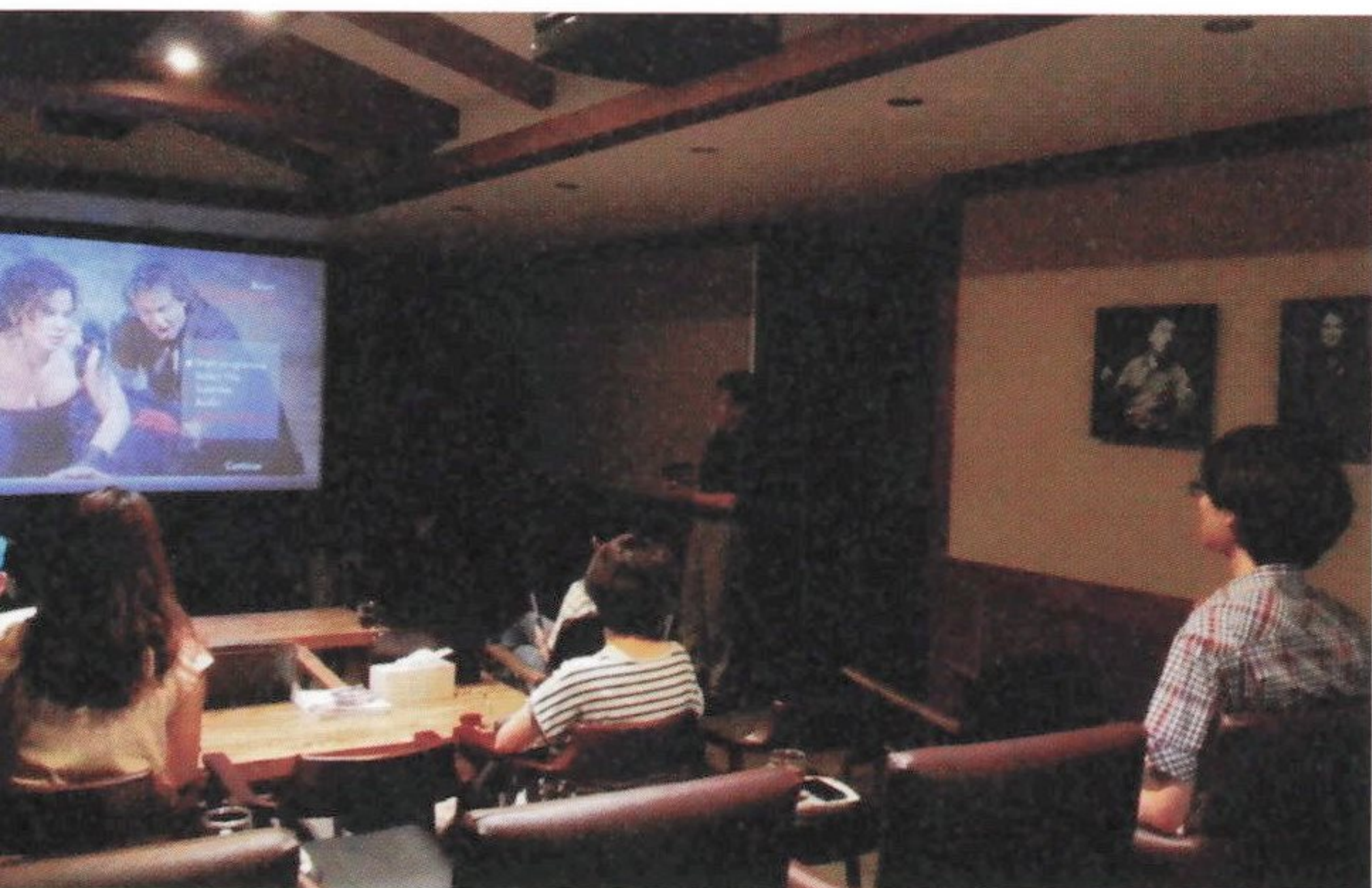
'책방골목'에서는 웬만한 '책벌레'가 아니고서는 '책벌레'라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 하루 1권 책 읽기를 실천하는 회원들도 부지기수인데다 책 블로그를 운영하는 회원들이 유달리 많다.

지난해 4월 가입한 현정아 씨는 한달에 적어도 두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 책을 읽고 나서는 독서노트를 꼼꼼히 작성한다는 그는 '화요모임'을 빼고는 모든 소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열성회원이다.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다 책으로 이어지는 열린세상을 만났다는 그는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이다'는 생각으로 책과 사람을 통해 인생의 롤모델을 찾을 수 있어 '책방골목' 활동이 행복하다.

"책을 통해 세대를 뛰어 넘어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 좋다"는 최경화 씨. 지난 2011년 4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입한 그는 현재 소모임인 '라라라모임'을 이끌고 있는 운영자이다. '책방골목'에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의 관심사가 달라 친구들간에 소통하기 힘들었다는 그는 책방골목 회원들을 만나고 나서는 오고가는 대화가 언제나 즐겁기만 하다.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책 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게 책방골목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다"는 그는 독서모임이라 하면 으레 겁부터 집어먹는 사람들에게 '책방골목'을 꼭 소개해주고 싶다.

■ 문의/독서모임 '책방골목'
(cafe.naver.com/bookple)



오페라 감상실에서 모임을 갖는 '라라라모임'



2011년 6월 열렸던 독서모임 '책방골목' 정기모임

여름날의 추억, 합창으로 느끼는 Summer Fantasy

부산시립합창단 써머판타지를 보고

■ 김윤선_음악평론가

연일 신기록을 만들어가는 무더위의 절정, 한여름의 열기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즐거운 음악회가 열렸다. 지난 8월 8일 저녁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2013 써머 판타지'가 바로 그것이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지난 5월 중장년층을 위한 '가요 합창음악회'와 6월엔 '베르디 레퀴엠'으로 정통클래식과 대중음악을 함께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하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써머판타지'는 기존의 정기연주회에서는 보기 드문 색다른 매력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음악회였다. 연출을 담당한 박흥영(전 MBC국장, 프로듀서)은 여름의 환상적인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무대연출과 한층 화려해진 콘서트 무대의 생동감을 선보였다.

전체 레퍼토리는 4개의 테마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Soul(영혼)로 아카펠라가 있는 종교적분위기의 '주여 아침입니다' '흑인영가 메들리' '내영혼의 반석' 등으로 엄숙하고 고귀한 예배를 연상케 하는 무대를 선보였다. 두 번째 무대는 Love(사랑)를 주제로 유명 뮤지컬 곡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사랑이란 테마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닥터지바고 '라라의 테마'를 첫 곡으로 하였으며, 뮤지컬 '남태평양' 중 '발리하이'와 '어느 황홀한 저녁',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페라의 유령' '캣츠' 등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히트작 속 멜로디들을 부산시립합창단의 개성있는 연주와 독특한 곡 해석을 통해 힘찬 에너지를 뿜으며 사랑의 이야기를 합창으로 전해 관객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세 번째 무대는 Body(육체)로, 몸으로 느끼고 흥겨움을 합창에 가미한 무대로서 Dance(춤)과 합창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하는 무대였다. 여러 모습의 춤을 담은 음악들을 선보였는데, 아바(ABBA)의 노래를 뮤지컬로 만든 맘미아 중 '댄싱퀸'에서는 관객

중 다수를 차지하였던 중장년층들은 박수와 부라보를 연호하면서 무대와 객석이 하나되는 장관을 연출하였다. 춤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트위스트와 탱고인데 대중가요 중 설운도의 '상하이 트위스트'와 영화 속에 삽입되어 유명세를 더욱 타게 된 '여인의 향기' 그리고 춤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중년 샐러리맨의 이야기를 다룬 'Shall we dance' 중 'Sway' 등 춤을 바탕으로 한 합창곡의 연주로 객석의 분위기는 써머판타지에 빠져들기에 충분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무대인 Joy(기쁨)의 무대는 화려한 팝과 재즈가 어우러진 피날레로 구성되었다. '포기와 베스' 중 'Summer Time', 'Smooth Sailing' '보헤미안 랩소디' '비지스 메들리' 등 팝 스타일의 자유롭고 편안한 편곡 연주로 즐겁고 화려한 무대로 이어졌다. 특히 함께 한 기타리스트 홍광현, 김정태, 드러머 김진훈의 밴드연주가 분위기를 한층 밝고 경쾌하게 만들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더욱 열광하게 하였다. 준비된 연주가 마무리되면서 객석은 뜨거운 환호와 앵콜이 거듭되었고, 이에 '러브스토리'의 테마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등 앵콜곡이 이어지면서 객석에서는 떠나 같듯 한 박수로 보답하였다.

이번 '써머판타지'에서 아쉬움을 꼽는다면 각 파트별 음량의 발란스와 가사전달에 있어서 부족한 듯 느껴졌다. 그러나 4가지 테마 속의 연관성을 가진 음악들과 영상, 조명 등의 무대효과로 기존의 음악회와는 차별화된 퍼포먼스가 돋보였으며, 무더위를 잊고 합창의 또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름날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게 하는 음악회였다.

종합편성채널 성장의 명과 암

■ 남인용_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 상승이 뚜렷하다. 위축되는 신문시장을 탈피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언론사의 몸부림 정도로 여겨졌던 종합편성채널들이 어느 정도의 시청률을 유지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유료방송 가입가구를 기준으로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7월 평균 종합편성채널 시청률을 조사한 결과, MBN이 1.37%, TV조선이 1.18%, JTBC가 1.15%, 채널A가 1.09%를 기록했다. 종합편성채널 4개가 모두 1%의 평균시청률을 돌파한 것이다.

종합편의 인기 프로그램으로는 채널 A의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웰컴 투 시월드' '쾌도난마', TV 조선의 '살림9단의 만물상' '시사토크 판' '신율의 시사열차', JTBC의 '고부 스캔들' '썰전' '대한민국교육위원회', MBN의 '고수의 비법 황금알' '속풀이쇼 동치미' '휴먼다큐 사노라면' 등이 있다.

인기 프로그램의 면면을 살펴보면, 종합편성채널의 성장은 신문 운영을 통해 축적된 보도 부문에서의 순위와 오락 및 교양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스의 경우, 공중파 방송에 비해 편성 비중이 높은 심층보도 분석프로그램들이 콘텐츠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오락 및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미디어에서 다루지 못했던 주제를 과감하게 다루는 방식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뉴스에서는 이전부터 운영하던 신문이나 케이블 방송의 보도 시스템을 활용하여 강점을 살리고, 오락 및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 상승을 근거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아직은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공중파 방송들이 종합편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도,

오락, 교양을 함께 다루는 종합편성채널을 4개나 허가한 것은 미디어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그 자체로 문제이다. 또한, 종합편이 공중파 방송의 책임은 면하면서 종합편성의 이점만을 누리는 암채 방송을 지속한다면 종합편의 존재 가치는 미미해진다.

단적인 예로, 종합편이 방송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정상 운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종합편은 법에 따라 의무편성 하도록 돼 있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새벽 시간대에 편성하고 있다. 이는 시청자들의 생산적인 비판을 적극 수용하기보다 법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요식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TV조선은 '열린비평, TV를 말하다'를 매주 금요일 새벽 6시에, JTBC의 '시청자의회'는 매주 토요일 새벽 6시 25분, 채널A의 '채널A 시청자마당'은 매주 금요일 5시 20분, MBN의 '열린TV 열린세상'은 매주 일요일 5시에 방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의 시청률은 0.1-0.2%, 어떤 때는 0.0%를 보이기도 한다. 이래서야 정상적인 방송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중파의 종합편성 방송이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로 역할을 하고, 케이블의 전문편성 방송은 유료의 특수 서비스로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출범 당시의 논란에서 보듯이, 종합편성채널을 케이블에 허가한 것은 특혜라는 점이 명확하다. 그렇지만, 기왕에 허가된 방송이라면, 단순히 공중파 방송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청자 확보에 유리한 채널을 차지한 종합편성채널이라면, 보도, 오락, 교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방송들에게 모범이 되는 방송이 되어야 한다.



■ 종합편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채널 A의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義와 禮의 고장

의성으로 떠나는 여름여행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지쳐가던 지난 8월 9일, 답답했던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역사와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이 펼쳐졌다. 8월의 테마여행지는 義와 禮의 고장 의성. 8월로 테마여행이 벌써 89회째를 맞았지만 의성 여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의성은 얼마전 TV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숨은 명소로 소개되면서 주목을 받은 곳.

테마여행을 떠나는 9일 이른 아침, 테마여행 당첨의 행운을 안은 정기회원 가족들이 하나둘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인다. 이른 시간임에도 벌써부터 내리쬐는 여름 햇살처럼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버스 안은 어느새 열기로 가득찬다. 이번 의성 여행에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김은옥, 서보기 씨가 동행했다.

세시간 여를 달려 처음 도착한 곳은 신라의 천년고찰 고운사. 입구에 도착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 유근하 씨가 반갑게 맞는다.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원년(서기 681년) 해동 화엄종의 시조인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원래는 고운사(高雲寺)라 칭했다. 그러나 신라 말, 불교와 유교, 도교에 모두 통달해 신선이 되었다는 대학자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이 가운루(駕雲樓)와 우화루(羽化樓)를 건립하면서 선생의 호 '고운(孤雲)'을 빌려와 고운사(孤雲寺)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고운사는 절 입구에서 일주문까지 이르는 1Km 남짓한 소나무길이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고운사의 첫 인상을 제대로 만끽하고 도시의 묵은 때를 벗기 위해 더운 날씨지만 걸어서 고운사로 올라갔다.

일주문과 사천왕문을 지나면 개울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누각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이 바로 최치원 선생이 건립했다는 가운루이다. 계곡바닥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나무기둥을 세워 누각을 떠받치고 있는데, 기둥의 길이가 조금씩 다른데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현재의 가운루는 1668년 중수했지만 여전히 형상 자체만으로도 특이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가운루와 인접해 개울을 비껴 앉은 누각은 우화루인데, 특히 우화루 서쪽 벽면에는 그 유명한 호랑이 벽화가 있다. 조선 말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호랑이 벽화는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호랑이의 시선 또한 바뀌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이 벽화를 보기위해 찾는 관람객만 한해 10만 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신기한 현상에 호랑이 벽화 앞에서 너도나도 사진찍기에 여념이 없다.

풍수지리사상의 시조로 받들어지는 도선국사가 조성한 보물 제246호 약사전 석불좌상과 경북문화재 자료 제26호 나한전 앞 삼층석탑까지 꼼꼼히 돌아본 후 두 번째 방문지인 '한국애플리즈'로 자리를 옮겼다.



■ 고운사 가운루



■ 고운사 우화루 호랑이 벽화



- 1. 산운생태공원
- 2. 극단 단원과 함께 한 즉석공연
- 3. 나만의 사과와인 만들기 체험



10월에는 영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 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테마여행게시판
 마감 9월 16일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 9월 당첨자

● 엽서신청자

김신숙(사하구 당리동)
 김재교(연제구 거제1동)
 권호경(부산진구 당감동)
 류종우(금정구 청룡동)
 안갑선(해운대구 중1동)
 진일남(부산진구 양정2동)
 최은정(서구 토성동)
 최정화(남구 감만동)
 최지현(양산시 북부동)
 황미정(서구 충무동)

● 신규가입자

김애진(서구 서대신동)
 박명하(동래구 수안동)
 박욱(수영구 망미동)
 방경선(해운대구 좌동)
 배화수(금정구 장전2동)
 변정옥(금정구 청룡동)
 안현숙(해운대구 제송2동)
 이해경(사하구 하단동)
 주지영(해운대구 중동)
 한해수(중구 광복동 3가)

'사과의 고장' 의성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한국애플리즈는 가을 사과따기와 나만의 사과와인 만들기 체험으로 유명하다. 우선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와인병 라벨에 들어갈 기념사진을 돌아가며 찍었다. 사진촬영이 끝난 후에는 와인병에 와인을 담아 코르크마개로 밀봉하는 체험 시간을 가졌다. 시기적으로 일러 사과따기 체험은 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개개인의 사진이 부착된 나만의 와인병을 가질 수 있어 회원가족들의 호응이 컸다. 체험시간이 길어지면서 예정된 점심시간을 살짝 넘기고서야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다. 이날의 점심메뉴는 의성이 자랑하는 사과와 마늘로 맛을 낸 마늘찜닭과 애플파이, 그리고 애플와인. 의성에서나 맛볼 수 있는 색다른 메뉴에 시장기가 더해지면서 맛있게 점심식사를 마칠 수 있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김은옥, 서보기 씨와 정기회원 가족들이 함께하는 연극무대가 펼쳐졌다. 단원들이 미리 준비해온 연극대본을 보고 회원들이 즉석에서 연기를 펼치기도 했는데, 서툰 연기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많은 박수가 쏟아졌다.

오후에는 의성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삼한시대의 고대국가 조문국의 유적을 전시해놓은 조문국박물관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올해 4월 문을 연 조문국박물관은 조문국의 역사 뿐 아니라 의성의 발자취를 보존, 전시하는 의성 문화유산의 보고로, 상설전시관 외에도 의성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민속놀이를 만나볼 수 있는 민속유물전시관, 어린이 전용박물관인 어린이 고고발굴체험관과 고분전시관 등 다양한 전시관을 통해 의성의 역사와 마주할 수 있다.

의성의 마지막 방문지는 산운마을의 폐교를 활용해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탄생시킨 산운생태공원. 얼마전 의성의 명소로 TV에 소개되면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생태관과 더불어 대형 공룡모형과 시원한 분수가 뿜어져나오는 야외공원은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인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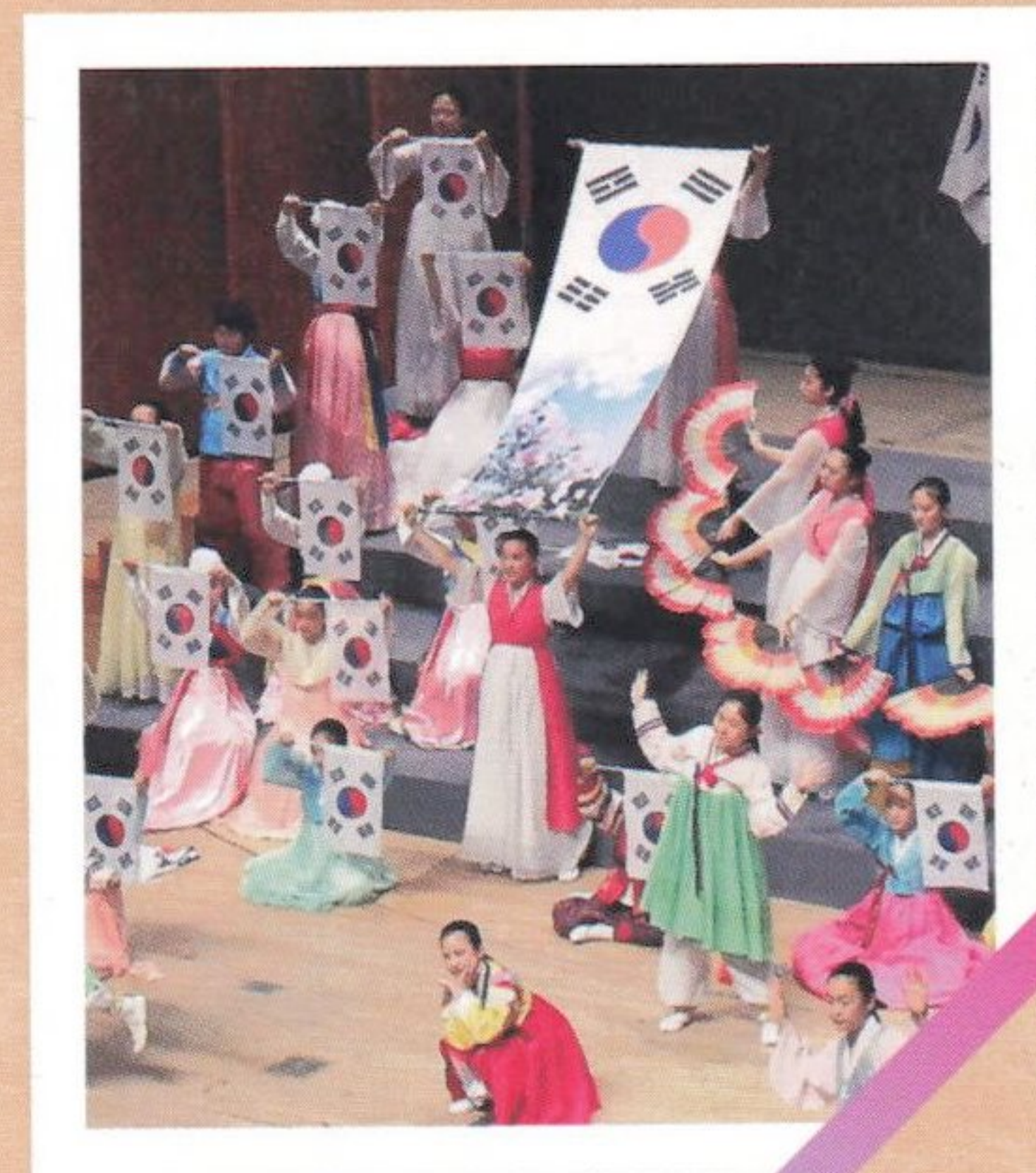
36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의성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즐거웠던 8월 테마여행. 강렬했던 여름 햇살만큼이나 강렬한 여름여행으로 정기회원 가족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Culture Life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솜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포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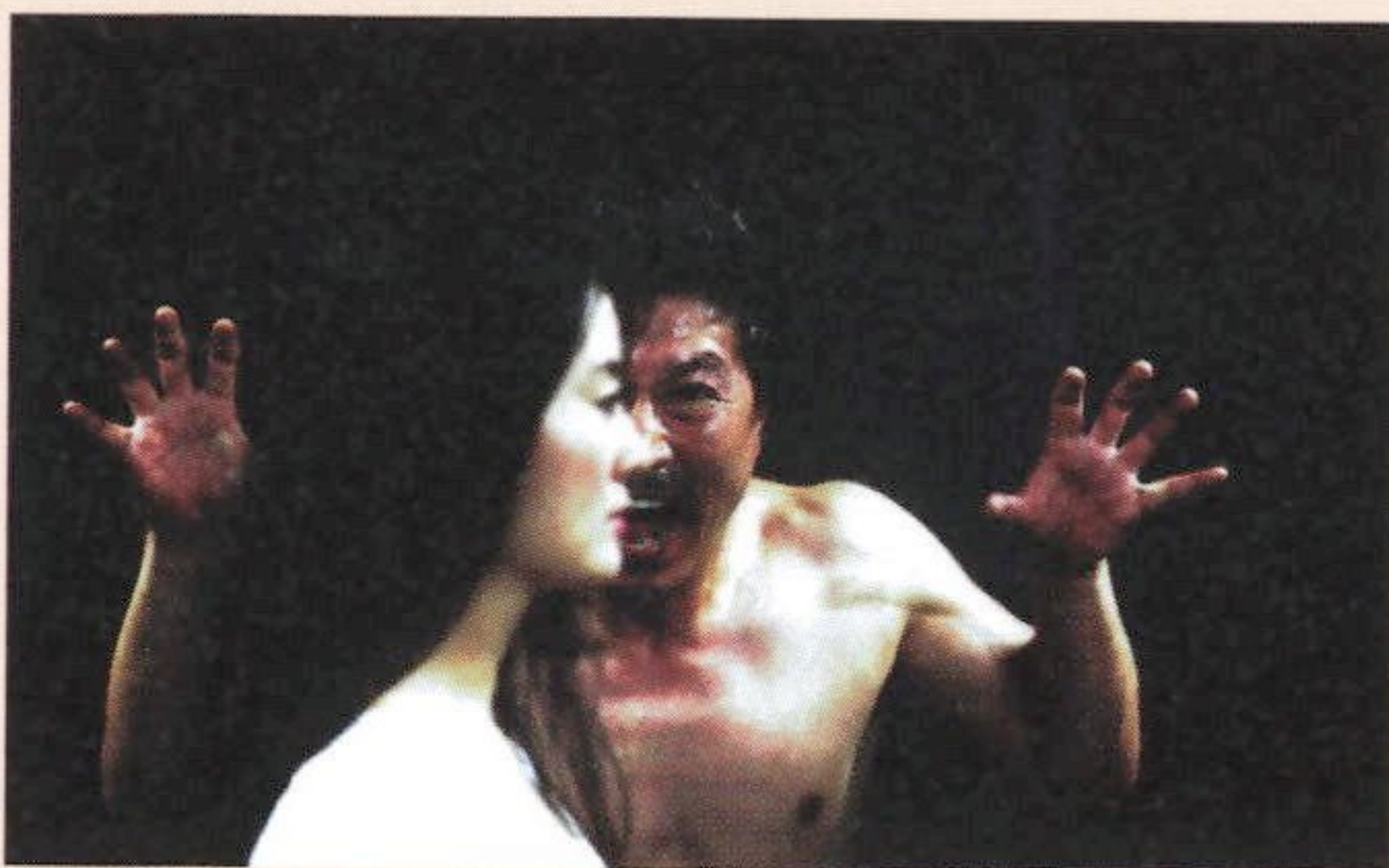
- 36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 43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 54 New Music
- 55 New Book
- 56 Special Movie



극단 틈마루 '우리 집엔 리어왕이 산다'

-기억, 환상 그리고 실체

8월 30일-9월 4일 목-금요일 오후 7:30,
토,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극단 틈마루(070-4205-9958)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인 '나'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현상을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이라는 큰 틀로 새롭게 담아낸 극단 틈마루의 '우리 집엔 리어왕이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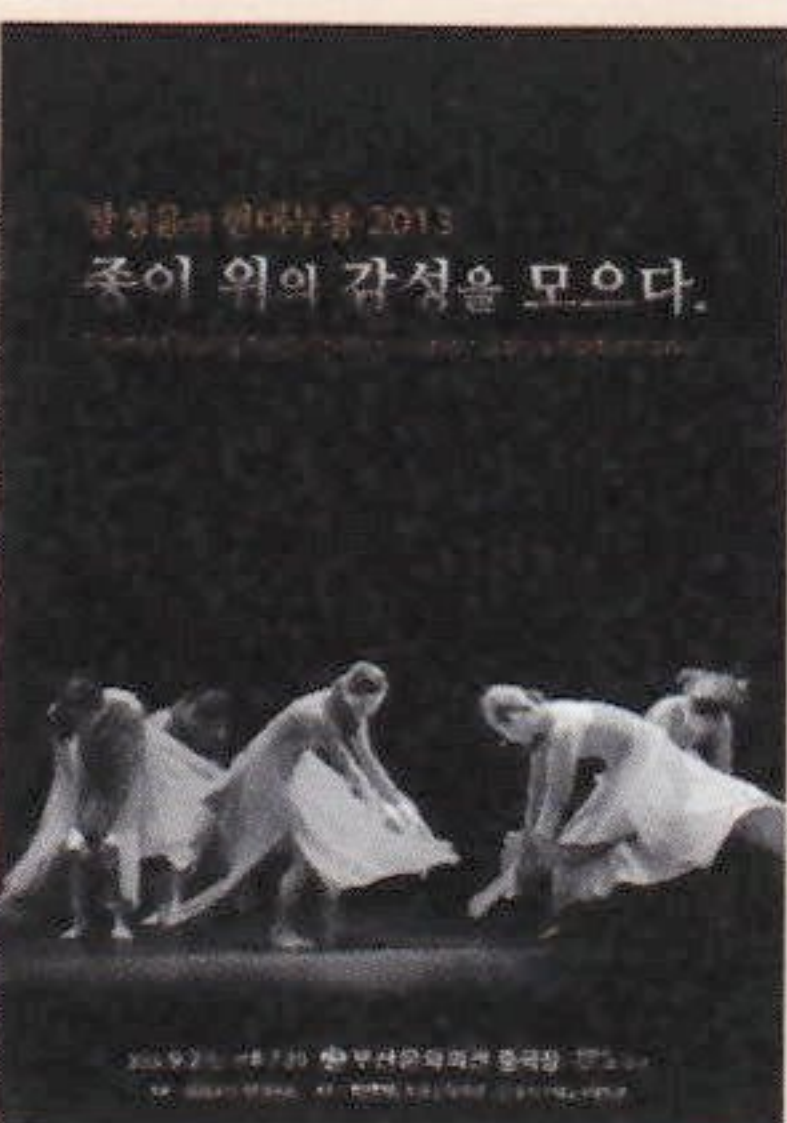
'우리 집엔 리어왕이 산다'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지만 합리적 해답은 제시하지 않고 답은 관객인 '나'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 대본, 연출/조금희 · 드라마트루기/변지연
- 조연출/양지웅 · 조명/조인곤
- 출연/리어왕 권철, 코델리아 강민지, 광인 김학준

장정운의 현대무용 2013

- 종이 위의 감성을 모으다

9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동아대학교(200-7819, 200-7822)



부산국제무용제 운영위원, 로고현대무용단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장정운 교수의 2013 현대무용.

1984년부터 부산에서 순수 현대무용 창작활동을 펼쳐온 장정운 교수는 부산무용제 대상, 전국무용제 우수상, 2010 부산예술대상, Dance Spirit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종이 위의 세계'는 종이의 질감, 그 위의 글씨와 의미를 이미지화하고 움직임의 서사로 구성하는 과정에 토대를 둔 작품으로 종이에서 발견된 감성과 지적 관심을 관객과 쉽게 경험하기 위한 움직임의 확장을 보여주면서 몸의 근원적 의미를 찾는 여정을 보여준다.

- 안무/장정운 · 서예/여남희
- 출연/장정운, 정보람, 강용기, 윤승호, 마예지, 최예진, 이수연, 신지영

201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Music and Theater

9월 2일-7일 월-토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추진위원회 사무국 (070-7687-8290~2)

부산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 출발한 부산마루국제음악제 2013년 축제. '극예술과의 만남'을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는 7개국에서 150여명의 연주자들이 음악과 극을 결합한 색다른 무대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9월 2일(월) 오후 7:30 **대극장**
개막연주 '도이치 오페 베를린 캄머솔리стен'



독일 최고 수준의 도이치 오페 베를린 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들로 구성된 '도이치 오페 베를린 캄머 솔리стен'이 들려주는 2013 BMIMF의 개막무대. 폴란드 올스틴 '노보비에이스키' 주립교향악단의 최연소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표트르 보르크보스키(Piotr Borkowski)가 지휘하고 Orchestre de Paris의 수석으로 활동중인 플루티스트 뱅상 루카가 협연한다.

국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친 표트르 보르크보스키는 계명대학교,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수, 수원시립교향악단, 경기페스티벌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역임하고 현재 폴란드 고주프교향악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 ▶프로그램
- 차이코프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작품 48
- 드비엔느/플루트협주곡 제7번 마단조
- 모차르트/교향곡 제29번 가장조 K.201(K.186a)
- 지휘/표트르 보르크보스키
- 협연/플루티스트 뱅상 루카(파리시립음악원 교수)

▶9월 4일(수) 오후 7:30 **대극장**

한·중·일 전통음악의 진수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 연주회

한·중·일 악기인 고쟁, 적자, 고또, 대금, 피리의 소리와 혼을 담아 한국과 중국, 일본의 협연자들과 함께 아시아 음악의 우수상을 느껴본다.

- ▶프로그램
- 최성환/관현악 아리랑
- 박범훈/사쿠하찌(통소)와 고또를 위한 메나리
- 강봉천/가야금 협주곡 '절영의 전설'
- 이준호/소금협주곡 '길' 등
- 지휘/이정필(효원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 협연/주전(고쟁, 중국 광파민족악단 솔리스트), 후장청(적자, 중국광파민족악단 수석단원), 리사 카타오카(일본 고또연주자), 이종대(피리, 부산대학교 교수), 이용구(대금, 국립국악관현악단 악장)

▶9월 7일(토) 오후 7:30 **대극장**

폐막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지휘 랄프 고토니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 랄프 고토니(Ralf Gothoni)가 지휘하고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감독 강동석과 비올리스트 김상진이 협연하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잉글리쉬 체임버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랄프 고토니는 이번 첫 부산 무대에 부산 청중을 위해 하이든 피아노 협주곡을 직접 들려준다.

▶프로그램

하이든/피아노협주곡 라장조 Hob. XVIII : 11
브루흐/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2중 협주곡 작품 88
시벨리우스/교향곡 제1번 마단조 작품 39
· 지휘/랄프 고토니
· 협연/랄프 고토니(피아노), 강동석(바이올린, 음악감독), 김상진(비올라, 연세대학교 교수)



제17회 T.I.F 관악 정기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관악의 대향연
Word Music

9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티.아이.에프(070-7624-7740, 010-8503-0000)



때 묻지 않은 순수한 관악의 매력을 들려주기 위해 (사)T.I.F가 특별 기획한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관악의 대향연. 우리나라 트럼펫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안희찬이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다.

▶프로그램

거쉬윈/랩소디 인 블루
번스타인/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멜로디
비제/카르멘 등 수곡
· 지휘/손영진 · 트럼펫/안희찬
· 악장/김태훈 · 해설/박은승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오케스트라(DOMO)
제9회 정기연주회

9월 7일 토요일 오후 6: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김선흔(010-3572-70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재학생들로 결성된 동의한의과대학 오케스트라의 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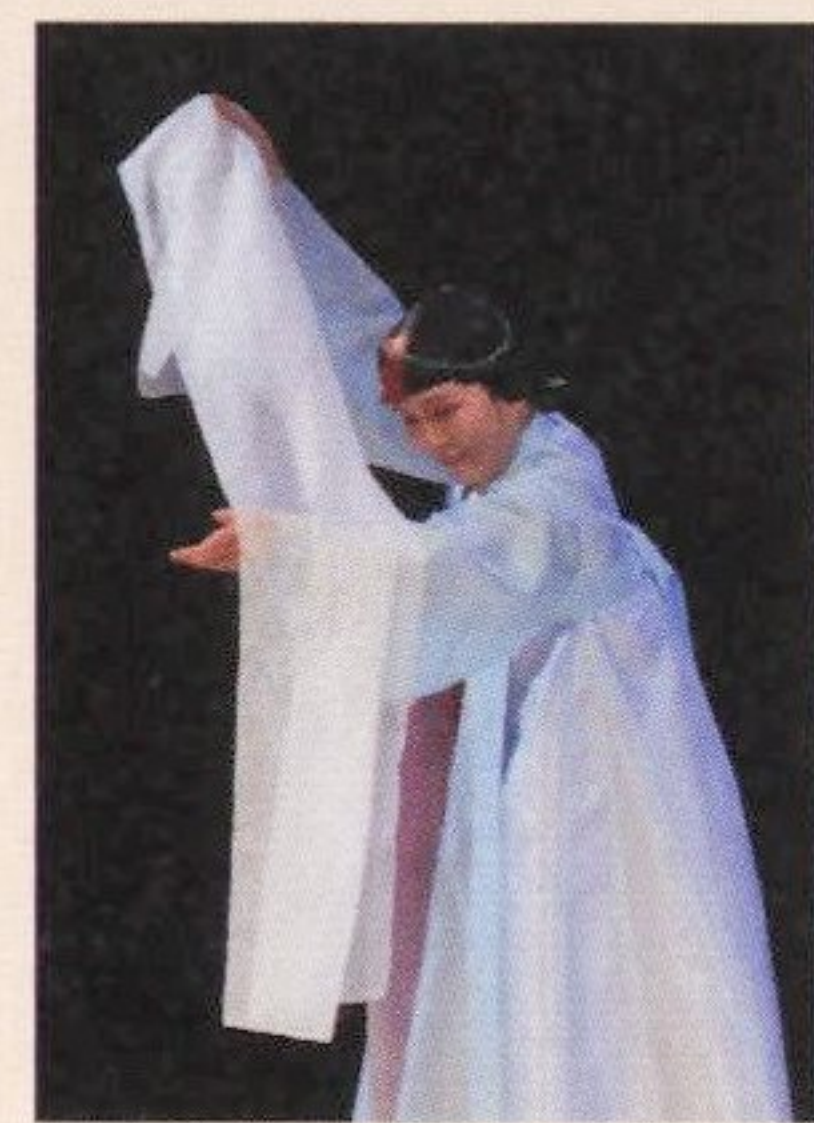
Ralph Vaughan Williams가 군악대를 위하여 작곡한 'English Folk Song Suite March' 를 비롯해 하이든 교향곡 제104번 라장조 '런던', 스페르디노프가 푸쉬킨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작곡한 'Old Romance'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 지휘/정홍기



김명자의 춤

9월 8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S석 2만원 · A석 1만원
문의 | 김명자무용단(010-8554-6120)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조교, 제97호 살풀이춤 전수조교로 있는 김명자의 춤무대로 부산에서 오랜만에 이매방류 민속전통춤의 원형을 그대로 선보인다.

▶프로그램

검무, 아쟁산조, 살풀이춤, 무당춤, 본조아리랑, 입춤, 승무, 삼고무
· 출연/김명자(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살풀이춤 전수조교), 박대성(부산시 무형문화재 박대성류 아쟁산조 예능보유자), 이춘희(중요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이윤혜, 김주연, 안주희, 황동하 외
· 특별출연/우봉 이매방(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명예보유자)



독일 캄머신포니 슈투트가르트 내한연주회

9월 8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
문의 | 코리아뮤지카(02-2272-6516)

1978년 독일 5개의 음악학교에서 재능있는 전공학생들을 선발, Junges Kammerensemble Baden-Württemberg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캄머신포니 슈투트가르트는 설립 이래 Christoph Prick, Laszlo Heltay, Helmuth Rilling 등 유명 지휘자들, Reinhold Friedrich, Tabea Zimmermann, Ulrike Anima Mathe 등의 솔리스트들과 함께 연주하며 오랜 전통을 쌓아왔다. 2011년 다니엘 레펠트가 오케스트라의 리더 겸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캄머신포니 슈투트가르트는 바로크 음악과 독일의 낭만음악을 전 세계의 젊고 재능있는 솔리스트들과 함께 연주하고 있다.



독으로 취임한 캄머신포니 슈투트가르트는 바로크 음악과 독일의 낭만음악을 전 세계의 젊고 재능있는 솔리스트들과 함께 연주하고 있다.

· 예술감독/다니엘 레펠트
· 협연/소프라노 최선희(부산시립합창단 단원)
플루티스트 김강린(신라대학교 음악학과 재학)



여섯 가락의 울림 제30회 정기연주회

9월 8일 일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여섯 가락의 울림(010-6471-2053)

간호학과 2~3학년, 의예과 2학년, 의학과 1~2학년이 활동하고 있는 인재대학교 의과대학 클래식기타 동호회 '여섯 가락의 울림' 연주회. 30주년을 맞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동아리 대선배인 의사 겸 기타리스트 곽승웅이 특별출연, 르네상스 류트와 테오르보로 연주를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69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9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김미정

부산지역 음악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주들과 함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협주곡의 밤으로 오디션을 통과한 7인의 유명주들이 김미정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다. 지휘자 김미정은 부산예고

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로 유학, 빈 국립음대 지휘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불가리아 FM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체코 비르투오지 오케스트라, ISA 오케스트라, 포르투갈 포르투 내셔널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해 왔다.

▶프로그램

- 슈트라우스/박쥐 서곡
- 비외탕/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중 제1악장
- 이투랄데/페케냐 차르다
- 랄로/첼로 협주곡 중 제3악장
- 비외탕/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 중 제4악장
- 엘가/첼로 협주곡 마단조 작품 85 중 제4악장 등
- 지휘/김미정
- 협연/심해수(바이올린, 부산예중 3학년), 김빛날(바이올린, 부산대 2학년), 정경진(첼로, 부산대 3학년), 윤주연(첼로, 부산대 4학년), 원훈식(색소폰, 경성대 4학년), 이도영(트럼본, 부산대 1학년), 현소양(피아노, 경성대 3학년)

● ● ●
결식 초·중생돕기 VIP초청

WGN ENSEMBLE 특별연주회

9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함)
문 의 | WGN ENSEMBLE(011-9535-4601)

결식 초중생을 돕기 위해 2007년 7월 이후 부산 CBS 등 언론과 (주)조광요단을 비롯한 뜻있는 기업들의 후원으로 사랑의 무대를 열어온 WGN ENSEMBLE의 특별 연주회.

이번 연주회는 그동안 지원해준 개인과 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무대로 쇼팽, 쇼스타코비치, 드보르작, 푸치니, 생상, 피아졸라 명곡을 들려준다.

- 연주/Pf. 고영주, Vn.1 금성빈, Vn.2 윤주연, 김채원, Va. 손주연, Vc. 이지수
- 해설/박주희



제3회 테너 양승엽 독창회 '애창곡의 밤'

9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양승엽(010-7767-4390)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이태리 L.PEROSI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귀국,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쳐온 테너 양승엽 독창회.

양승엽은 유학중 국제콩쿠르 U.GIORDANO, Citta di Angro, M.Batistini, Citta di

Nettuno에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 헨델/라르고
- 구노/아베마리아
- 노상현/도라산역
- 도니제티/사랑의 묘약 중 'Una furtiva lagrima'
- 뮤지컬메들리/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Music of night', 뮤지컬 레미제라블 중 'Bring him home' 등 수곡
- 찬조출연/비올라 서지유, 플루트 황미리

● ●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2 - Yesterday 여행스케치

9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7)



1989년 통기타와 풀벌레, 계곡의 물소리, 빗소리 등 자연의 효과음을 담은 1집 음반을 발표한 후 대학가와 젊은 층, 방송가에 신선한 메시지를 던지며 즐거움을 선사해 온 여행스케치의 부산 무대. 작사, 작곡, 편곡, 연주와 보컬을 맡은 조병석과 대표적 보컬 남준봉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성장해온 여행스케치는 지금까지 정규 9집, 비정규 및 기획앨범 5장을 포함해 총 14장의 앨범을 발표, 세대를 아우르는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시각적인 비주얼보다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미지 음악을 고수해온 여행스케치의 이번 무대는 386세대에게 향수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뮤지컬 '엘리자벳'

9월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2:00, 7: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3만원 · R석 11만원 · S석 9만원
A석 6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티켓마루(1599-7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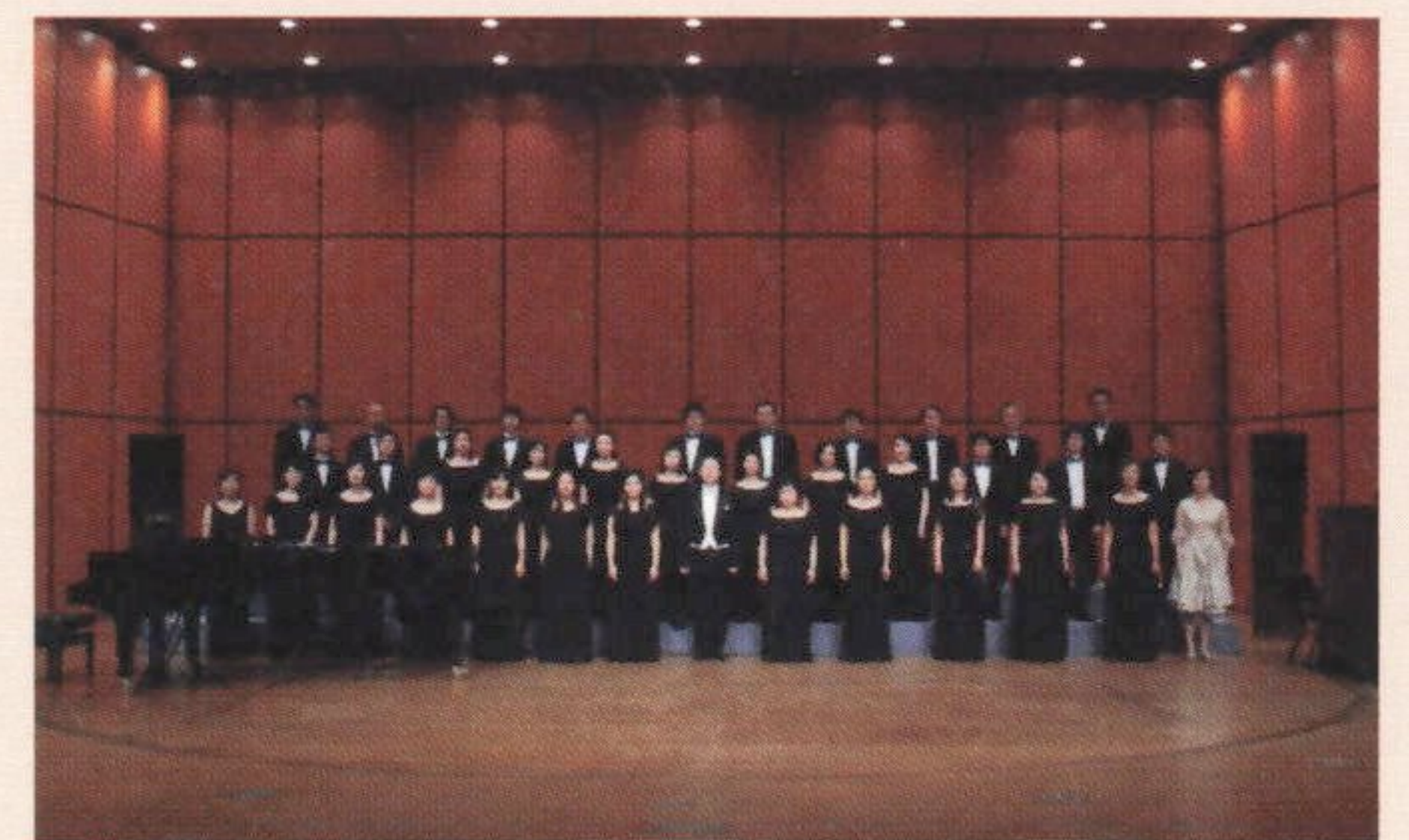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인 황후 엘리자벳의 일생을 그린 뮤지컬 '엘리자벳'은 드라마틱한 그녀의 일대기에 판타지적인 요소인 '죽음(Tod)'이라는 캐릭터를 추가하여, 황후를 그림자처럼 맴돌던 '죽음'과 '죽음'을 동경했던 황후의 사랑이야기에 뮤지컬 '모차르트!', '레베카' 등의 작곡가 실베스터 르베이의 웅장한 음악이 더해져 유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 대본, 가사/미하엘 쿤체
- 연출/로버트 요한슨
- 음악, 합창&오케스트라로 편곡/실베스터 르베이
- 출연/옥주현, 김소현, 박효신, 전동석, 이지훈, 박은태, 민영기, 윤영석, 이정화, 김이삭, 노지훈



뮤클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9월 14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뮤클 합창단(010-2307-6922)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 '레퀴엠', 포레의 '레퀴엠', 로시니의 '스타바트 마테르', 브루크너 '테데움' 등 정통 클래식 합창곡을 선보이며 음악 애호가들의 꾸준한 관심을 모아왔던 뮤클합창단의 제8회 정기연주회. 유엔 평화의 날을 기념, 외교통상부의 일부 후원 아래 구노의 '성 세실리아 장엄미사' 등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구노/장엄미사
피아졸라/리베르탱고
가영/너와 내가 편안하길
합창으로 듣는 관현악의 세계/터키 행진곡, 라데츠키 행진곡,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등 수곡
· 지휘/엄현섭
· 솔로/소프라노 김경희, 테너 조윤환, 바리톤 김진용
· 오르간/김원 · 피아노/이은혜
· 해설/김희성 · 특별출연/김가영

● ● ●
소프라노 윤선기 독창회

9월 15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윤선기(010-7513-5121)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소프라노 윤선기 독창회. 윤선기는 졸업 후 캄니츠(Chemnitz) 시립오페라극장 단원으로 발탁되어 '아이다'

'연애 정원의 장미' '박쥐' '라 트라비아타' 등의 작품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였고, 독일 국영 에이전시 ZAV 소속가수로 가곡, 오라토리오, 뮤지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다.

▶ 프로그램

슈만/레나우의 6편의 시와 레퀴엠
베버/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 '지난밤 숙모님 꿈결에'
김동진/저 구름 흘러가는 곳 등 수곡
· 피아노/박소미 · 플루트/한유주

● ● ●
제44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9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독일에서 유학한 연주자들로 결성된 독우회는 1994년 9월 23일 창단 연주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초



청음악회 등 부산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 프로그램

바흐/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BWV. 903
슈만/왈츠와 로맨스(6 Hands)
슈베르트/송어 작품 114 등 수곡
· 연주/박영신, 박윤정, 고은경, 원영아, 김문주, 신현희, 김지민, 정년경, 정예림, 금찬이, 이문숙

● ● ●
부산물라디클라리넷컴퍼니 제3회 정기연주회

9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이원기(010-8280-9229)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주자 이원기를 비롯해 부산 클라리넷 콰이어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물라디클라리넷컴퍼니의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위버/마스크
베버/콘체르티노 작품 26
제이콥/서주와 론도 등 수곡

● ● ●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제30회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 나눔 음악회
9월 23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UKO(010-7309-8069)

2006년 소아암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를 돕기 위해 부산, 경남 지역의 교향악단 연주자들로 결성된 민간 자선오케스트라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UKO)의 제30회 사랑나눔음악회.



지휘 이병욱

플루트 오신정

이번 무대는 차세대 지휘자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마에스트로 이병욱의 지휘,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연주와 무대 매너로 많은 관객을 확보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오신정의 협연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선율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레미제라블, 여인의 향기 중 '탱고', 캐리비안의 해적, 시카고, 신들러 리스트, 에비타
· 지휘/이병욱 · 협연/오신정

● ● ●
2013 땡브르발레연구회 정기공연

9월 23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땡브르발레연구회(011-859-5162)

부산지역의 발레 대중화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땡브르발레연구회의 창단 24주년 기념 무대. 땡브르발레연구회는 제14회 부산무용제에서 '여자, 섬을 꿈꾸다'로 대상을 차지한 바 있다.

▶ 프로그램

교실이데아(안무/이유하), 2013 품배(안무/이화성)
꿈, 세상을 만나다(안무/강세영)
Pas de six(재안무/박헌주)

● ●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5회 정기연주회

2013 발레 음악 시리즈 III
로맨틱 발레 음악

9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013년 다양한 발레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선사하는 로맨틱 발레 음악. 동양적인 색채와 매혹적인 분위기, 격렬하고 광적인 리



지휘 이동신 바이올린 임병원 비올라 최영식

듬을 잘 나타내는 보로딘의 작품과 자동인형으로 인한 해프닝을 소재로 한 들리브의 로맨틱한 발레 음악을 통해 로맨틱 발레 음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만년의 자신의 음악성을 고스란히 표현하고자 노력한 브루흐의 클라리넷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을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 비올리스트 최영식이 화려하면서도 안정적인 선율을 선사한다.

▶ 프로그램

보로딘/ '이고르 공' 중 '폴로베츠 사람들의 춤'
브루흐/클라리넷(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2중협주곡
들리브/발레 '코펠리아' 중 '4개의 작은 조각'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임병원(바이올린, 경성대학교 교수)
최영식(비올라, 경북도립교향악단 수석)



제6회 신라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9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신라윈드 오케스트라(010-2614-2250)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이뤄진 신라윈드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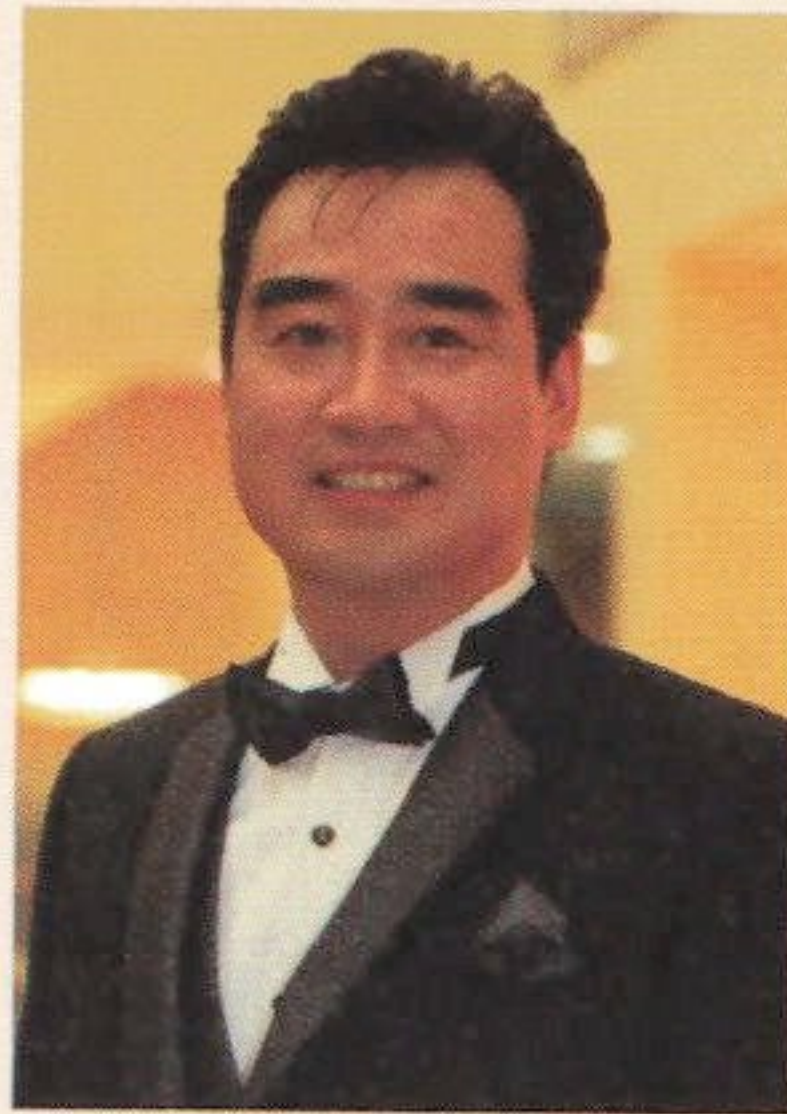
▶ 프로그램

Jan de Haan/Overture To New Age
Jay Chattaway/스페인의 열정 등 수곡
· 지휘/윤두현



테너 오동주의 13번째 스토리콘서트
'사랑과 그리움'

9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오동주(010-4556-5058)



부산시립합창단 기획,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목련합창단 지휘자, 이태리음악연구회, 남성악양상블 4+1회원, 금정수요음악회 해설자, 동신 성결교회 할렐루야 성가대 지휘자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오동

주의 13번째 스토리콘서트 '사랑과 그리움'.

▶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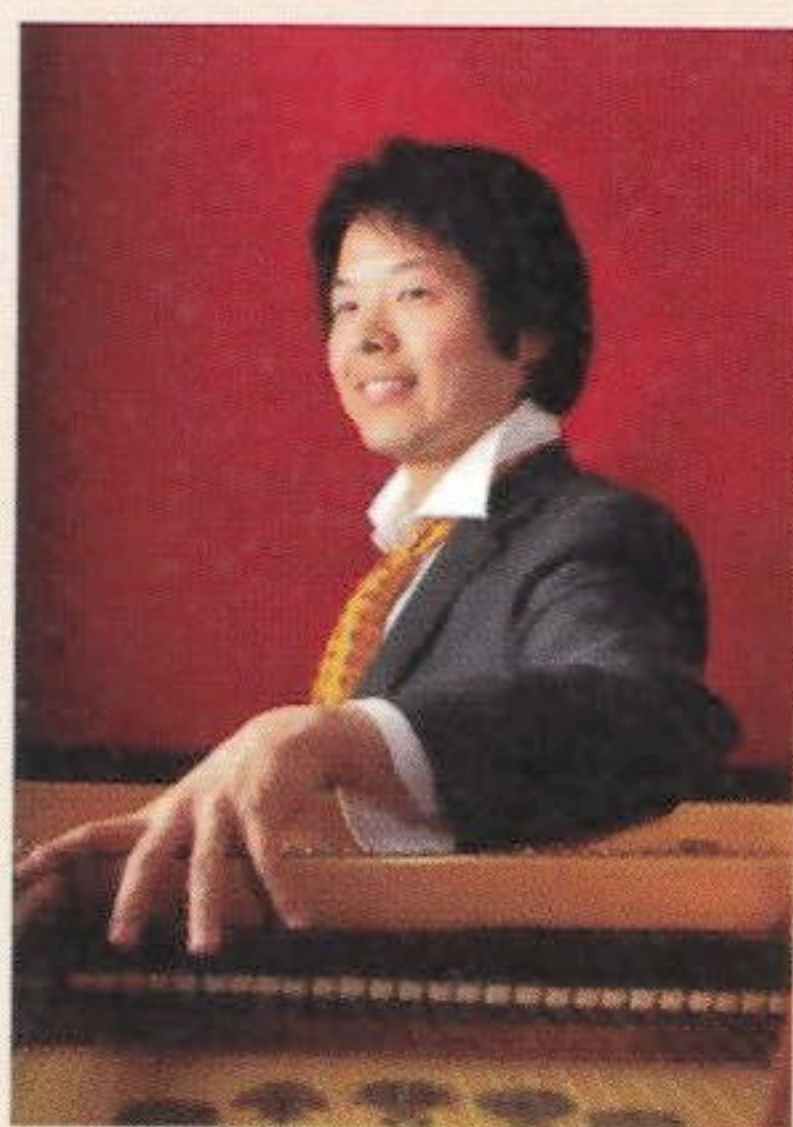
그리움에 대한 한국가곡/나의 별에 이르는 길(김애경 곡), 황혼의 노래(김노현곡), 산애(신동수곡)
사랑에 대한 이탈리아 칸초네/아침의 노래, 너는 왜 울지 않고, 제비
그리움과 사랑의 노래/추억(최영섭 곡), 알 수 없는 사랑(이안삼 곡) 등 수곡

- 반주/최혜련
- 특별출연/소프라노 최선희, 피아노 이승윤



김정권 피아노 독주회

9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부산아트매지니먼트(740-5833)



'모든 곡을 마치 갓 창조된 것처럼 온전히 새롭고 현대적으로 들리게 만드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생각 깊은 음악가' 라는 평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김정권 독주회.

미국 그레이스 웰시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심사위원단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정권은 한국 음악가들의 실내악 그룹인 Uptown Caderades 단원으로 호암아트홀과 리움 미술관에서 신년음악회를, 세종 솔로리스트 멤버들과 중남미 순회 공연을 가진 바 있다.

▶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내림 나장조 작품 K.333
김정권(b. 1976)/소나타 올림 사단조
슈베르트/소나타 가장조 D.959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3회 정기연주회
프랑스 음악의 밤 - French

9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중국 내 최초의 외국인 지휘자로 상하이 심포니 수석지휘자 및 예술고문으로 활동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는 마르코 파리스토가 지휘하고 시용 국제콩쿠르 3위, 이프라 니만 바이올린 콩쿠르 2위, 예후디 메뉴인 국제바이올린콩쿠르 3위, 사라사테 국제콩쿠르 1위 및 청중상 수상, 레오폴트 모차르트 국제콩쿠르 1위 및 청중상, 챔버뮤직상 수상,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3위 입상하고 유럽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가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 프로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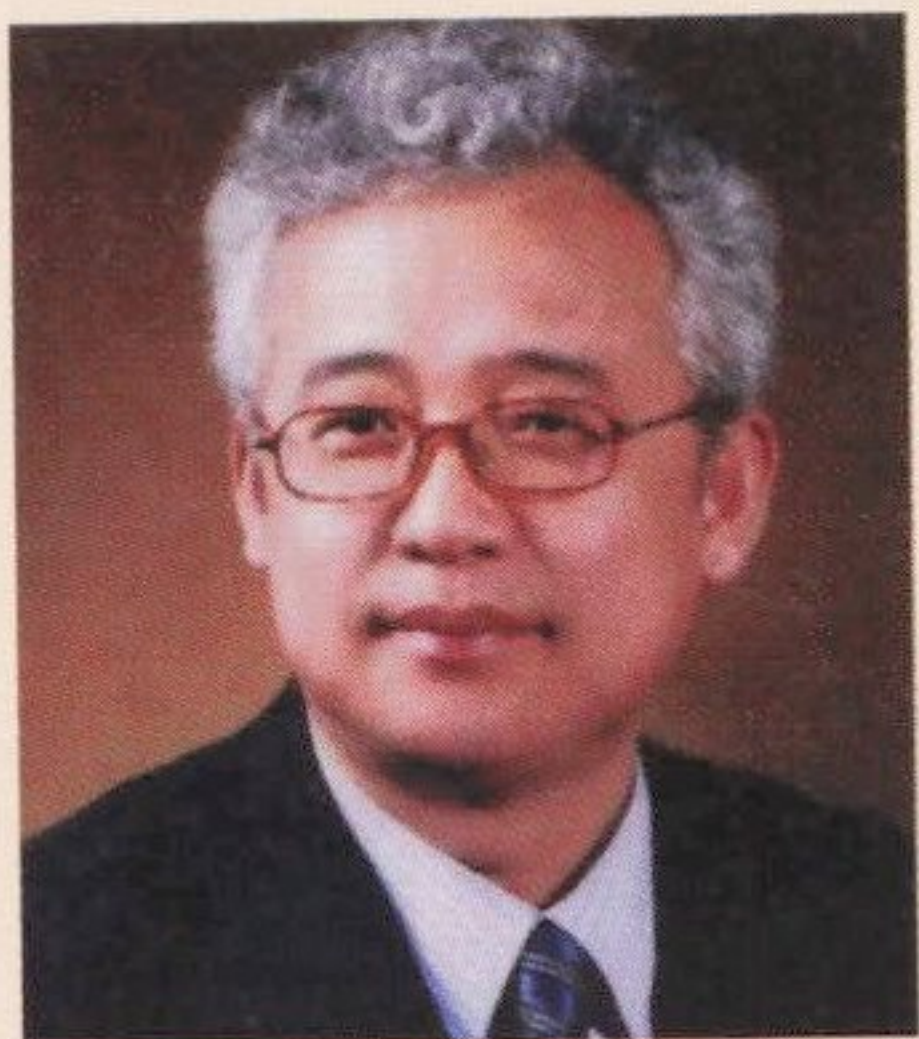
라벨/ '다프니스와 클로에' 모음곡 제2번
생상스/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라벨/치간느, 관현악을 위한 무용시 '라 발스'
드뷔시/관현악을 위한 3개의 교향적 스케치 '바다'
· 지휘/마르코 파리스토(온타리오 필하모닉 음악감독)
· 바이올린/이지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열네 살 舞子

9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연주자들의 음악적 감성과 개성, 악기 하나하나의 고유한 음색 특징을 느낄 수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한 가을 선물 '열네 살 舞子'.



예술감독 김철호

부제 '열네 살 舞子'는 종군위안부의 아픈 기억과 안타까운 생활, 비극적 참담함을 전통적 선율과 역동적 퍼포먼스로 풀어낸 강봉천의 작품으로 2007년 정신대 해원상생 대동 곳에서 초연된 바 있다.

1991년 1집 음반 '그대를 위한 시'를 발표, 노래하는 스님으로 화제를 모은 심진스님과 노래와 연기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홍순연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 프로그램

한태수/Fly the sky

황호준/노을이 머무는 언덕

심진스님과 함께하는 국악실내악/사는일 눈물나면, 아버지의 노래, 소녀아리랑

강봉천/일인시극 '열네 살 舞子' 등 수곡

· 협연/심진스님(노래), 홍순연(연행)

· 객원출연/유경훈(베이스 기타)

부산시립극단 제48회 정기공연

연행이 곡마단 - Story Concert '봄날은 간다'

9월 26일-29일 목-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청소년 전화예매시 50% 할인, 시아가림 좌석인 A, E구역 예매시 5천원)

문의 | 부산시립극단(607-3151)



예술감독 문석봉

2013년 '게사니' '귀족 수업' 이후 새로운 레퍼토리에 도전하는 부산시립극단의 제48회 정기공연.

故 김상열(1941~1998) 작가의 대표작 '연행이 곡마단'을 스토리 콘서트

형식으로 재구성한 이번 무대는 철저하게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라 흘러가지만, 이를 쳐다보는 시선은 제각각이다. 계백장군은 자기가 전사할 것을 알고 전투에 영광스럽게 참전하고, 김춘추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지만 이길 것을 알고 김유신에게 전쟁을 명령한다. 의자

왕은 백제의 패망을 알고 3천 궁녀에게 낙화암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시킨다.

액자무대 위에 마당극 형식을 도입, 배우들이 무대 한쪽에 남아 관객이 되는 독특한 형식의 극중극으로 재미를 더해준다.

· 작/김상열

· 연출/문석봉(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오세준(동서대학교 교수)

2013 제9회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

9월 27일-9월 29일 금-일요일 오전 11:00

대극장, 중극장, 대전시실, 중전시실, 대극장 앞마당 입장료 | 균일 1만원(통합입장권)

문의 | 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



현대인의 생활 속에 점점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차 문화를 올바르게 전파하고 여유로운 삶을 재발견하기 위해 개최되는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 2013년 축제.

올해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차단체인 숙우회에서 차문화

시연 작품 발표를 비롯해 선고茶人 금당최규용, 다촌정상구, 목춘구해경, 원광스님, 범하스님 등의 현대, 정점교, 이정환, 김시영, 김영식, 김경수, 강영준, 이수백, 나카자토 타로우에몬, 카와카미 키요미, 카자하라 야스모토, 사쿠레이 등 한·일 작가들의 한·일 도자전, 하카타전통공예관 전통전승공예 전시체험교류전, '한국 차문화사' '동다송주해' '다부' 등의 저자 유건집의 '茶詩에 담긴 한국의 차정신' 주제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40주년 기념 및 제139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하는 즐거운 우리선율의 합창

9월 28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수석지휘자 전상철

창단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획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선사하는 즐거운 우리선율의 합창.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반주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독일 할레국제어

린이합창페스티벌에서 호평 받은 최석태의 페스티벌 미사를 비롯해 정애련의 놀이동요, 우리민요 등을 합창으로 재구성, 흥겨운 우리 음악반주로 연주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한국음악 음반 제작을 위한 공연으로 베이스 박상진, 이철성이 지휘하는 센텀합창단이 40주년 기념무대를 함께 열어준다.

▶ 프로그램

우리가락의 성가곡/최석태의 페스티벌 미사

조두남/뱃노래

러시아민요/백학

정애련 우리 놀이 동요/동개 동개 동개 등, 여우야 여우야, 웃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수곡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작곡/정애련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재(합창)

· 특별출연/베이스 박상진, 센텀합창단(지휘/이철성), 피아노 이승윤

2013 막심 므라비차 내한공연 in 부산

9월 29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VIP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A석 6만원

문의 | (주)예술기획 성우(1599-1980)



격정적인 연주와 폭발적인 속주로 사랑 받고 있는 막심 므라비차의 전국투어 콘서트.

수려한 외모와 격정적인 속주로 내한 때마다 매진을 기록했던 일렉트릭 피아니스트 막심 므라비차는 1983년 9

세의 나이로 피아노에 입문하여 1993년 자그레브 국제음악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1999년 연주자들의 선망

의 무대인 니콜라이 루빈슈타인 피아노 콩쿠르, 2001년 프랑스 파리 폰트와즈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 프로그램

Nostradamus(Tonci-Huljic), The Godfather (Nina Rota)
Pirates Of The Caribbean(Badelt/Zimmer/Sanelli) 등

제17회 한국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 흥난파, 현제명, 김성태 가곡의 밤 -

10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우리아트(010-5555-3825)

우리의 정서가 담긴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연구, 보급하고 있는 한국가곡연구회의 제17회 정기연주회로 우리 가곡사에 큰 획을 그은 흥난파와 현제명, 김성태의 가곡을 엄선, 가을의 서정을 노래한다.

▶ 프로그램

김성태/산유화, 이별의노래, 꿈, 동심초
현제명/나물캐는 처녀, 희망의 나라로, 산들바람, 오라, 그 집 앞, 추억
흥난파/봉숭아, 그리움, 성불사의 밤, 옛 동산에 올라, 고향생각, 금강에 살으리랏다

에르노 페헤 피아노 독주회

10월 2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부산아트매지니먼트(740-5833)



'신선하고 강렬한 리듬감을 구성하면서 재치가 넘치는 색채감 있는 훌륭한 연주'로 정평이 나 있는 피아니스트 에르노 페헤 연주회.

빠어난 테크닉과 섬세한 음악성으로 헝가리 벨라바르 특 국제피아노 콩쿠르에서 2

등상과 함께 2개의 특별상 수상, 일본의 IFMA에서 1등상을 수상하고 2013년 3월부터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에르노 페헤의 부산 데뷔무대이다.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9월 7일

Ensemble of the Perfectio

'Tango with Ensemble of the Perfectio'



▶ 프로그램

Julio César Sanders/Adios Muchachos(Goodbye, boys)
Carlos Gardel/Por una cabeza(by a head)
Porumbescu, Ciprian/Longing (갈망)
Adolf Schreiner/IMMER KLEINER (Always Smaller)
Astor Piazzolla/Café 1930
Astor Piazzolla/Summer in Buenos Aires
Astor Piazzolla/Libertango
러시아 구전민요/Dark Eye
Gianfranco Gioia/Almost Tango

9월 17일

부산시립무용단

▶ 프로그램



- 우리춤 체조(출연/김진영, 서지은, 양해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춤 체조로, 쉽고 재미있는 무용 동작을 체조형식으로 안무.
- 동래학춤(출연/황동하)
학이 고고하고 우아한 자태로 여유롭게 노니는 형상을 모방한 춤사위로 자연미와 예술미의 조화로움의 수준이 경지에 이르렀다하여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춤.
- 장고춤(출연/김도은, 김시현)
아름다운 장고 가락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시켜 흥을 돋우며 음악과 어울려 가볍게 움직이는 무용적인 요소가 신명과 멋을 더한다.
- 설장고(출연/김윤호)
장고잡이 중 기예가 가장 뛰어난 이가 장고를 치면서 여러가지 춤사위나 자기만의 독특한 버숨새들을 보여주는, 역동적인 설장고 가락과 맵시 있게 어우러지는 춤이 매력적인 작품.
- 부채춤(솔로/이정인 · 군무/윤은하, 이현주, 전해련, 박은혜, 박미나)
화려한 무복을 입은 여인이 부채를 이용해 원과 선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며 추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춤.
- 선비춤(출연/류권홍)
조선시대 선비정신을 가미하여 학문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남성의 멋과 품격을 나타낸 것이 원본이며 무용가 정재만 선생의 흥과 신명에 중점을 두어 안무된 춤.
- 소고춤(출연/김공주, 허태성)
벅구놀음의 독특한 춤사위와 가락이 짜임새 있는 춤으로, 경쾌하고 절도있게 몰아치는 장단이 역동적이며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 특징.
- 경고춤(솔로/권봉정 · 군무/황선희, 김주령, 정진희, 박창희, 오수연, 김주연)
신명나는 장고 가락의 음악에 손에는 경고를 들고 다양한 춤사위를 구사.

◆ 안무 · 구성/홍경희(예술감독)

Music

2013 두레라움 여름 실내악축제

9월 2일(월), 4일(수), 6일(금)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 2일 그리움 앙상블

손열음, 아비람 라이케르트, 이형민, 조재혁 등 최고의 실력을 갖춘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그리움 피아노 콰르텟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해외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하는 손열음을 대신해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가 함께한다.

▶ 4일 인터네셔널 플레이어스 오브 부산(IPB)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 비올리스트 김가영, 첼리스트 양욱진, 피아니스트 정성흡 등 지역의 주목받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인터네셔널 플레이어스 오브 부산'의 무대. 도이치오퍼 악장 토마젱스키가 객원악장으로 참여한다.

▶ 6일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클로징 콘서트
실내악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무대로 2013 두레라움 여름 실내악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하지희 가야금 솔로 콘서트 iFinger

9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하지희(010-3273-8184)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와 전문사(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실력있는 젊은 연주자 하지희 가야금 독주회.

지난 2010년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첫 번째 독주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12현 전통 가야금과 드럼, 33현 옥류금으로 연주하는 쇼팽 에튀드, 현대무용수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25현가야금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 3일 고보석 거문고 독주회-종묘제례악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거문고주자 고보석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6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전승되어온

종묘제례악을 거문고로 들려준다.

▶ 10일 최지은의 춤 III -춤에 물들다

국립남도국악원 부수석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정신혜무용단 회장, 중요무형문화재 살풀이춤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춤꾼 최지은의 전통춤판.

▶ 17일 박현주의 두 번째 독주회-현의 꿈, 현의 비상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가야금주자 박현주의 무대.

▶ 24일 황한나 해금독주회-해금, 경서도를 노래하다
국립부산국악원 단원이자 해금연구회 회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해금주자 황한나 독주회.

201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극 '50 손가락 피아니스트'

9월 3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

(070-7687-8291~2)

경이적인 테크닉으로 '리스트의 후예'라는 찬사를 받았으나 지난 1950년 헝가리 공산주의에 반대하여 3년여간 수감생활을 했던 헝가리 피아니스트 조르주 치프라의 격정적인 삶을 조르주 치프라의 제자이자 프랑스 젊은연주자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파스칼 아모엘의 연주로 들려주는 201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극 '50 손가락 피아니스트(The Pianist with 50 Fingers)'.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18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61~3)

▶ 4일 류상경, 장윤정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Bonjour, Russia'

제16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쿨

부 분 피아노, 성악, 작곡 : 2013.10.3 (목)
현악, 관악, 국악, 실내악, : 2013.10.5 (토)
대 상 유, 초, 중, 고, 대, 일반전공, 일반비전공
접 수 2013.9.1. ~ 2013.10.1. www.contest.co.kr / www.glovil.org
과제곡 전 부문 자유곡 1곡
시 상 전체대상(상금100만원), 부문별 최우수상
각 부문별 & 각 학년별(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교육공로상, 우수지도자상
참가비 개인 7만원 (유/초등부 6만원) / 실내악팀 15만원
문 의 051 505 5995 / 070 8880 5995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www.glovil.org

GloVil

GloVil Art Hall



류상경 장윤정

동아대학교 기악과 동문인 피아니스트 류상경과 장윤정이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무대. 류상경은 독일 다름슈타트 시립음대를, 장윤정은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만하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11일 가을밤의 힐링콘서트

부산지역 음악인들이 들려주는 초가을 서정의 무대 '가을밤의 힐링콘서트'.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제4번

몬티/차르다스 등 수곡

- 출연/고은주(소프라노), 박은정(피아노), 강고은, 이민지, 류현정, 김주현(바이올린), 김명복(비올라), 곽대희(첼로), 박선영, 황남용(클라리넷), 강미경(플루트), 정재은(퍼커션) 외

▶25일 제4회 부산반주연구회 정기연주회

클래식음악의 활성화와 반주전문 피아니스트들의 친목과 권익향상을 위해 창단된 부산반주연구회의 네 번째 정기연주회.

- 연주/김성희, 정수연, 김성희, 박미은, 이화영선, 안선애, 박소미, 안준희, 김경미
- 찬조출연/박현영(첼로), 유형광(베이스), 전병호(테너), 박현정(소프라노), 박대용(바리톤), 김도형(베이스 바리톤)

201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Chamber Music '1819'

9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
(070-7687-8291~2)



강동석

예술감독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과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 조무종, 피아니스트 랄프 고토니, 플루티스트 뱅상 루카, 첼리스트 엠마누엘 베르트랑, 정준수, 비올리스트 김상진, 김은진, 더블베이

스 주자 박희철의 연주로 들려주는 앙상블 무대.

▶프로그램

베토벤/세레나데 라장조 작품 25

오세일/현악 4중주를 위한 야간열차(2013 부산국제마루음악제 위촉곡)

베버/플루트와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작품 63

슈베르트/피아노 5중주 '송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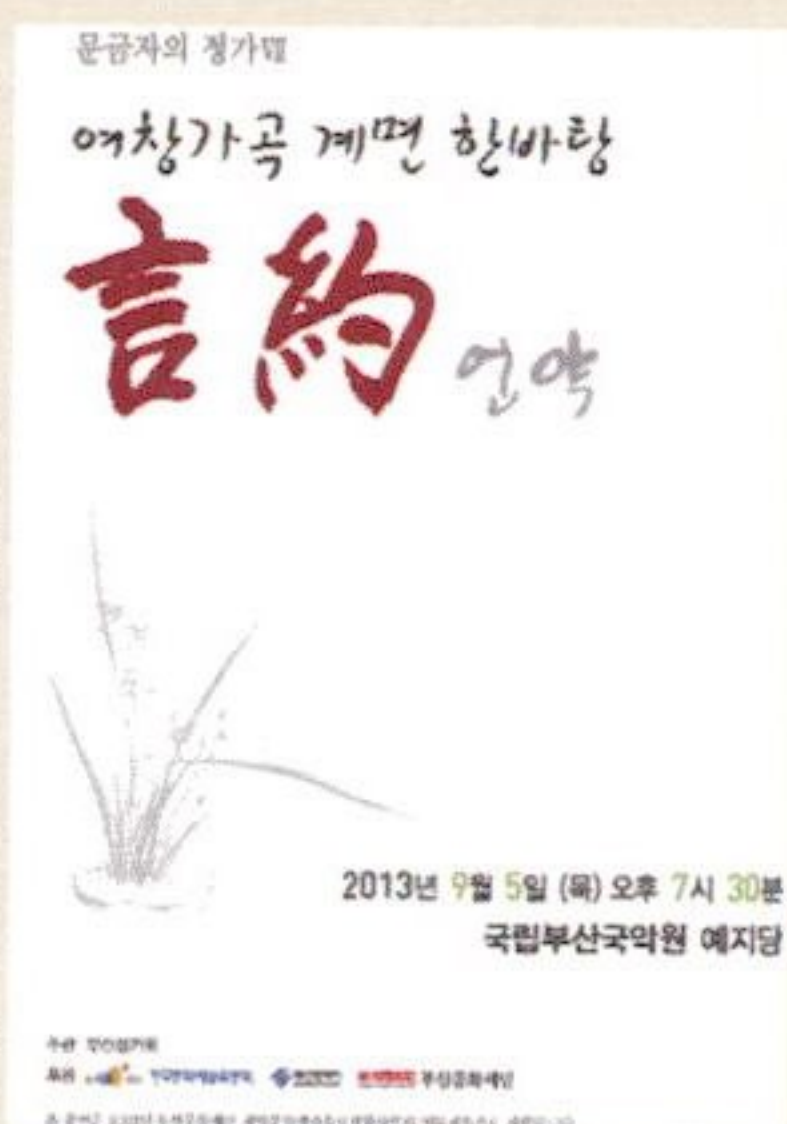
문금자의 정가 VII

여창 가곡 계면 한바탕 言約

9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문금자(010-5559-6119)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이수자이자 한국소년소녀정가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금자의 정가무대.

▶프로그램

이수대엽, 중거, 평거, 두거, 평풍, 계락, 편락, 편수대엽, 태평가

- 사회/권성택(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예술감독)
- 출연/이동영, 정다은, 하예린, 손다정, 임유정
- 반주/국악실내악단 산, 바다, 해(연주/송강수, 한영길, 방병원, 김경수, 오상훈)

소프라노 박나리 귀국 독창회

9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뉴아시아오페라단(1600-6867)



한양대학교와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독일 국가공인 에이전시 ZAV 소속가수,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박나리 독창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어린시절

부터 두각을 보였던 박나리는 귀국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음악세계를 펼치고 있다.

- 피아노/이승윤
- 찬조출연/유지훈(클라리넷)

피아니스트 김성숙의 Lecture Concert

아는 만큼 들리는 현대음악이야기(2) -1945년 이후

9월 5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성숙(019-540-5798)



이화여자대학교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석사)을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김성숙 독주회.

김성숙은 그동안 다수 독주회 및 매디슨 피아노 앙상블 연주회, MBC목요음악회, 청

소년을 위한 음악회, 듀오연주회 등 다수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스키를라티, 말콤 아놀드, 페데리코 모포우, 존 아담스 등 현대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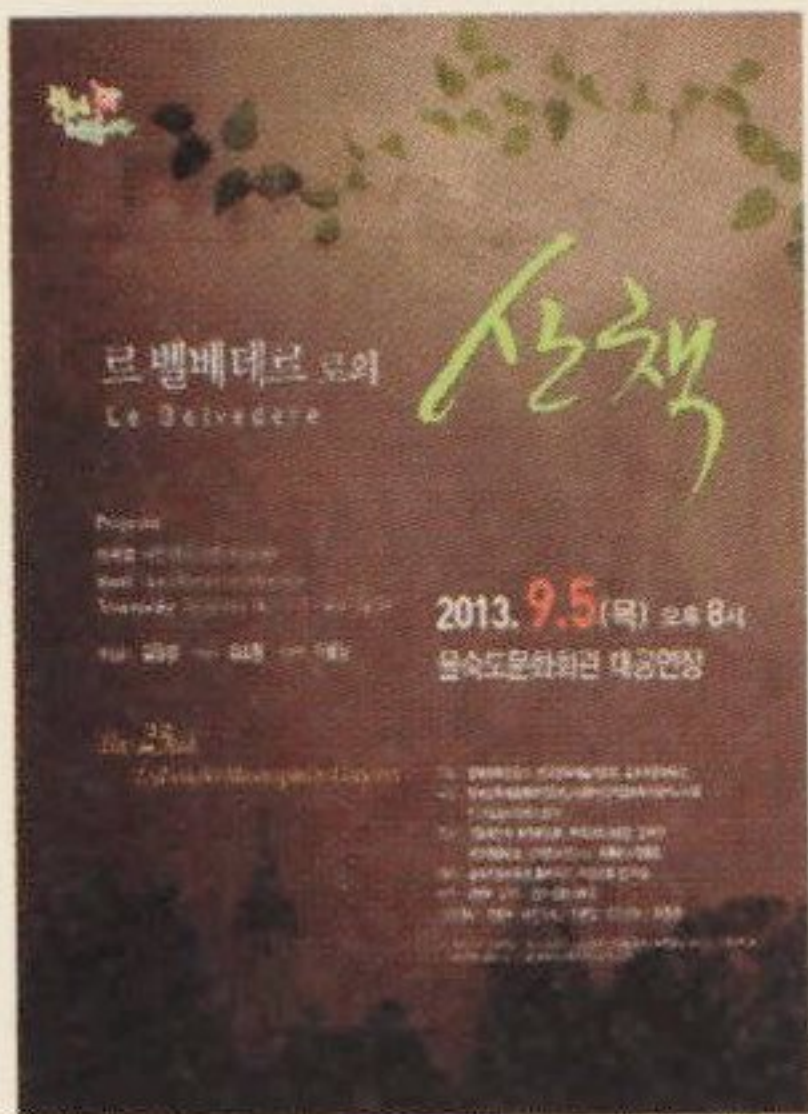
을숙도 명품콘서트 르 벨베데르로의 산책

9월 5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본성의 따스함과 이성의 예리함을 음악속에 담은 피아니스트 김소형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을숙도 명품콘서트 9월 무대.



부산대학교와 미국 보스턴 음대(석사)와 클리블랜드음대(전문연주자과정), 하트포드음대(최고전문연주자과정)를 졸업한 김소형은 동의대학교 교수로 그동안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쳐왔다.

▶ 프로그램

- 이옥영/관현악을 위한 아리랑
- 라벨/피아노협주곡 사장조
-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4번 바단조 작품 36
- 연주/T.I.F.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이효상)



아트카페 움 목요일음악회

5일(목), 26일(목) 오후 7:30 **아트카페 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아트카페 움(557-3369)

▶ 5일 해설과 그림이 함께하는 클레다의 타임머신



'Classic never dies(클래식은 죽지 않는다)' 라는 모토로, 자극적인 전자음과 화려한 조명을 지양하고 청중의 귀와 눈을 순수음악으로 되돌리기 위해 결성된 열정 넘치는 젊은 현악4중주단 '클레다'의 무대.

- 연주/김혜진(바이올린), 탁서연(바이올린), 성정인(비올라), 박준현(첼로)

▶ 26일 풍경이 흐르는 힐링 음악회

플루티스트 김유하,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충진, 가야금 연주자 나주희, 피아니스트 표세구가 들려주는 4인 4석의 특별한 앙상블 무대.



창작오페라 '해운대-장산국 이야기'

9월 5일-6일 목-금요일 오후 7:30,
7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 3만원 · R석 2만원 · A석(2층) 1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전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인 해운대구가 기획하고 자체 제작한 창작오페라 '해운대-장산국 이야기'. 지금의 장산자락에 위치한 장산국 설화를 바탕으로, 차세대 주목받는 연출가 김지용의 대본, 연출, 작곡가 백현주 작곡, 소프라노 김유섬, 바리톤 박대용, 테너 김지호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의 출연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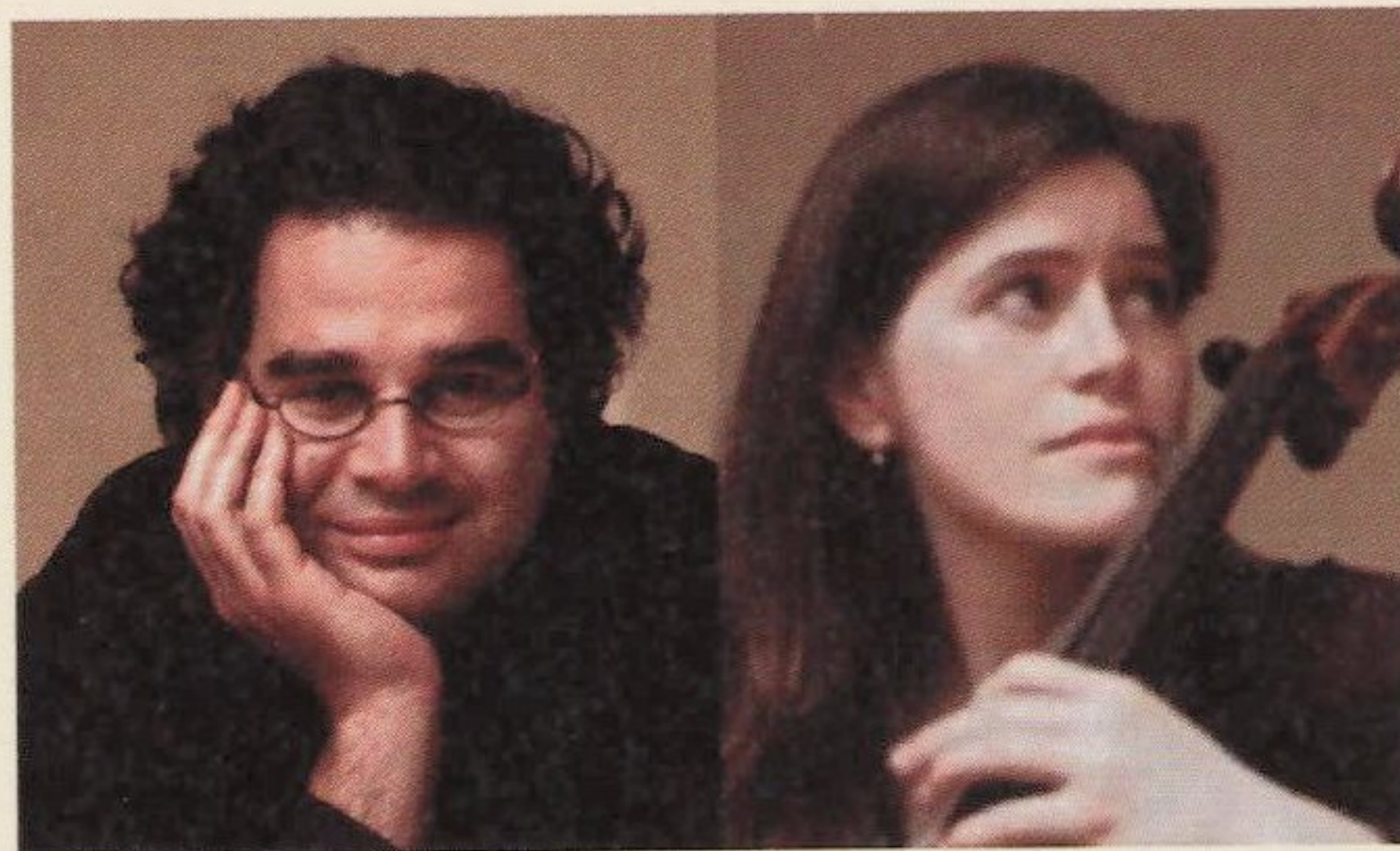
- 작곡/백현주 · 대본, 연출/김지용
- 총음악감독/백진현(해운대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자)
- 합창/부산YMCA오페라 합창단(지휘/이승우)
- 안무지도/홍충민 · 무술지도/최현동



201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음악극 '블록15'

9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문의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사무국
(070-7687-8291~2)



파스칼 아모엘 엠마누엘 베르트랑
아우슈비츠 수용소 내 음악가 구역을 뜻하는 '블록15'는 음악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생존한 첼리스트 아니타

라스카발피슈와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 시몬 락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음악극으로, 뛰어난 연주자이자 실제 부부인 피아니스트 파스칼 아모엘과 첼리스트 엠마누엘 베르트랑이 두 주인공 역을 맡아 열연한다.



을숙도문화회관

PNU 스트링앙상블과 함께하는 해피콘서트

9월 6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해피한 금요일의 휴식 같은 만남'이라는 주제로 마련하는 을숙도문화회관 '금요 해피콘서트' 9월 무대로, PNU 스트링앙상블이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 지휘/김진연(부산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해외관광객을 위한 공연 'Heritage of Korea'

매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부산을 찾은 해외관광객들에게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한국의 인류무형 문화유산 중 종묘제례악, 처용무, 판소리, 가곡, 아리랑, 강강술래 등 엄선된 6작품을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



YAMAHA·KAWAI·STEINWAY
PIANO DI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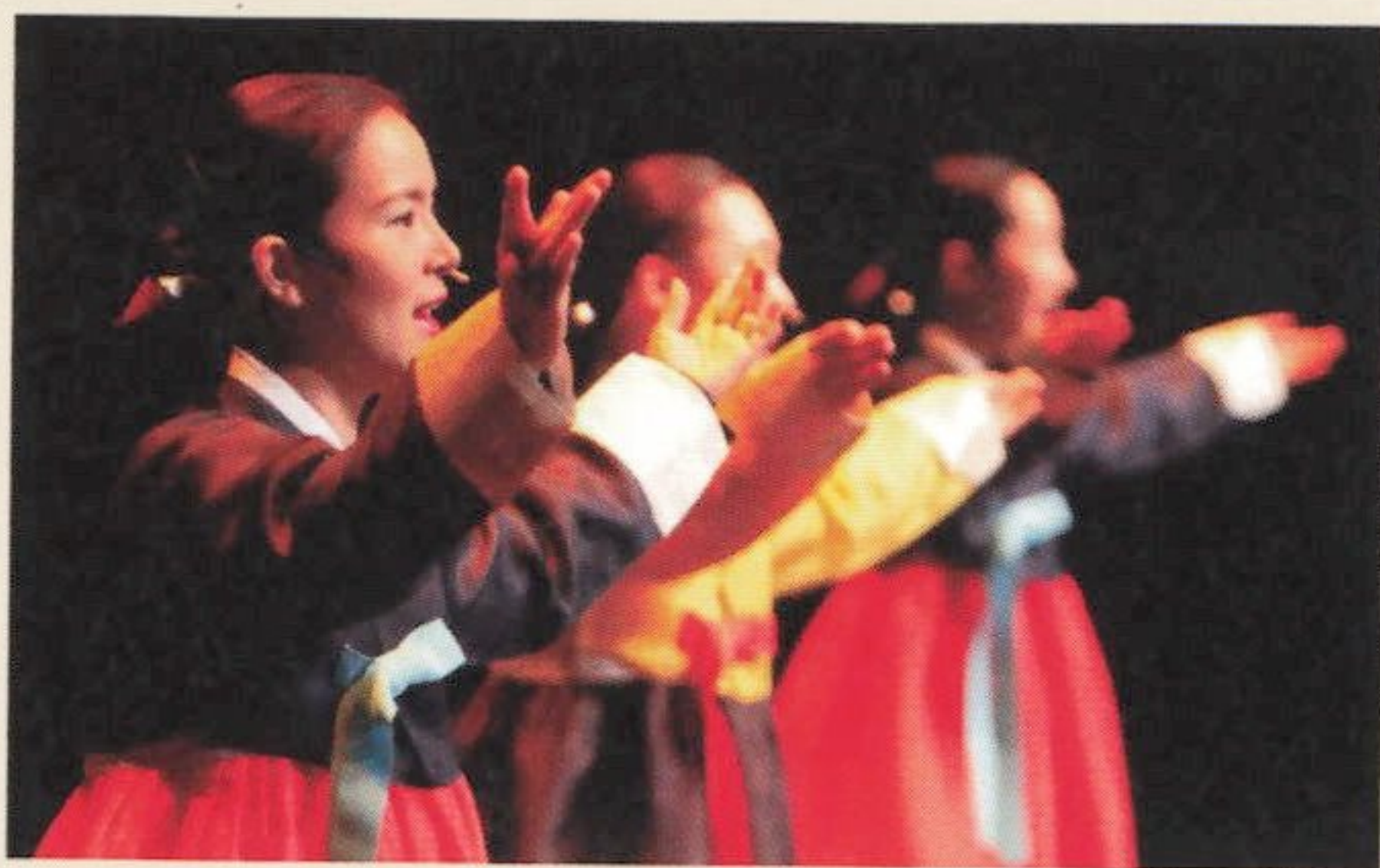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 051-753-8963
H.P. 010-9003-8963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국립부산국악원 예술단이 매주 토요일 마련하는 신명 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 한마당.

▶ 7일 프로그램

전폐희문, 수영야류 중 ‘영감, 할미과장’, 구음시나위, 동래한량춤, 동부민요 ‘뱃노래, 자진뱃노래’, 좌수영어 방놀이춤, 판굿

▶ 14일 프로그램

선유락, 가곡 ‘태평가’, 산조춤, 가야금병창 ‘님 그린 회포, 청산별곡’, 세상풍경(강상구 곡), 강강술래, 사물놀이와 호적시나위

▶ 21일 프로그램

학연화대무, 처용무, 가곡 ‘편락, 편수대엽’, 삼고무, 산조합주, 경기민요 ‘구아리랑, 해주아리랑’, 꽃나부풍장 놀이춤

▶ 28일 프로그램

승전무 중 북춤, 남도민요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 동래학춤, 영남성주굿, 가사 ‘죽지사’, 대풍류 등

김미현 피아노 리사이틀 ‘All Rachmaninoff’

9월 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청소년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미국 피바디 음대(석사), 오리건대학 음대(박사)를 졸업하고 그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루마니아 바나톨리 티미쇼하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다수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져온 피아니스트 김미현 독주회.
김미현은 부산을 시작으로 창원과 서울에서 라흐마니노프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노프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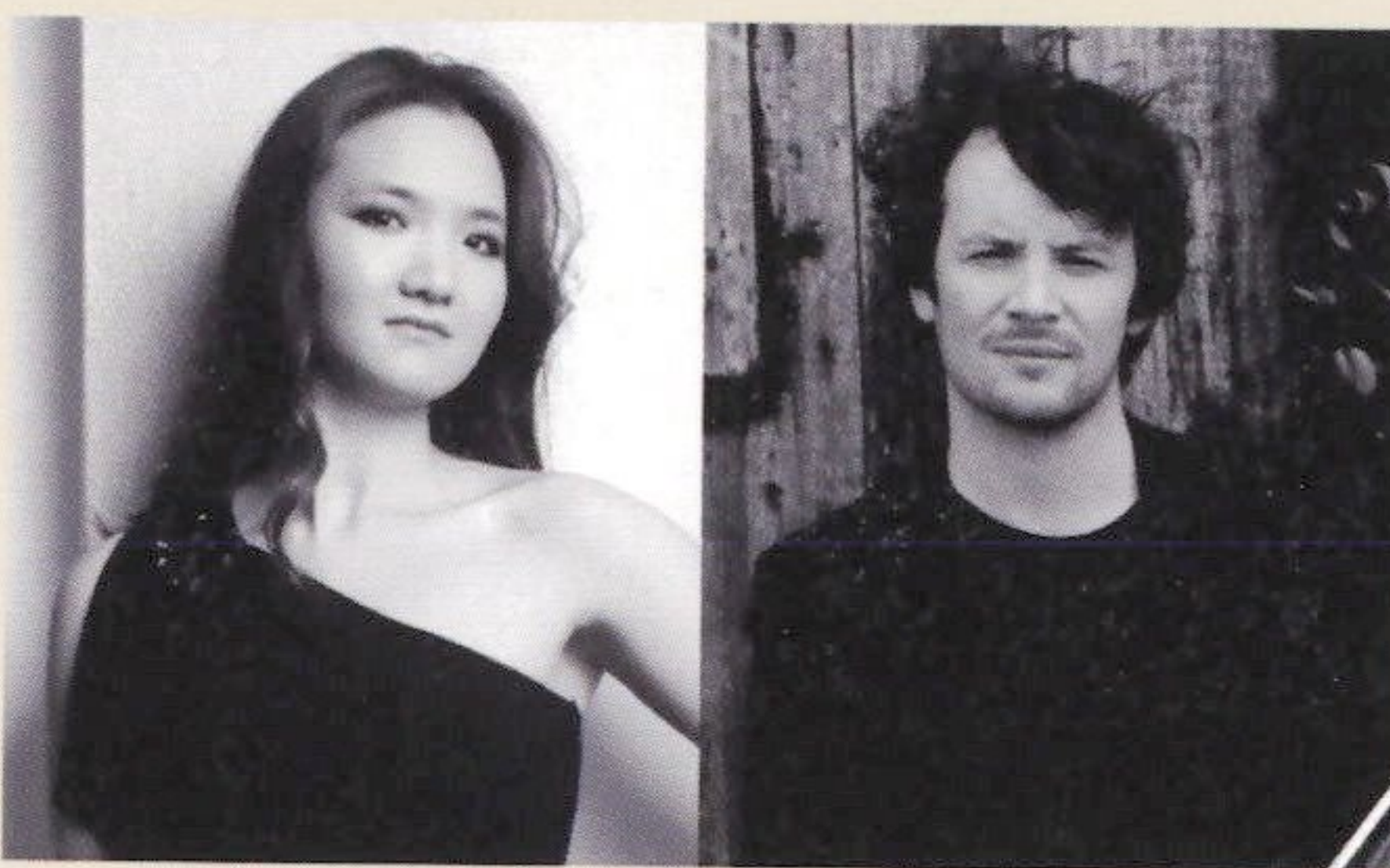
라흐마니노프/고난도연습곡 작품 39
라흐마니노프/코렐리 테마에 의한 변주곡 작품 42 등



부산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후원

피아니스트 백민정, 첼리스트 브라이언 오케인
사랑나눔 콘서트

9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5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백민정

브라이언 오케인

‘최고의 테크닉과 마법 같은 음악성을 바탕으로 완벽한 호흡을 보여준 연주’라는 호평을 받은 피아니스트 백민정과 첼리스트 브라이언 오케인이 마련하는 사랑나눔 콘서트.

영국의 명문 런던 길드홀 음악원의 추천으로 지난 2010년 결성된 듀오 백민정, 브라이언 오케인은 다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후 영국을 중심으로 아일랜드, 이탈리아, 독일 등 세계무대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프로그램

멘델스존/협주적 변주곡 작품 17
포레/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2번 작품 117
슈만/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작품 73 등

제19회 숲속의 열린음악회 ‘현을 위한 세레나데’
9월 10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된 후 그동안 일본 사가현 연주, 부산비엔날레 초청연주, 독일 문화원 초청연주,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비루투오조 앙상블 무대로 마련되는 숲속의 열린음악회 9월 무대.

▶ 프로그램

헨델/트리오 소나타 제16번 사단조
슈베르트/바이올린과 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론도 가장조 D 438
드보르작/세레나데 마장조 작품 22 등



동성화학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조운범의 시네마 클래식 6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콰르텟엑스

해설음악회로 클래식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한 바이올리니스트 조운범의 해설로 진행되는 ‘시네마콘서트 시리즈’ 여섯 번째 무대.

정통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젊은 현악사

중주단 콰르텟엑스의 연주로 영화 ‘센스, 센서빌리티’ ‘브리짓 존스의 일기’ 등을 작곡한 영국 출신의 작곡가 패트릭 도일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순회연주회

아름다운 부산 내 사랑 영도

9월 10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영도문화예술회관 초청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순회연주회 '아름다운 부산 내 사랑 영도'.

▶ 프로그램

Opening/My Lord, What a Morning, It is Well with my Soul, Gloria in excelsis Deo
가곡모음/얼굴(최석태 편곡), 동심초(최석태 편곡), 민요 모음-아리랑, 도라지 타령, 한강수, 경북궁 타령(김일권, 박종철 편곡)
가요모음/ '세씨봉 메들리' 등
· 지휘/오세종(수석지휘자)
· 특별출연/영도구립여성합창단, 영도구청소년합창단

● ● ●
을숙도 힐링콘서트

삼색(三色)의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

9월 11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중요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로 있는 김현주와 정주연, 신아름, 윤혜란, 김단경으로 구성된 예림가야금병창단과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이희재, 소리꾼 조아라가 함께하는 전통 성악의 밤.

▶ 프로그램

가야금 병창 '부산민요', 우조 언락,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방아타령, 반우반계 편락, 춘향가 중 '사랑가'

● ● ●
부산리코더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9월 11일 수요일 오후 7:00 글로빌아트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리코더앙상블(010-2562-6561)



리코더 음악의 보급과 저변확대에 힘써온 부산리코더 앙상블의 6번째 정기연주회.

리코더의 전성기였던 바로크시대부터 창작곡까지 리코더 앙상블과 가야금, 장구, 타악이 함께하는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 프로그램

비발디/협주곡 다단조 작품 44
바흐/푸가 가단조 BWV 543
몬티/차르다스
조악래/아바타라-인디아의 꿈
· 찬조출연/부산주니어리코더앙상블

● ● ●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전통음악 연주회

9월 12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510-1739)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재학생들이 마련하는 전통음악 연주회 2013년 무대.

▶ 프로그램

보허자, 현악합주 '중광지곡' 중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가곡, 씨김굿



제4회 S. Modern 타악앙상블 정기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타악의 향연

9월 14일 토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초중고생 50% 할인)

문 의 | S. Modern 타악앙상블(010-8408-8192)



창원시립마산교향악단 부수석, (사)T.I.F 이사, 부산원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인 타악연주자 송희철과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S. Modern 타악앙상블 정기연주회.

타악 독주에서부터 듀오, 트리오, 앙상블 등 다채로운 타악의 세계를 선사한다.

· 연주/송희철(음악감독, 리더), 양진일, 김영민, 박찬식, 유진, 송학, 이소현(우정출연)

● ● ●
동래문화회관 토요일 클래식 뮤직샤워

9월 14일 토요일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 14일 바이올리니스트 이영주와 함께하는 Healing Concert

우리에게 친숙한 유명 클래식 곡으로 꾸며지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영주의 무대.

▶ 28일 나는 성악가다!!

성악가 정승화가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등 우리 귀에 친숙한 명곡을 들려준다.

부산악기서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
복원(수리), 조율, 감정, 대여

부산문화회관전속 조율사 / 김해문화의전당 전속

대표 강규찬 (조율사)

H.P 010-4556-9410

TEL 051)758-5445 / 5450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2013 신영순 작곡발표회

인성과 실내악 'Psalms' 150

9월 14일 토요일 오후 3:00, 5: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 예술총감독, 글로벌콘서바토리 학장으로 있는 작곡가 신영순 작곡발표회. 동아콩쿠르 작곡상,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하고 2002 아시안게임음악 작곡자, 국가상훈편찬위원회 선정 '현대사의 주역들' 인물편에 수록되어 있는 신영순은 그동안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의 특징을 살려 자연스럽게 우리 정서를 표출한 창작곡을 발표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신작인 인성과 실내악 'Psalms' 150을 들려준다.

2013 칸타빌레 남성양상블 제34회 정기연주회

애창곡과 남성 양상블

9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칸타빌레 남성양상블(010-2400-5271)



지난 1997년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의 국립대학에서 유학한 성악가들로 구성된 칸타빌레 남성양상블 정기연주회. 고전적 레퍼토리의 답습을 피하고 새로운 음악을 발굴

하기 위해 노력해온 칸타빌레남성양상블은 남성양상블이 가지는 넉넉함과 편안함, 드라마틱한 강렬함과 화려함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 출연/김길수, 이흥득, 이은민, 안상철, 박기범, 김화정, 양승엽, 김정대
· 음악감독/양종모 · 피아노/최영민

김미진 피아노 독주회

9월 1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미진(010-9390-4271)



동아대학교 기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미진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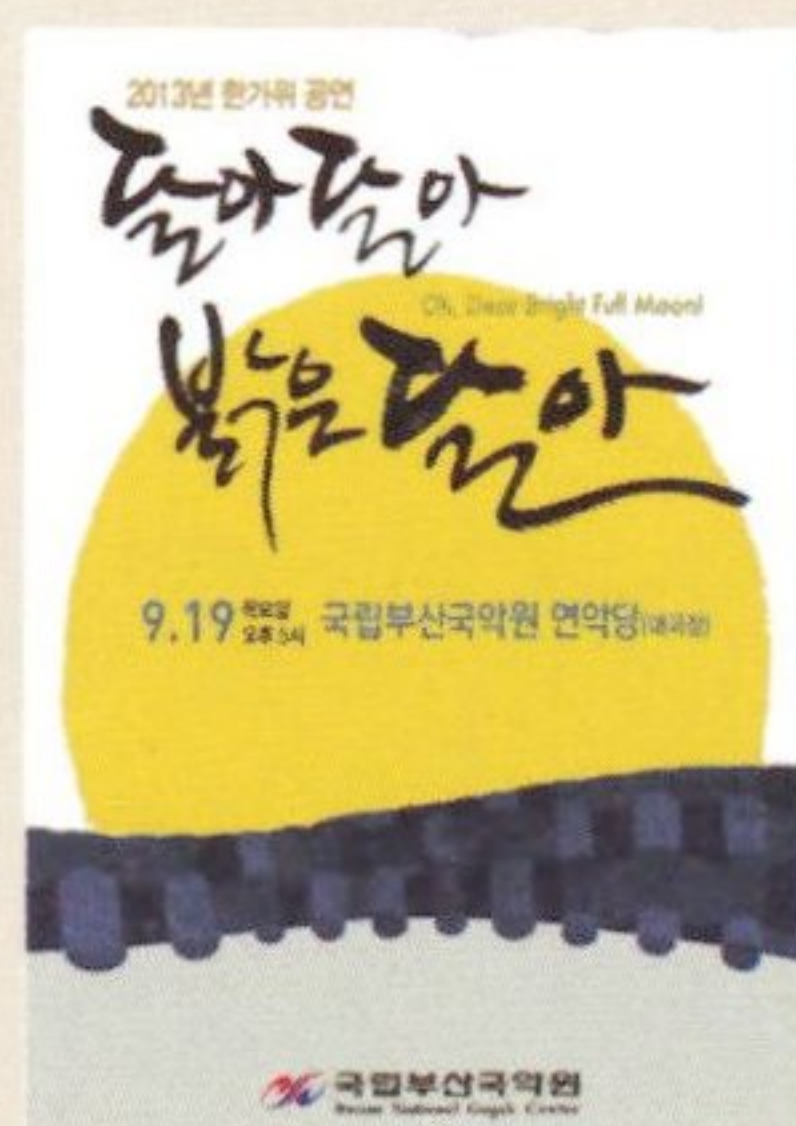
▶프로그램

헨델/사콘느 작품 435
베토벤/소나타 제7번 라장조
피아졸라/망각 등
· 특별출연/고은정

국립부산국악원 2013년 한가위 공연

달아 달아 밝은 달아

9월 19일 목요일 오후 5: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1)



즐거운 명절 한가위를 맞아 국립부산국악원이 마련하는 신명나는 국악과 전통춤 한 마당.

1부에서는 강강술래, 수영야류 중 영감, 할미 과장, 광대춤 등 전통춤을, 2부에서는 편락, 편수대업, 태평가, 해

금협주곡 '공수반이' 등 흥겨운 국악을 들려준다.

· 출연/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무용단
· 협연/정용진(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이수자), 문금재(중요무형문화재 가사 이수자), 이희재(정가), 조윤경(해금), 오혜연(소리), 윤형욱(태평소)

고태욱 피아노 독주회

9월 2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예술기획(0505-700-9798)



고신대학교 기악과 및 동대학원, 독일 자르브뤼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고태욱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뒤포르 미뉴엣에 의한 9개의 변주곡 K. 573

베토벤/소나타 제31번 내림가장조 작품 110
드뷔시/베르가마스크 모음곡 등

정안선 제9회 피아노 독주회

9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정안선(010-2545-2291)



신라대학교 음악과 및 동대학원, 독일 악현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그동안 피아니스트이자 챔발리스트로 다양한 무대에 서온 정안선 피아노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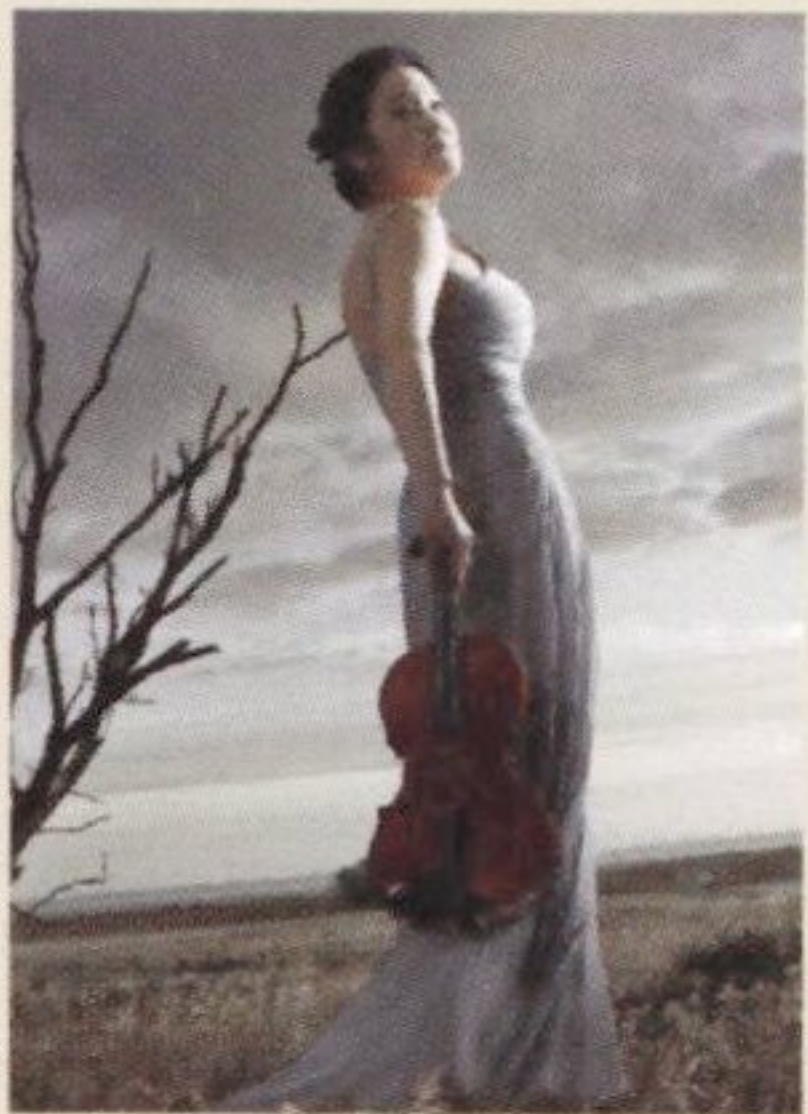
쇼팽의 즉흥환상곡과 베토벤의 월광, 바흐 사콘느 등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 명곡을 들려준다.

김은진 비올라 독주회 'Transcription'

9월 2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지원클래식(080-009-7942)

단아함 속에 열정을 지닌 비올리스트 김은진 독주회.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악대학 전문연주자 과정,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은진은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 비르



투오조양상블 수석, 대구 울림 소사이어티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의대학교 겸임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슈만/3개의 로망스 작품 94 프랑크/소나타 가장조 등

· 피아노/이조토브 예브게니(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 신라대학교 교수)



제54회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20년의 우정

9월 24일 화요일 오후 7:00 고은사진미술관
입장료 | 균일 1만원(사전 예약)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010-4781-5959,
www.goeunmuseum.org)

'풍부하고 깊이 있는 톤과 뛰어난 선율의 소유자'로 평가받는 첼리스트 양성원, 연세대학교 교수와 앙상블 오마주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식, 도쿄 Geida 부총장 겸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Kazuki Sawa, 피아니스트 Emiko Tadenuma 부부와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Aki Sawa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제3회 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정기연주회
스승과 제자의 사랑음악회

9월 25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627-8403)



김청만

정영진

올해 전통연희과에서 한국음악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한 후 처음 갖는 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정기연주회.
· 총연출/신문범(부산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학과장)
· 특별출연/김청만(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
· 해설/정영진(부산시 문화재 전문위원)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 힐링콘서트
가을타는 가야금

9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전통국악에서 퓨전까지 다양한 국악곡으로 마련되는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 힐링콘서트 9월 무대.

▶프로그램

Let it be, 눈의 꽃, 보랏빛 향기, 모베터블루스, 사랑의 춤, 불인별곡, 개똥벌레 등



부산베누스토오케스트라 제14회 정기연주회
지역주민 열린음악회

9월 27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 청소년 1만 5천원
문의 | 부산베누스토오케스트라
(010-9026-3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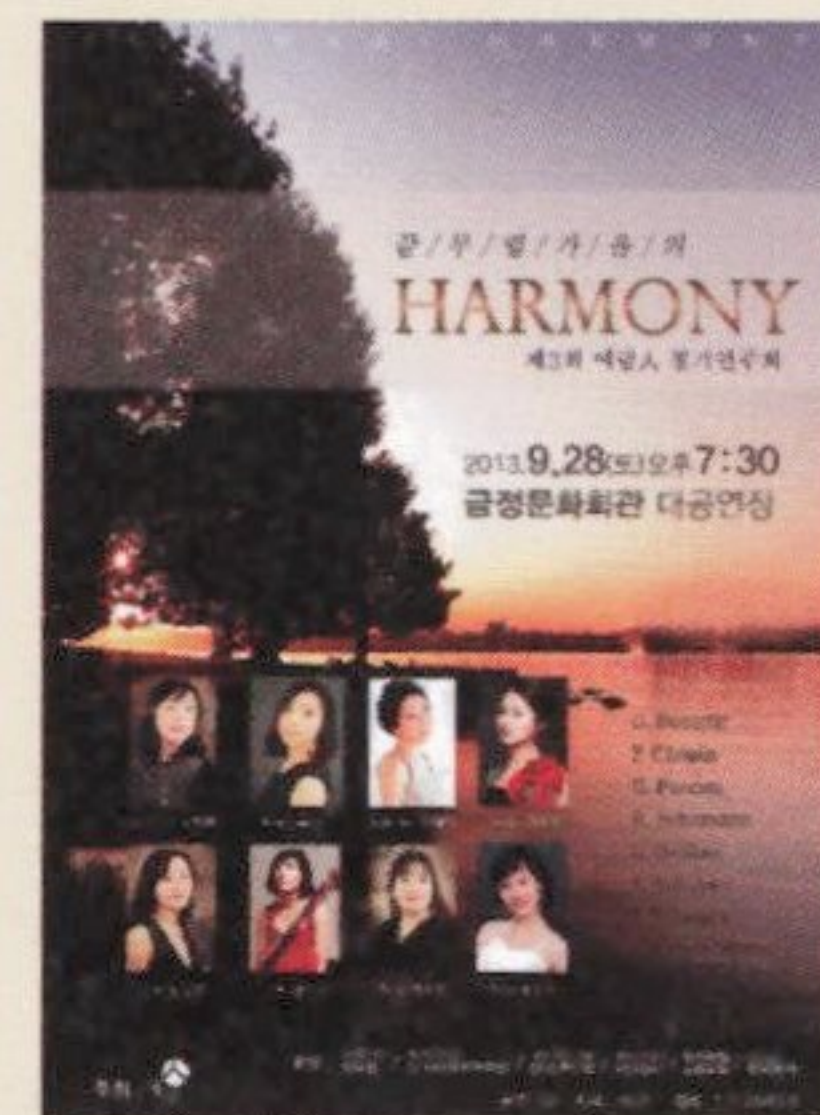
지난 2004년 창단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음악사랑을 펼쳐온 아마추어오케스트라 부산베누스토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4악장
주페/시인과 농부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제21번 다장조 K. 467 등

제3회 예람인 정기연주회
끝무렵 가을의 하모니

9월 28일 토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단장 정재영(010-4145-6019)



부산 클래식 문화예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실력있는 젊은 연주인들이 모여 결성한 '예람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슈만/환타지 모음곡 작품 73
쇼팽/발라드 제1번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들리브/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이중창' 등 수곡

· 단장/정재영

· 출연/김우영(바이올린), 변가영(첼로), 홍성미, 김민경, 박수진, 황은혜, 홍성미(이상 피아노), 정혜리, 정재영(이상 소프라노)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두대의 바이올린과 첼로

9월 28일 토요일 오후 7: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바이올리니스트 김채원, 안은탁, 피아니스트 성아람, 첼리스트 송혜진이 들려주는 앙상블의 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두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5개의 소품
모차르트/두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71
슈베르트/피아노 트리오 작품 100 등

2013 장사익 소리판 '오~매 단풍들것네!'

9월 28일 토요일 오후 7: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9만 9천원 · S석 8만 8천원
A석 6만 6천원
문의 | KBS비즈니스(620-7181~2)



독특한 창법과 감성으로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소리꾼 장사익의 2013 소리판. 국악과 재즈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음악세계와 한 서린 절창으로 사랑받고 있는 장사익은 이번 무대에서 짙레꽃, 꽃구경, 여행 등 그의 대표곡과 7집 수록곡을 장사익 특유의 구성진 가락으로 들려준다.



제69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9월 29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 기금 마련)
문의 | 글로벌아트홀(505-5995)



글로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 시민들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글로벌 행복음악회.



박초연 바이올린 리사이틀 'Beyond'

9월 29일 일요일 오후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 학생 1만원
문의 | 박초연(010-7370-8748)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과 미국 뉴욕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학



과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초연 독주회. 미국 베르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상임악장, 애덜피 챔버오케스트라 겸임악장 및 독주자, 마드리실내악단 제1바이올린 수석을 역임한 박초연은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린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인 바흐, 베토벤의 소나타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사라사테의 지고이레르바이젠, 한국의 중견작곡가인 신동일의 창작곡 '가족에게'를 들려준다.

· 피아노/구영수(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3B-All Clarinet' 클라리넷, 실내악을 만나다

9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청소년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클라리넷 채재일 바이올린 이은옥 피아노 박정희

2008년 스페인 클라리넷 국제콩쿠르 Dos Hermanas 1위, 스위스 제네바 콩쿠르 특별상을 수상하고 현재 영남대학교 교수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옥, 동아대학교 전임교수 피아니스트 박정희, (사)T.I.F 오케스트라 악장 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비올리스트 손주연, 조이 오브 스트링스 단원 첼리스트 서성은이 평소 부산에서 잘 접할 수 없는 클라리넷 실내악 연주를 들려준다.

▶ 프로그램

바르톡/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루마니안 민속 무곡 뿔랑/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고성(古城)로의 초대' 작품 138 등

플랜더스 리코더 콰르텟 초청 리코더 연주회

9월 30일 월요일 오후 7:3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5만원(초중고생 20% 할인)
문의 | 리코디아(02-2692-7945)
글로벌아트홀(505-5995)



중세시대의 음악을 비롯해 르네상스, 바로크를 거쳐 현대 음악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플랜더스 리코더 콰르텟 초청 연주회. 창단 25주년을 맞은 이번 무대에서는 'Encore'라는 테마

마로 지금까지 가장 관중들의 호응이 높았던 곡들을 비롯해 앙콜곡으로 연주되었던 다양한 곡들을 들려준다.

· 협연/신윤희(리코더 연주자), 부산리코더앙상블

Play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2'

2013년 1월 1일(일)-OPEN RUN 화요일, 목-금요일 오후 8:00, 수요일 오후 3: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 서면
입장료 | R석 4만 5천원 · S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자선쇼를 준비하는 못말리는 다섯 수녀들의 화끈한 춤과 노래,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연극 '두 여자'

5월 30일(목)-9월 22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5:00,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의 | 극단 라임(1600-1602)

서늘한 반전이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기존의 호러극에서 느껴보지 못한 색다른 공포를 선사한다.

코믹호러극 '막무가내들'

7월 10일(수)-9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SM아트홀 3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극단 라임(1600-1602)



천년 된 여자귀신에서부터
귀신을 쫓는 퇴마사와 저승
사자, 사채회사 말단직원과
막장반장 김반장까지 5명의
캐릭터들이 빚어내는 공포
속 폭소가 특별한 재미를 선
사하는 코믹호러극.

· 작/이주용

· 각색, 연출/오승수

· 출연/허윤, 문주희, 이은성, 정성진

창작뮤지컬 '복순이 할배'

7월 16일(화)-9월 15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 **디코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아트레볼루션(010-8347-0129)

부산의 유일무이한 창작뮤지컬 집단인 아트 레볼루션
극단이 기획에서 부터 극작, 작사, 작곡, 무대, 조명에
이르기까지 'Made in 부산' 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선보
이는 창작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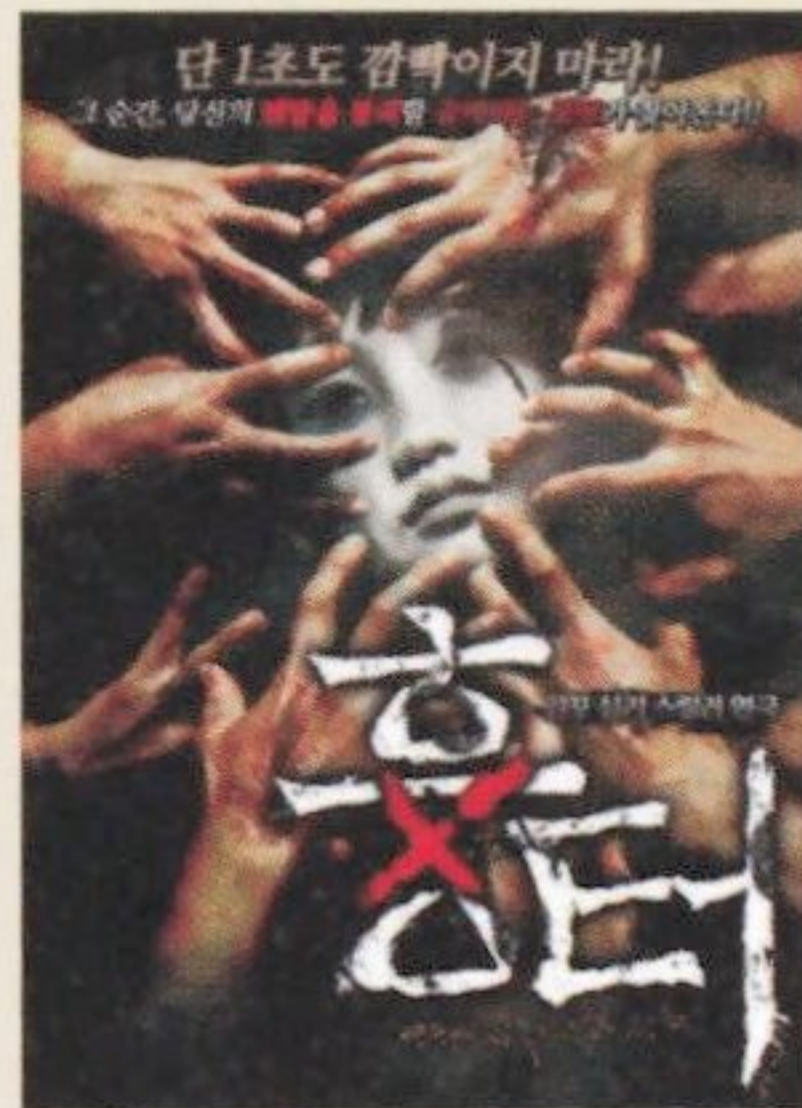
괴짜 독거노인 복순이할배를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
를 따뜻한 감동으로 그려낸다.

· 연출/박정우

· 출연/박준성, 이영진, 설재권, 채민수, 김범수 외

공포연극 '흉터'

8월 20일(화)-9월 22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6:00, 8:00, 토요일 오후 3:00, 6:0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9/19일
휴관) **경성대학교 비너스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과거의 끔찍했던 사고의 기
억을 지워버린 남자와 그 기
억으로 죄책감에서 헤어나
오지 못하는 남자, 같은 사
건 그러나 다른 상처를 지닌
두 남자의 팽팽한 심리전을
통해 순도 100% 리얼 공포
를 선사하는 공포심리 스릴

러 연극 '흉터'.

· 연출/석봉준

· 출연/김동민, 김준래, 양시은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8월 22일(목)-9월 2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3:00, 6:30(9/19일 오후 5:00, 9/20일 오후 3:00,
6:30, 9/19일, 월요일 휴관)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4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콩나물 값 50원을 두고 실랑이
를 벌이는 아내 필레와 억척스러운 아줌마가 다 된 부
인이 부끄럽기만 한 남편 봉식, 콩나물 값 50원에서 시
작한 싸움은 급기야 이혼선언으로 치닫는데... 버럭쟁
이 바깥강반과 변덕쟁이 마누라가 펼치는 37년간 러브
스토리를 그린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 작, 연출/위성신

· 출연/하성민, 정지호, 김은주, 권혜영, 이경미, 조영임,
유성열, 김시권

미스터리 스릴러 연극 '몽타주'

8월 23일(금)-10월 2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
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범을 쫓기 위해 천재적인 몽타
주 화가로 성장한 서정민과 연쇄살인범 유희준, 연쇄살
인범으로부터 서정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력반 형사



조상철과 서정민의 친오빠 서정훈의 치밀한 추리게임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극 '몽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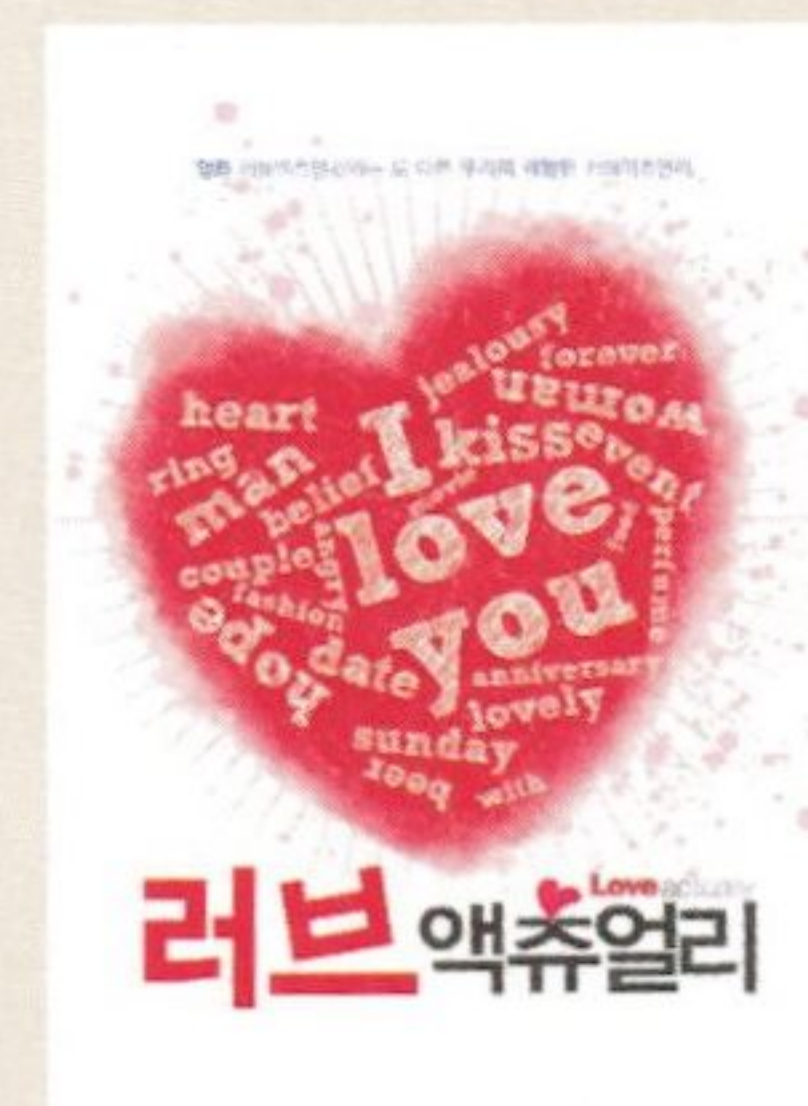
· 작, 연출/김세환

연극 '러브 액츄얼리'

9월 5일(목)-10월 6일(일) 평일 오후 5:00,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월요일, 9/19일 휴관)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푹푹하면서도 사랑스러운
100일 커플, 얼굴만 보면 싸
우는 권태기의 1,000일 커플,
친구인지 연인인지 아리송한
10년 커플을 통해 만남의 기
간에 따라 변하는 연인들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보여주
는 연극 '러브 액츄얼리'.

· 각색/함승희

· 공동연출/이성호, 박광복

NO.1 뮤지컬 '그리스' 부산공연

9월 6일 금요일 오후 8:00, 7일 토요일 오후 3:00,
7:00, 8일 일요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 7천원 · S석 6만 6천원
A석 5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2010년과 2011년 부산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한 NO.1
뮤지컬 '그리스' 2013년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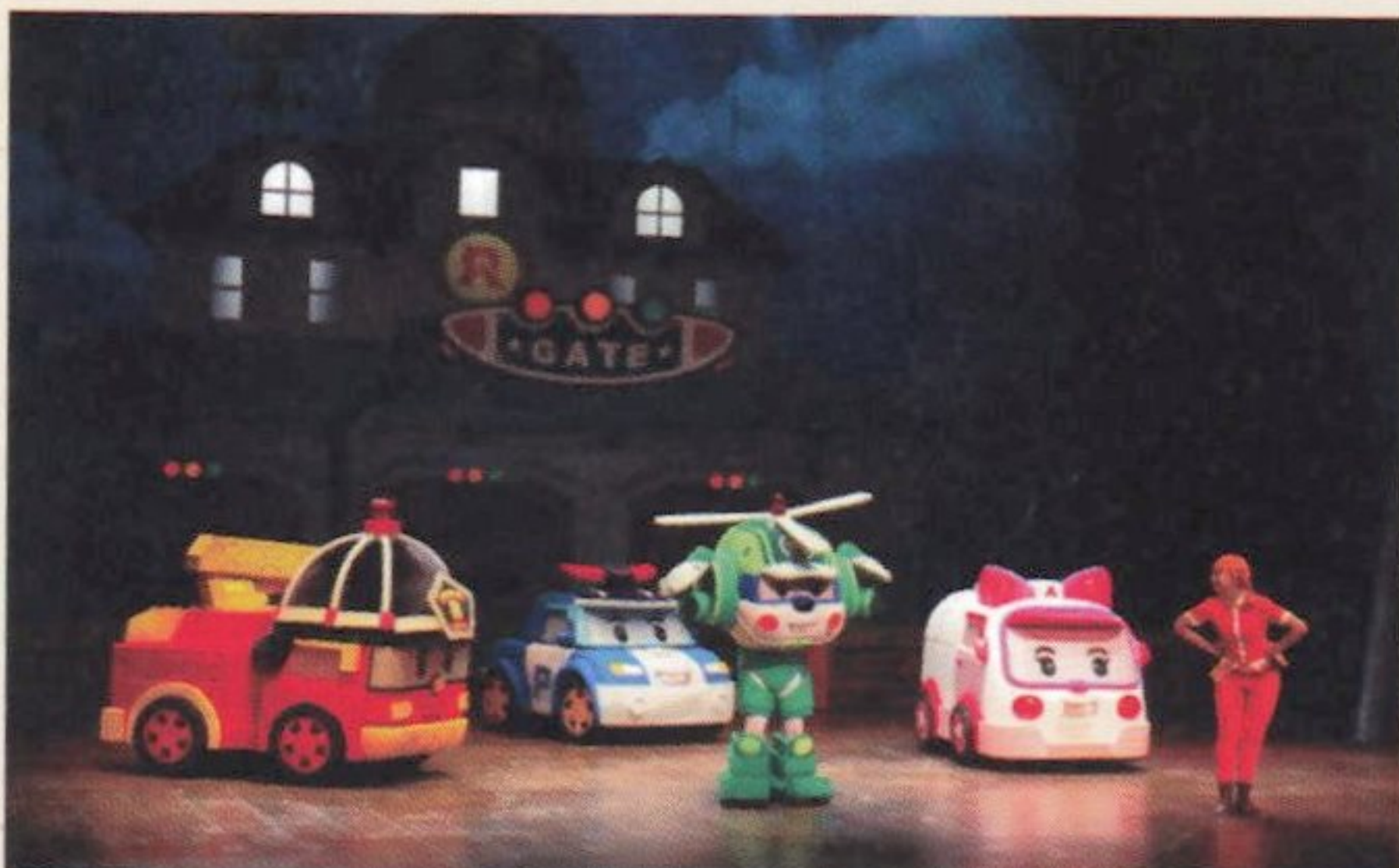
1972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지금까지 누구나 한번쯤은 겪었을 만한 10대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진솔한 스토리와 화려한 퍼포먼스, 흥겨운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 출연/정민, 강민수, 김보선, 윤준호, 이혁, 석재형, 김용규, 이지윤, 오승아 외

초특급 애니뮤지컬 '로보카폴리_새로운이야기'

9월 7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00, 8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MBC 롯데아트홀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예매시 4매까지 1만원 할인)

문의 | (주)문화CONG(1688-8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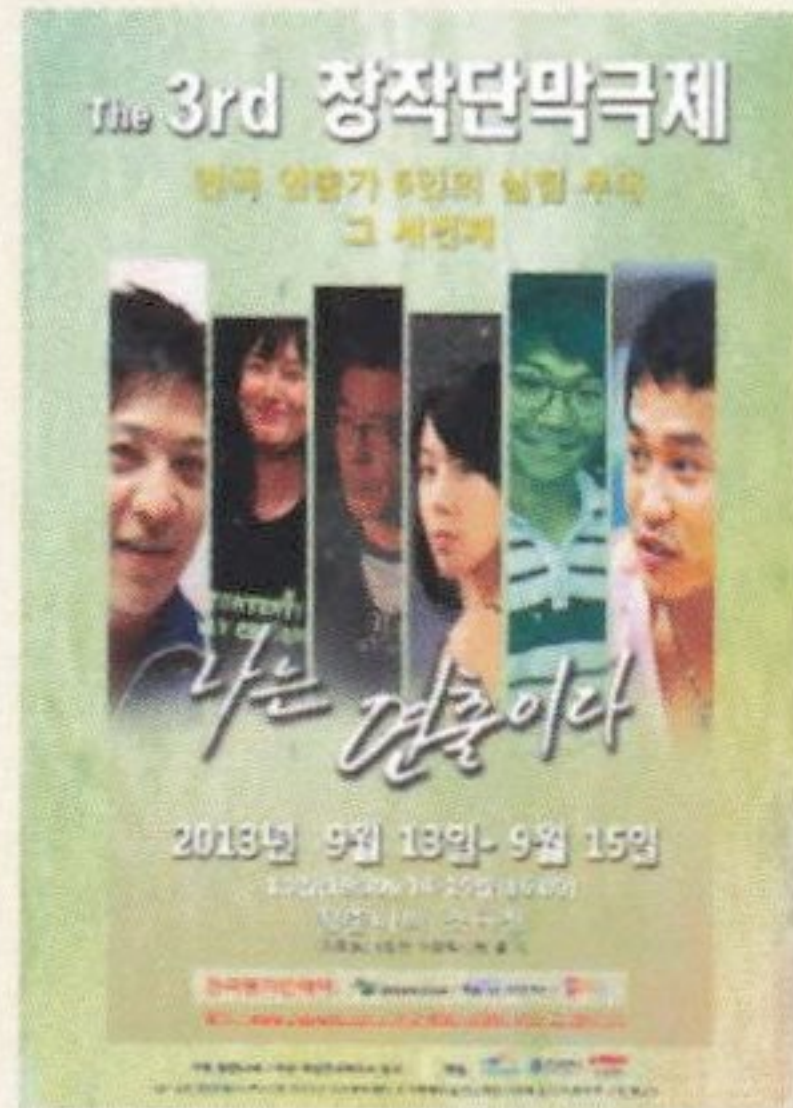


EBS교육방송 시청률 1위, 2012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캐릭터부문 대통령상 수상 등 대한민국 최고 캐릭터로 자리잡은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를 무대화한 애니뮤지컬 '로보카폴리_새로운이야기'.

국내 최초 움직이는 자동차들이 무대로 출동해 화제가 된 작품으로, 더 강력해진 폴리 구조대의 화려한 변신과 액션을 만날 수 있다.

제3회 창작 단막극제 나는 연출이다

9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14일-15일 토-일요일 오후 4:00 청춘나비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010-7178-7175)



극단 부두 대표 이성규, '운' 프로젝트 대표 오치운, 연출가 변자영, 극단 더블스테이지 대표 이동민, 박연정무용단 대표 박연정, 극단 끼리 대표 변진호 등 부산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출가 6명의 창작단막극

을 선보이는 '나는 연출이다' 2013년 무대. 관객평가단이 대중성, 창의성, 예술성 등 세가지 항목에 점수를 매겨 각 항목별 1위를 선정하는 특별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최현우 매직콘서트

'셜록홈즈 2-셜록홈즈의 귀환'

9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15일 일요일 오후 2:00,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6만 6천원 · S석 5만 5천원
A석 4만 4천원
문의 | (주)쇼플러스(1544-7543)



대한민국 매직쇼 사상 처음으로 심리를 이용해 상대방의 생각을 읽어내는 멘탈매직(Mental Magic)과 인체를 분리하거나 큰 물건을 사라지게 하는 일루전 매직(Illusion magic)을 결합시킨 최고의 매직쇼를 선보여온 마

술사 최현우의 매직콘서트. 지난해 큰 화제를 낳았던 매직쇼 '셜록홈즈'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더욱더 탄탄한 스토리와 최신 마술로 최고의 반전 드라마를 펼친다.

서툰사람들

9월 24일(화)-10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5:00, 일요일 오후 3:00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 대학생 2만 5천원
초중고생 2만원
문의 | 한결아트홀(1588-9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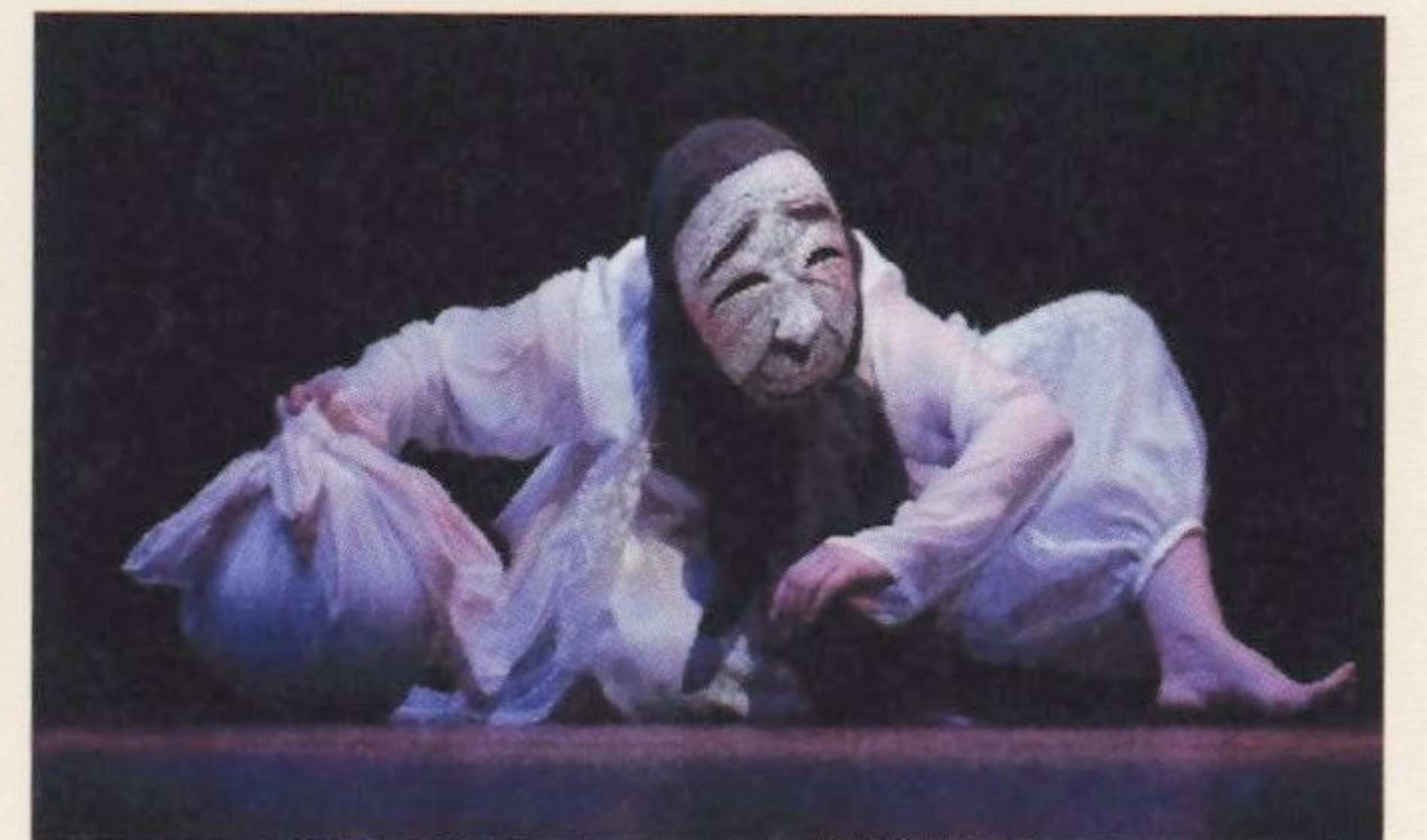
집주인과 도둑으로 만난 어설피고도 서툰 주인공들의 하룻밤 유쾌한 소동을 그린 연극 '서툰사람들'.

· 작/장진
· 연출/이윤주
· 출연/박정무, 권수민, 양승일, 임현준 외

Dance

댄스컴퍼니 미르 '2013 홀로아리랑'

9월 11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일반 2만원 · 대학생 1만 5천원
청소년 1만원
문의 | 댄스컴퍼니 미르(517-0470, 010-9317-3557)



댄스컴퍼니 미르 대표이자 원형춤연구회 부회장, 중요 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춤꾼 변지연이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보고인 어머니의 삶과 죽음을 그린 창작무 '홀로아리랑'.

여성의 소박한 일상을 통해 우리네 삶에 녹아있는 아리랑을 '지금 여기' 한국의 당대 춤으로 풀어낸다.

· 안무/변지연
· 연출, 대본/이민주

Concert

2013 딕펄스 콘서트 'Very Dickpunks'

9월 29일 일요일 오후 5: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7만 7천원 · S석 6만 6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주)WSM(1566-5490)

Event

시울림 시낭송회 저녁에 만나는 아름다운 시

9월 4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예강(010-5516-1867)



ZERO Festival 2013

'Beyond Zero'

9월 10일(화)-14일(토) **부산대학교 앞 대학로, 아지트,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 외**
 문 의 |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010-2812-1220, www.agit.or.kr)

다양한 청년 문화단체들과 문화공간이 연계해 펼쳐는 독립예술제인 'ZERO Festival 2013'.



무지크바움 테마가 있는 음악강좌

정전 60주년기념 임시수도 1000일, 부산의 노래

9월 14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1950년대 한국전쟁기, 수많은 피란민들의 수용지이자 임시수도로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중심지가 되었던 당시 부산에서 작곡되거나 부산을 소재로 한 음악작품을 통해 당대 일상적 삶으로서의 미시사를 이야기하는 테마가 있는 음악강좌.

· 진행/김창욱(부산시민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35회 시낭송회

9월 24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867-2569)

늦여름, 비, 한가위, 보름달 등 여름과 한가위를 소재로 열리는 시마당 제135회 시낭송회.

제79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콘서트

9월 26일 목요일 오후 4:00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시청각실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김옥균(010-6367-0149)

Gallery

청소년 신진작가 지원 프로젝트 이문호展 'INDEX'

7월 19일(금)-9월 9일(월) **토yota 포토 스페이스**
 문 의 | 토yota 포토 스페이스(731-6200)

세계팝업아트전-부산

7월 20일(토)-10월 13일(일) **월석아트홀**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9:30
 (입장마감 오후 8:30)
 입장료 | 일반 1만 2천원 · 청소년, 어린이 9천원
 문 의 | (주)KNN(1577-7600)

여름방학 특별체험전 '모래랑 빛이랑'

7월 26일(금)-9월 15일(일) **부산시민회관 한슬갤러리**
 문 의 | 부산시민회관(630-5200)

부산사진의 재발견 연계기획 '정정희, 장날 반추'展

8월 10일(토)-10월 30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제5회 KT&G 상상마당

한국 사진가 지원프로그램 선정작가전

사진 미래色 2013-박홍순, 이동근, 한경은

8월 10일(토)-10월 30일(수)
고은 컨템포러리 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 컨템포러리 사진미술관(744-3924)

풍경과 인물을 통해 현실적 문제에 천착하면서도 사진의 미학적성을 최대한 활용한 작가 박홍순, 이동근, 한경은의 작품을 소개한다.

제8회 작가지원展

8월 21일(수)-9월 9일(월)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점
 문 의 | 소울아트스페이스 해운대점(731-5878)

나탈리 레테 특별전 '비밀의 화원'

8월 21일(수)-9월 10일(화)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678_2610)



유럽과 미국, 일본을 오가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공예가로도 유명한 프랑스 작가 나탈리 레테 특별전 부산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매력적인 색채로 가득한 그의 유화작

품을 비롯해 판화와 아트상품들이 전시된다.

2013년 지역작가 전시 공모 당선전 주세균 '백화'

8월 23일(금)-9월 22일(일) **오픈스페이스 배**
 문 의 | 오픈스페이스 배(724-5201)

동래병원 도자기공예 기획전 희망을 빛는 사람들

9월 9일(월)-9월 16일(월) **갤러리 움**
 문 의 | 갤러리 움(557-3369)

치료활동을 위해 도자기공예를 배워온 동래병원 회원 및 가족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한 도자기공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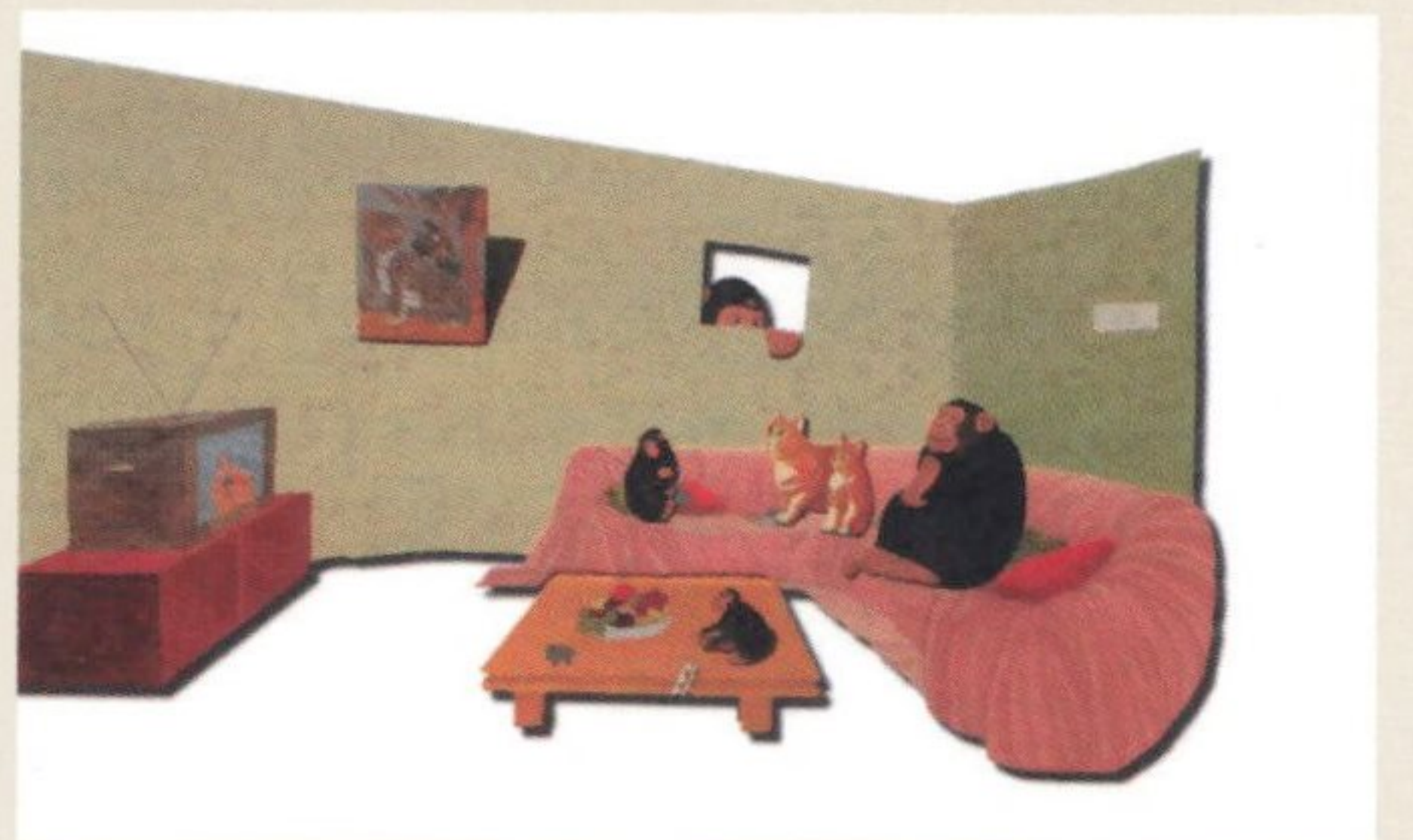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개관 기념 기획전

부산교육을 빛낸 중진, 원로작가 초대전

9월 10일(화)-9월 25일(수) **갤러리 예문**
 문 의 |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366-8114)

나인주, 박향미 2인전 '기억으로 넘기는 페이지'

9월 23일(월)-10월 19일(토) **갤러리 움**
 문 의 | 갤러리 움(557-3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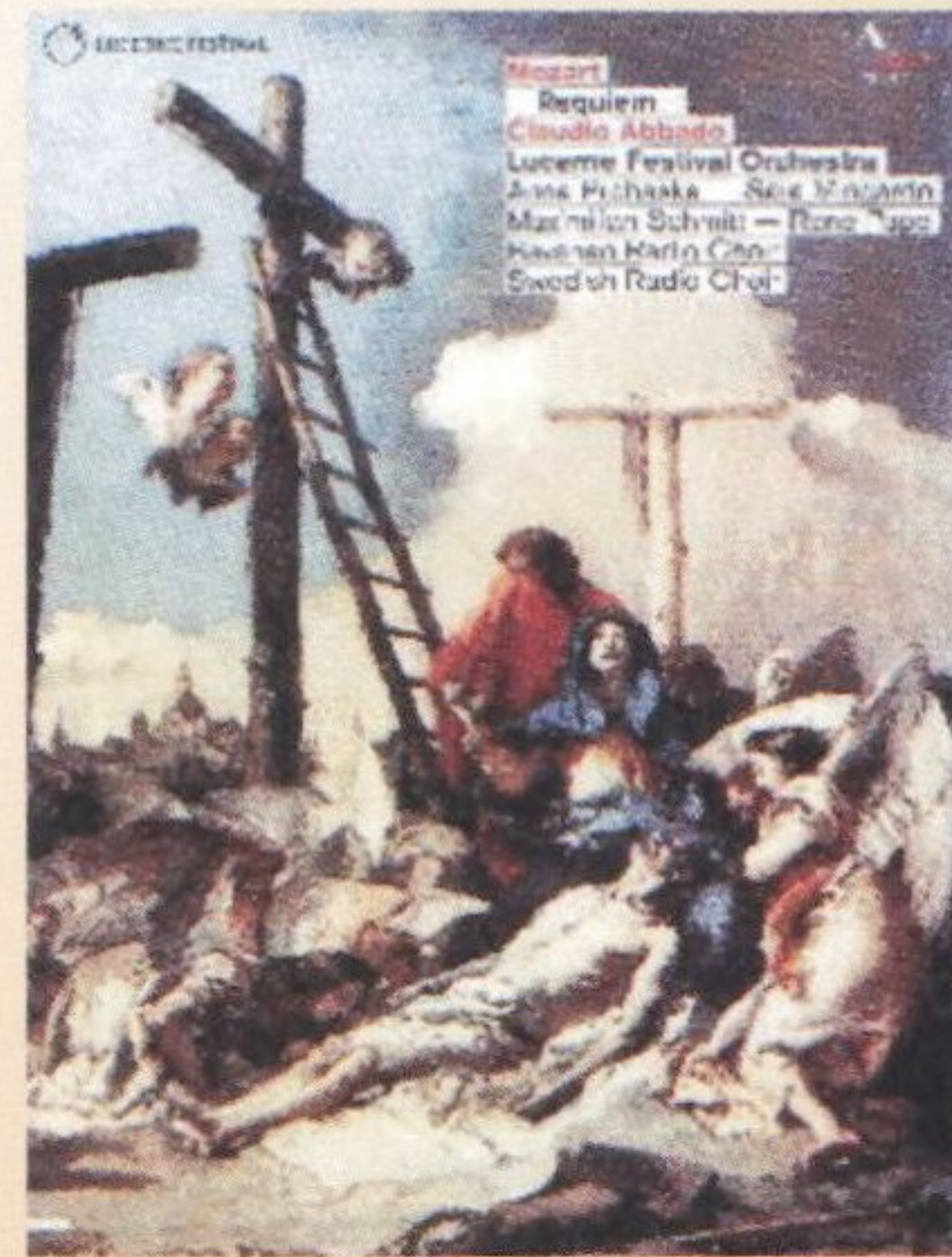
박향미 작 '어머니 세상에는'

2012년 루체른 페스티벌 실황(DVD)

모차르트: 레퀴엠 (바이어 에디션)

안나 프로하스카(Sop)/사라 밉가르도(Alt)/막시밀리안 슈미트(Te)/르네 파페(Bass)

클라우디오 아바도(지휘)/바이에른 방송합창단, 스웨덴 방송합창단/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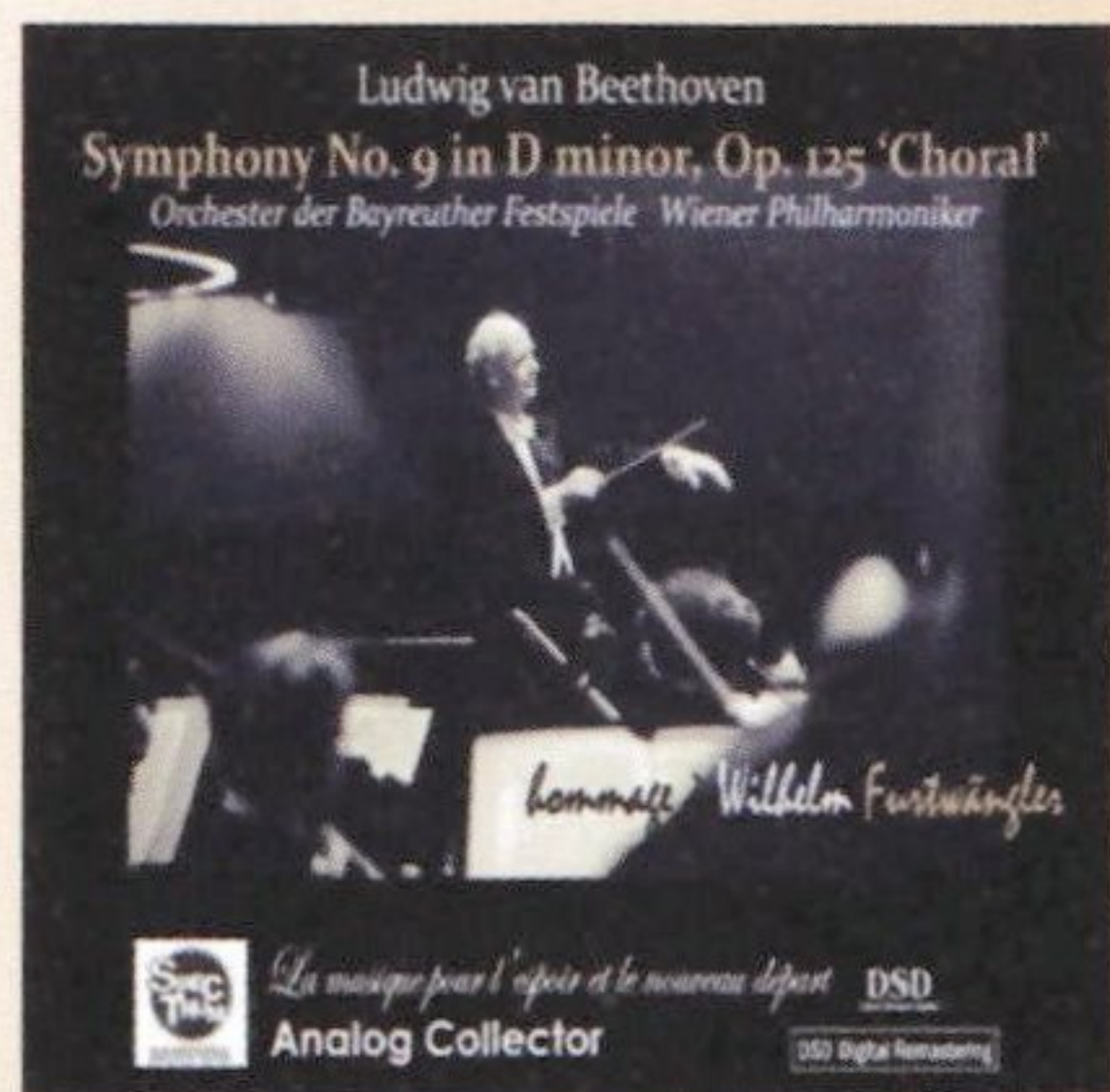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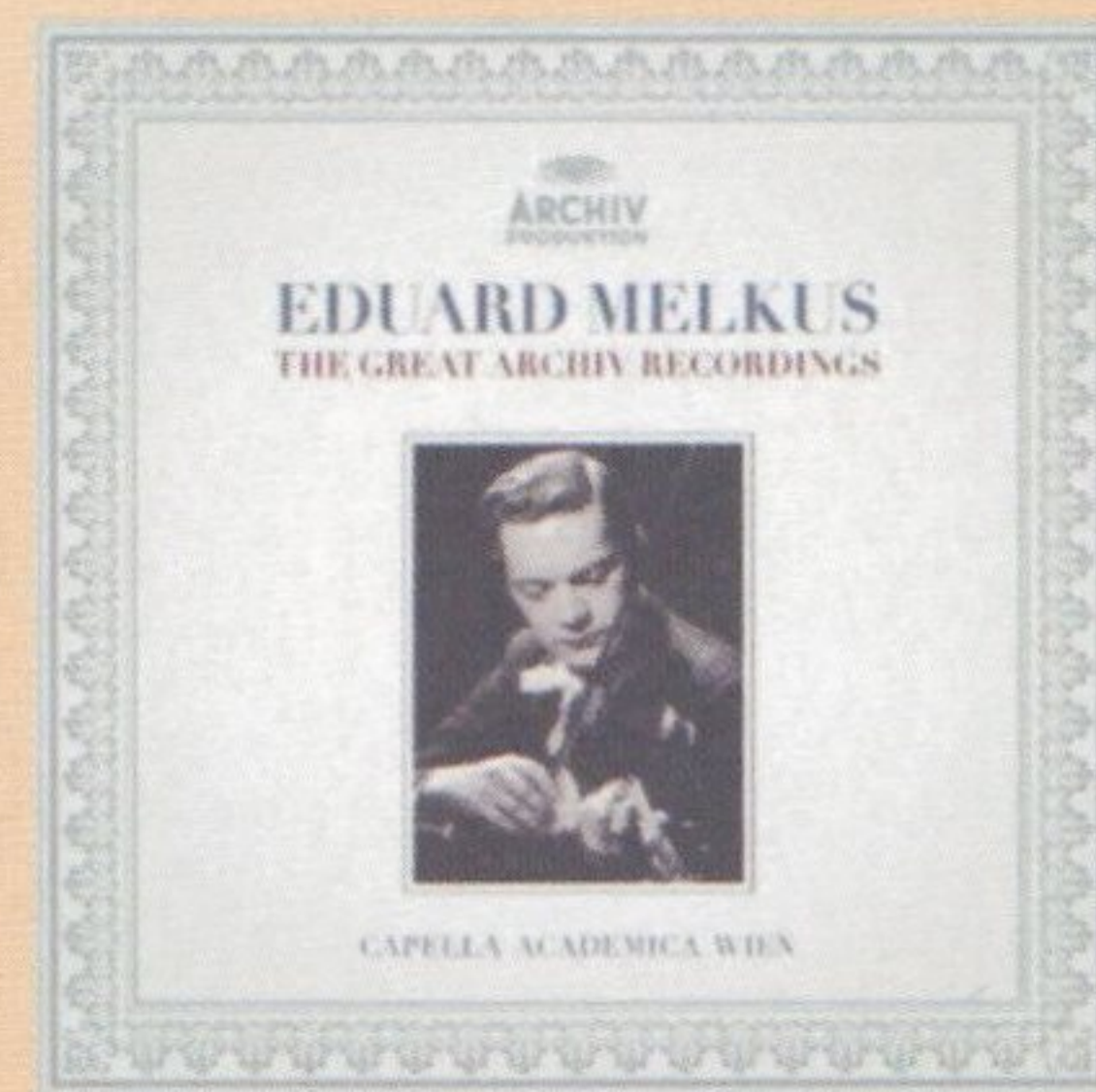
▶ 달관의 경지에 도달한 듯한 아바도의 모습만으로도 감동적인 영상물

위대한 마에스트로의 80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클래식 영상물의 새로운 명가 Accentus에서 그의 최근 모습을 담은 소중한 영상물을 출시하였다. 2012년 루체른 페스티벌에서의 실황이 그것으로,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담고 있다. 아바도의 모차르트 레퀴엠은 베를린 필과 함께 했던 1999년 잘츠부르크 대성당 콘서트실황 또한 영상물로 발매된 바 있는데, 두 영상물에 등장하는 아바도의 모습을 비교해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겪었던 13년 동안의 격랑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안나 프로하스카, 사라 밉가르도, 막시밀리안 슈미트, 르네 파페로 이어지는 정상급 솔리스트들의 안정된 가창과 바이에른 방송합창단과 스웨덴 방송합창단의 단원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빼어난 앙상블도 훌륭하지만, 달관의 경지에 오른 듯한 담담함 모습으로 이 걸작의 감동을 한 올 한 올 이어나가는 노거장의 모습만으로도 큰 감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는 프란츠 바이어의 판본을 선택했으며, 상투스는 로버트 레빈의 판본을 사용하였다.

에두아르트 멜쿠스 - Archiv 녹음 선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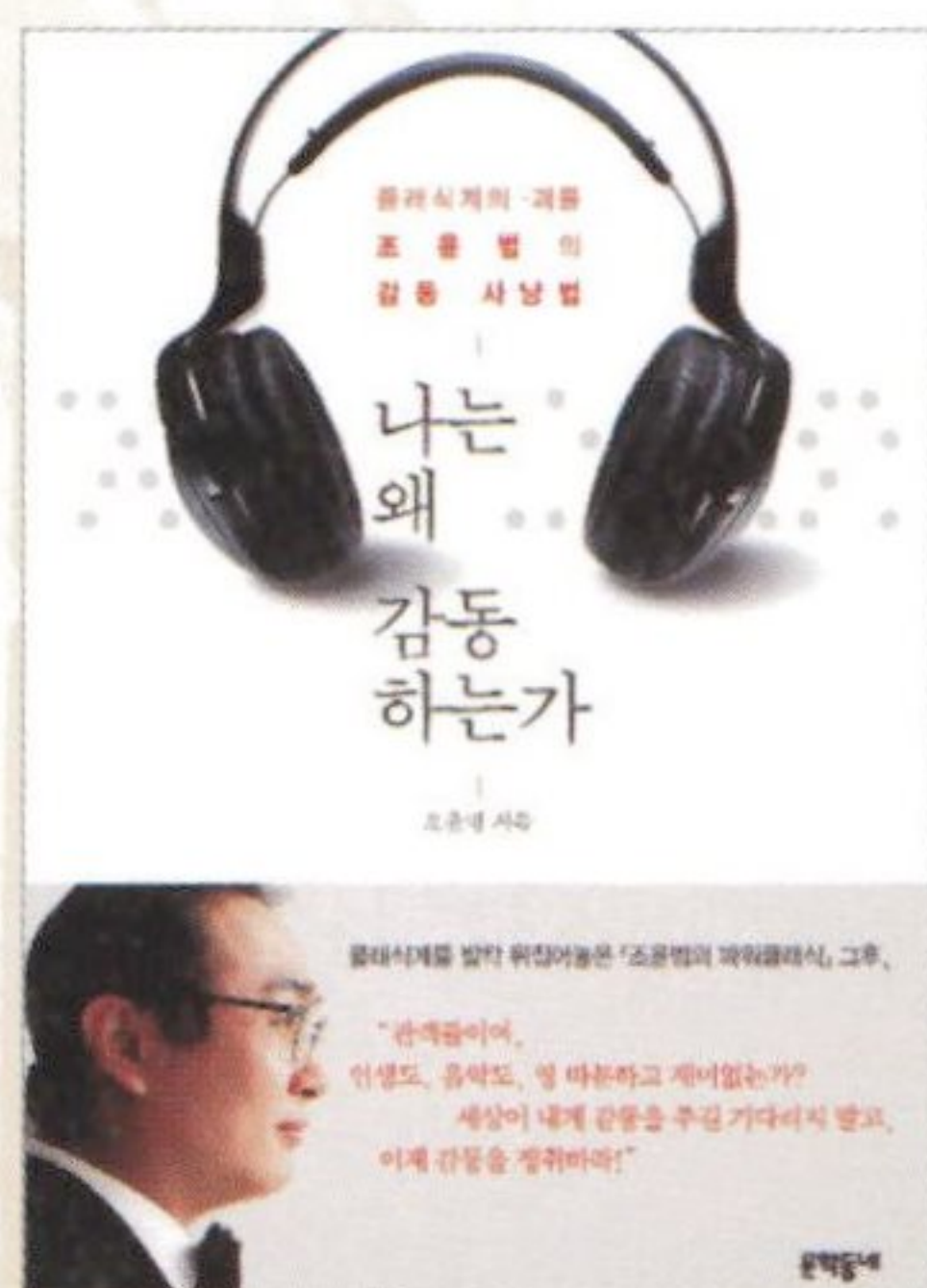
20세기 고음악 운동의 위대한 선구자 중 한 사람이었던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에두아르트 멜쿠스(Eduard Melkus)가 도이치 그라모폰의 고음악 전문 레이블인 아르히프 프로덕션(Archiv Produktion)에서 녹음한 중요 음원을 한 데 모은 기념비적인 선집이다. 지금까지도 부동의 명반으로 언급되고 있는 역사적인 비버 <로자리오> 소나타집과 코렐리 바이올린 소나타집(op.5)을 비롯해서 비탈리의 '사콘느', 타르티니의 '악마의 트릴', 위게트 드레퓌스와 함께 연주한 바흐 바이올린 소나타집, 아직까지도 CD화되지 않아서 많은 애호가들을 안타깝게 했던 헨델 바이올린 소나타집 등

멜쿠스의 모든 독주 녹음을 총망라했으며, 하인츠 홀리거와 함께 연주한 바흐의 '오보예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등 이제까지 정식으로 출간되지 않았던 미공개 녹음도 수록했다. 사실상 모든 음반이 현재 폐반된 상태이며, 전체 20장 중 절반 이상이 최초로 CD화 되었다는 점에서도 뜻 깊은 기획이다. 또한 에디션 출간을 기념하여 지난 6월에 빈에서 가졌던 멜쿠스와의 특별 인터뷰와 오리지널 LP에 실렸던 멜쿠스의 내지 해설을 모두 수록한 120페이지의 책자도 포함되어 있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젊은 날 빈에서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구스타프 레온하르트 등 친구들과 옛 음악을 탐구하던 의욕적인 시절과 아르히프 녹음에 얽힌 뒷이야기를 들려주는 인터뷰와 풍부한 사진 자료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마주 빌헬름 푸르트벵글러(4For2.5CD)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모음집(ADD/MO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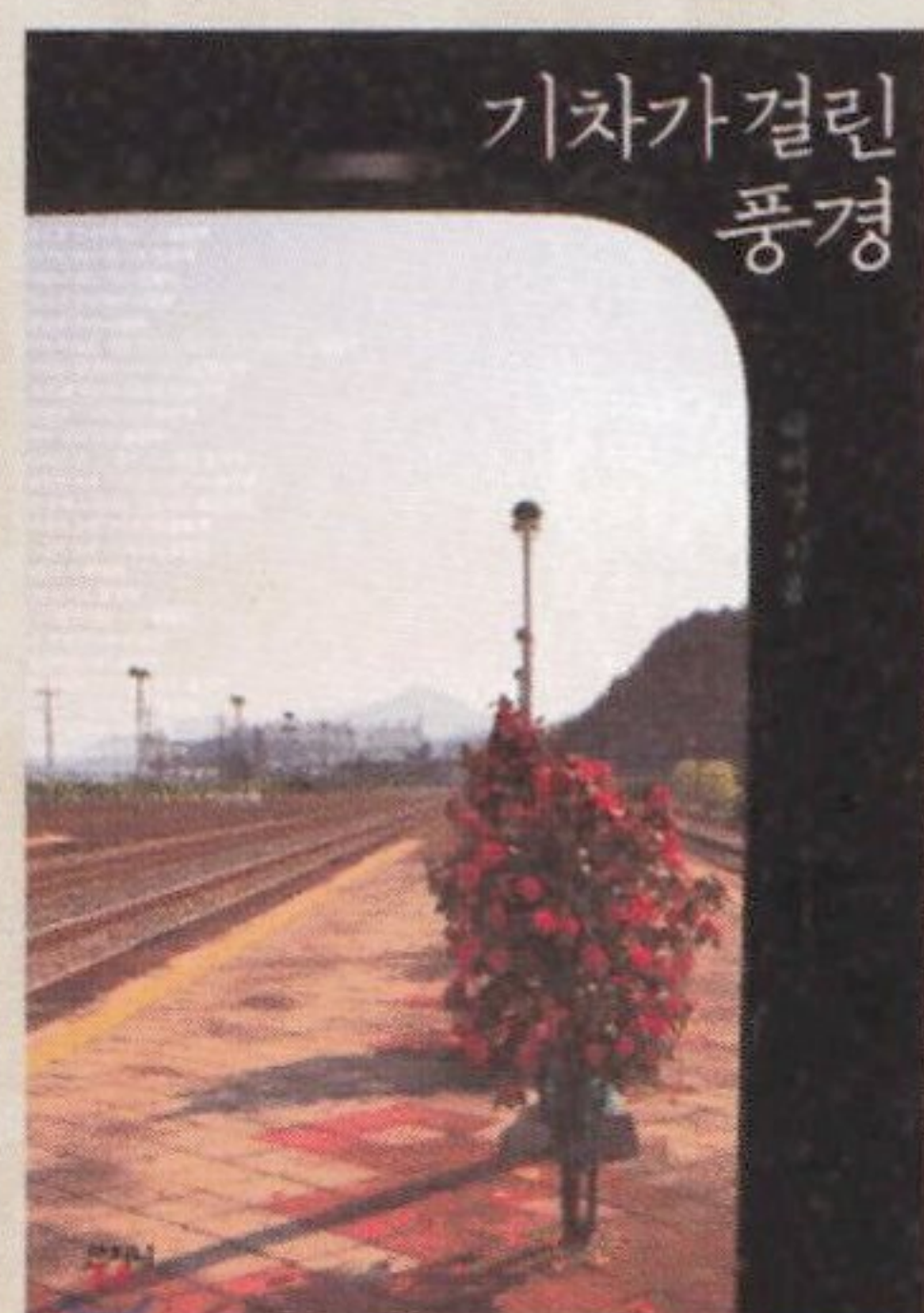
새로운 설명이 필요 없는 전설의 지휘자 푸르트벵글러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녹음 모음집. 3개의 각기 다른 연주(EMI 녹음으로 유명한 1951년 7월 29일 바이로이트 음악제 실황녹음, 1952년 2월 3일, 1953년 5월 31일 비엔나 필과의 녹음)를 복각하였다. EMI 음원은 영국 EMI HMV ALP 초반과 재반 LP들을 각각 복각하여, 구입하기 어려운 영국 초반과 재반의 음질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1952년 2월 3일의 음원은 독일 푸르트벵글러협회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복각된 것이며, 1953년의 녹음은 독일협회의 회원제 공용 LP를 다시 복각한 것으로, 기발매된 CDSM004 음반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하이엔드 오디오로 감상할 경우, 발생했던 고음역대의 디스토션을 개선하였다. LP 복각을 위해, EMI ALP 초반/재반 LP에는 고에츠 모노 카트리지를, 1953년 녹음의 독일 협회 LP에는 마이소닉랩 에미넌트 솔로 카트리지를 사용하였고, FM 어쿠스틱스의 이퀄라이저와 더불어 일본산 Azumino Mozart EQ+Pre Amp가 새로이 사용되었다.



나는 왜 감동하는가

조윤범 지음 / 문학동네 / 298p / 1만 6천원

현악사중주단 콰르텟엑스의 리더이자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강의와 책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클래식계의 괴물이 라는 별명을 얻은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이 감동하는 삶과 감동을 창조하는 법, 그리고 클래식음악의 비밀스럽고 압도적인 감동에 대한 새 책을 펴냈다. 조윤범은 특유의 유머러스한 입담과 번뜩이는 재치로 클래식음악의 청중과 독자들을 매혹한 파격과 도전의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다. <조윤범의 파워클래식>에서 불멸의 클래식음악을 남긴 역사적인 음악가들의 인생과 희로애락에 대해 썼던 그가 이번에 펴낸 책 <나는 왜 감동하는가>에서 집중적으로 파 고든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생활 속의 예술가'들이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술가로 산다는 것, 그리고 관객들은 전혀 몰랐던 오케스트라와 예술가의 사생활에서부터 어렵게만 생각했던 클래식에서 감동과 재미를 발굴하고 나아가 지지부진한 일상 속에서 감동을 쟁취해내는 법까지 조윤범이 생각하고 체험한 '감동'의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 있다. 그는 진짜 '감동'이란 무언가에 의해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동하는' 것이며, 따라서 수동적으로 감동을 기다리기보다는 감동을 '쟁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차가 걸린 풍경

나여경 지음 / 산지니 / 264p / 1만 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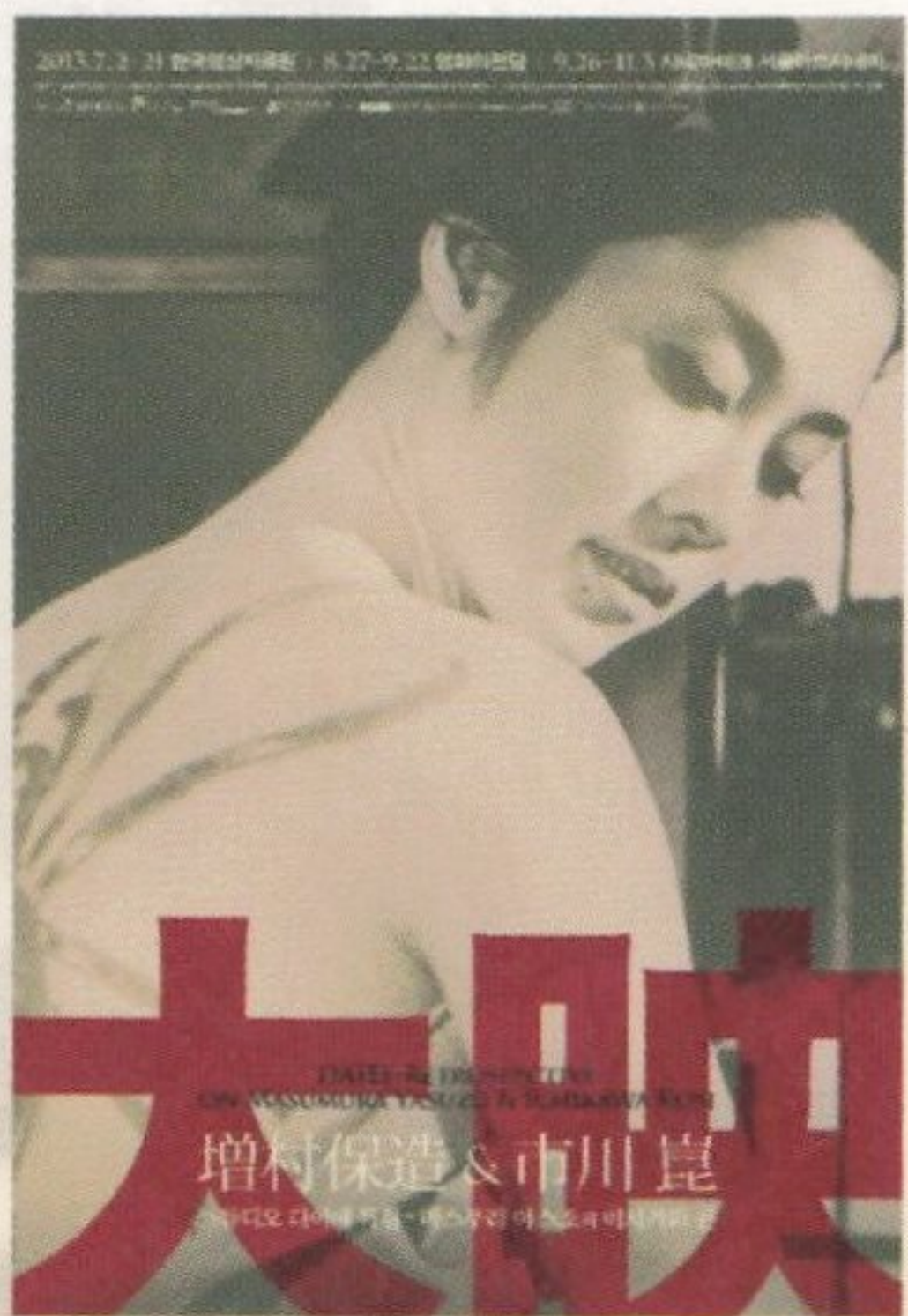
여행을 갈 때 목적지까지 논스톱으로 달려가기 위해, 여행지에서의 편리를 위해 승용차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 시절 전만 해도 '여행' 하면 기차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요즘처럼 여행과 교통 정보가 인터넷에 넘쳐나거나 여행관련 서적이 많이 출간되기 전에는 <열차시각표>라는 작은 책자가 꽤 인기가 있었다. 전국의 열차,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선박까지를 아우르는 시각표를 담고 있는 책자였다. 배낭 한 쪽에 이 책을 꽂고 길을 떠나면 든든한 가이드 한 명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KTX처럼 빠르지가 않았기에 기차 창 밖을 내다 보면 크고 작은 도시에서 넓은 들판과 높은 산, 맑은 강과 작은 마을도 볼 수 있었다. 어쩌다 아담하고 한적한 작은 간이역에 기차가 서면, 문득 내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부산의 소설가 나여경 씨가 인적이 드물어 간이역이 되었거나 폐역이 된 기차역들을 찾아 길을 떠났다. 지나간 추억을 어루만지며 웃음과 눈물, 만남과 이별을 간직하고 있는 기차역에서 작가는 특유의 섬세함과 내밀함으로 주변 풍경과 시간을 재해석한다. 이제는 발길이 끊겨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기차역마다 우리의 역사와 시간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일상을 바꾼 발명품의 매혹적인 이야기

위르겐 브뤼크 지음, 이미옥 옮김 / 예코리브르 / 388p / 2만 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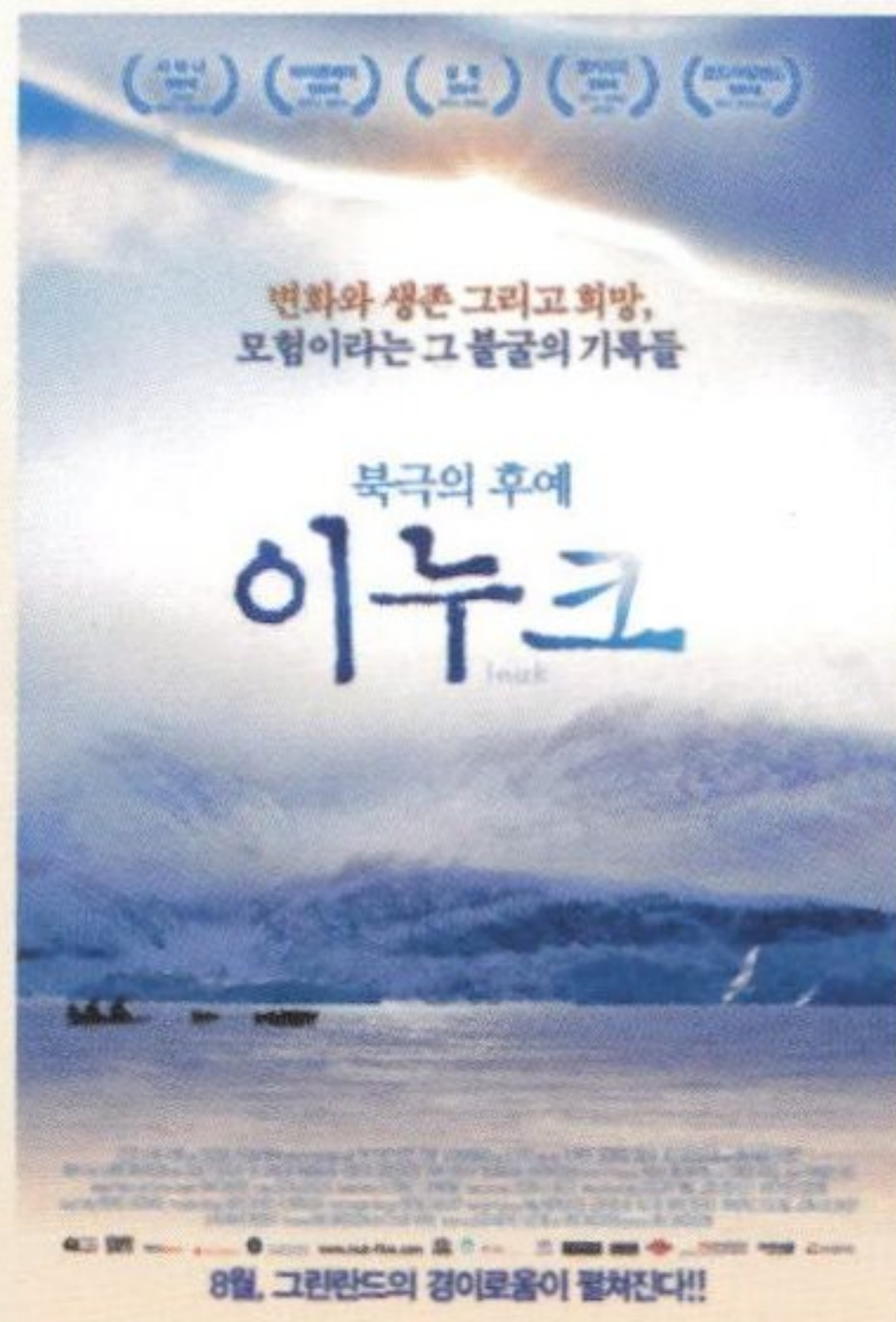
미국인 실버 골드먼(1898~1984)은 1937년 어느 날 자신이 운영하던 험프티-덤프티 슈퍼마켓에서 고객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날 고객들이 직접 들 수 있을 만큼의 물건만 구입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평소에 늘 보았던 장면이지만, 이날은 머리에 번개가 내려치는 듯 눈에 띄었던 것이다. 골드먼은 이 놀라운 사실을 뇌리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더 많은 물건을 사가게 할 수 있을까를 고심했던 골드먼은 바퀴 달린 접의자와 바구니를 만들어 자신의 슈퍼마켓에 비치했다. 처음에 고객들은 이 발명품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 편리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다니! 그러나 골드먼은 실망하지 않았다. 골드먼은 두 번째 공리를 냈다. 슈퍼마켓에서 바퀴달린 바구니를 밀고 다니는 사람을 고용한 것이다. 마침내 물건의 쓰임새를 알게 된 고객들은 그제서야 바퀴달린 바구니를 밀고 다녔다. 그리고 마음껏 물건을 담기 시작했다. 쇼핑카트가 발명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과 시스템은 우연히, 혹은 불편해서, 또 때로는 장난으로 시작된 발명품들이 많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건들의 발명에 얽힌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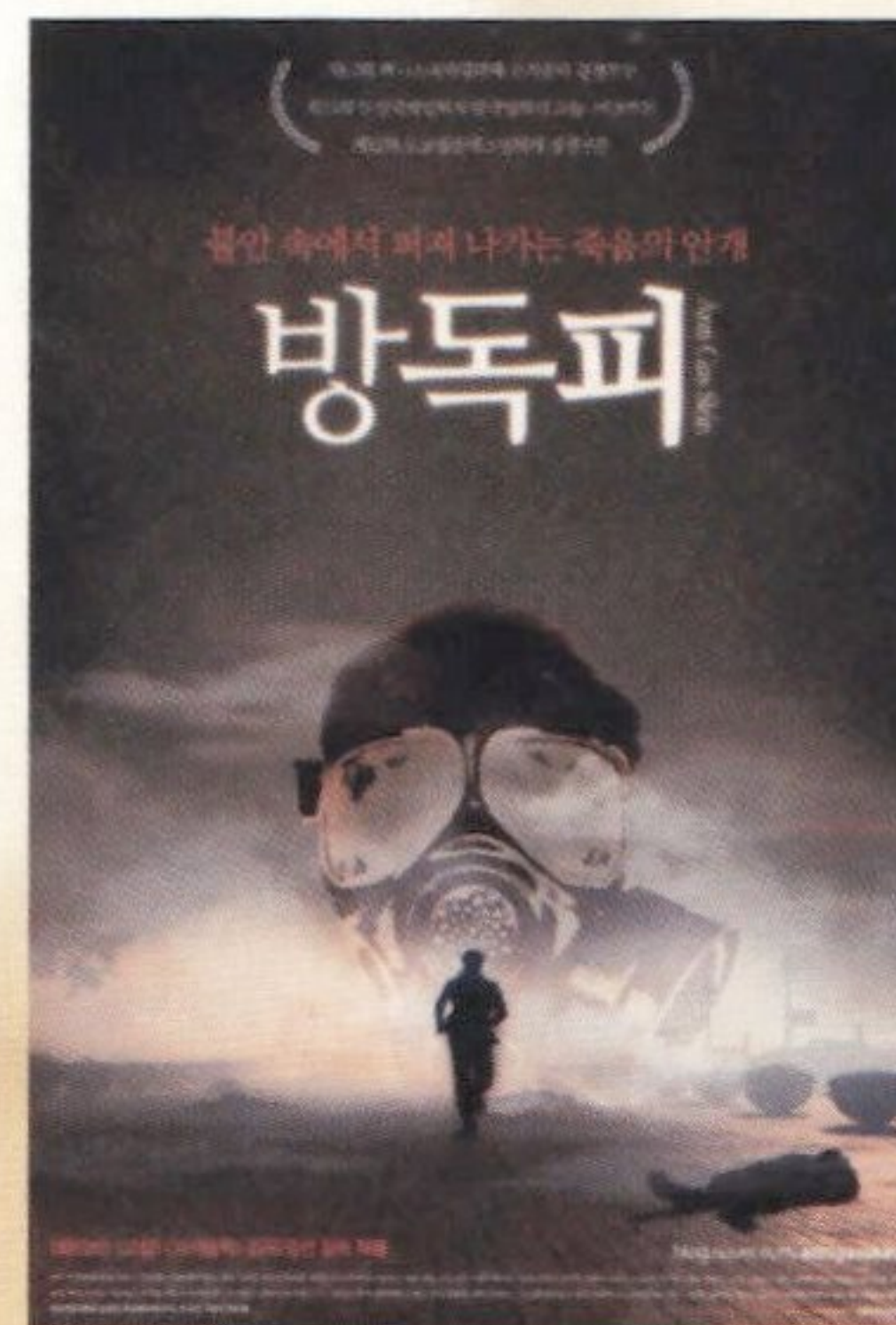
**전후(戰後) 일본 영화사의 새로운 물결
스튜디오 다이에 특집 :
마스무라 야스조와 이치카와 곤**
8월 27일(화)~9월 22일(일)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일본 영화의 황금기를 이끈 메이저 스튜디오 '스튜디오 다이에'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스튜디오 다이에 특집:마스무라 야스조와 이치카와 곤' 특별전이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에서 열린다. 일본의 대표 스튜디오인 '다이에'의 간판 감독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장 마스무라 야스조와 이치카와 곤 감독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1950년대 일본 영화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감독 마스무라 야스조는 유럽의 모던한 영상미와 일본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향을 독특하게 결합해 파격적인 영화 스타일을 선보인 감독으로, 동시대에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1990년대 들어 일본 누벨바그의 문을 열었다는 찬사를 받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또다른 감독인 이치카와 곤 감독은 대담하면서도 실험적인 영상 표현으로 195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감독이다. 일본 전통을 주제로 삼으면서도 장르와 형식을 넘나드는 실험적인 시도로 시대를 앞선 걸작들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이치카와 곤의 '처형의 방', '만원 전자', '남동생', '파계' 등 국내 처음 소개되는 작품을 포함해 그의 대표작 11편과 마스무라 야스조의 '아내는 고백한다', '문신' 등 대표작 19편까지 모두 30편이 상영된다. 특히 마스무라 야스조의 '흠친 욕정', '하나오카 세이슈의 아내', '섹스 체크'는 영화의전당 필름아카이브를 통해 부산에서만 단독으로 선보인다. 상세한 일정과 상영작은 영화의전당 홈페이지(www.dureraum.org)에서 확인.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그린란드 영화
'북극의 후에 이누크'**
8월 29일 개봉, CGV서면

총 1,000km의 얼음대륙과 평균 영하 30도의 극한 환경 속 낮은 북극의 광활한 대 자연이 스크린 속에 펼쳐진다.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그린란드의 영화 '북극의 후에 이누크'는 그린란드의 배경과 현대 이누이트족의 모습을 사실적이고도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세계 유일의 에스키모 자치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린란드의 원주민들은 바다표범을 비롯한 고래와 해마 등을 사냥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영화는 폭력적인 계부와 알코올 중독인 어머니 사이에서 방황하는 16세 에스키모 소년 이누크의 힘겹지만, 감동적인 성장기를 담고 있다. 방황하는 16세 소년 이누크는 보육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곳에서 사냥꾼 이쿠마를 만나 함께 바다표범 사냥을 떠난 이누크는 혹독한 추위와 외로운 빙하지대에서 잠재되어 있던 에스키모 후예의 본능을 깨닫게 된다. 영화 '북극의 후에 이누크'를 감독한 마이크 매기슨 감독은 에스키모인들의 고뇌와 그들의 자아를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 에스키모의 후예들을 직접 출연시켜 다큐멘터리를 뛰어넘는 극도의 리얼리즘을 완성했다. 이누크역을 맡은 가바 페테르센은 실제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이며, 사냥꾼 이쿠마역을 맡은 올레 예르겐 함메켄 역시 실제 그린란드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이자 사냥꾼이다. '북극의 후에 이누크'는 사바나영화제를 비롯 바이론베이영화제, 샬롯영화제, 앵커리지영화제, 로드아일랜드영화제에서 최우수영화상을 수상했다.



**'문제적' 형제 감독
김곡, 김선 감독의 신작 '방독피'**
8월 22일 개봉, 부산국도예술관

제67회 베니스영화제에서 실험적이고 새로운 경향의 작품을 선보이는 오리종티 부문에 초청돼 '미학적인 급진성과 정치적인 대범함을 겸비한, 그 불길함이 오래 기억될 한국독립영화의 걸작'이라 호평받은 영화 '방독피'는 만든 영화마다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문제적' 형제 감독 김곡, 김선 감독의 신작영화이다. 방독면을 쓴 연쇄살인범이 활개치고 다니는 도시를 배경으로, 악의와 독기로 가득 찬 사회 속에서 연쇄살인범을 잡으려는 주치요원과 연쇄살인범에게 죽고 싶은 늑대소년, 연쇄살인범에게 복수하고 싶은 미군병사, 그리고 연쇄살인범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서울시장 후보의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그린 스릴러물인 '방독피'는 김선, 김곡 감독이 바라보는 우리 '현실' 세계를 상징적 이면서도 초현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쌍둥이 감독 김곡, 김선 감독은 2001년 영화 '이 사람을 보라'로 데뷔한 이후 모든 작품을 공동 연출하고 있다. 그들이 지난 2008년 연출한 영화 '고갈'은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이후 편집 수정작업을 거쳐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2011년 영화 '자가당착시대정신과 현실참여'는 편집 수정을 거치지 않은 채 두 차례의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기도 했다. 영화 '방독피'는 제67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오리종티 경쟁부문 외에도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비전부문, 제12회 도쿄필름엑스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바 있다. 9월 5일에는 부산국도예술관에서 관객과의 만남을 갖는다.



제13기 박물관대학 수강생 모집

부산박물관이 마련하는 제13기 박물관대학 '한국 서예의 이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시문서화를 비롯해 방촌의 우주라 불리는 전각과 금석학 등 서예의 다양한 분야를 예술, 학문, 사상적 측면에서 접근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9월 5일 춘천교육대학교 윤리학과 조민환 교수의 '서예의 이해와 감상', 동북아역사재단 고광의 씨의 '삼국~고려시대의 서예'를 시작으로 9월 12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미술사학과 이완우 교수의 '조선전기의 서예', '조선후기의 서예', 9월 26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연구실 유지복 씨의 '초서체의 유행', 부산대학교 한글서체연구회 허경무 회장의 '조선시대의 한글서체', 10월 10일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이동국 선생의 '조선말기 금석학의 유행과 서예-비첩(碑帖)혼용과 추사체(秋史體)에 대하여', '20세기 근현대 한국서예의 흐름과 특질', 그리고 마지막날인 10월 17일 원광대학교 서예문자예술학과 이승연 교수의 '전각의 이해', 동덕여자대학교 회화과 이승철 교수의 '우리 종이' 등 총 10개 강좌가 펼쳐진다. 8월 30일까지 부산박물관 홈페이지(museum.busan.kr)에 선착순으로 200명 접수받으며,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수강료는 무료. 문의는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실(610-7144).



2013 지역에서 잡지만들기

부산문화예술잡지 <함께가는 예술인>이 주관하는 '지역에서 잡지 만들기' 강좌가 9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보수동책방골목 문화관에서 열린다. 재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강좌는 잡지 기획에서부터 콘텐츠 제작, 그리고 홍보 마케팅까지 잡지 제작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담고 있다. 9월 5일 첫 번째 강좌에서는 <잡지기자 클리닉>의 저자이자 잡지교육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김관식 씨가 인터뷰의 섭외에서 원고작성까지 현장에서 직접 쌓은 비법을 전수한다. 12일 두 번째 강좌에서는 독립잡지 <싱글레어> 편집장인 김용진 씨가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잡지를 만들기 위한 잡지 기획의 노하우를 전수하며, 26일 세 번째 강좌에서는 현재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 홍보팀에서 활동하는 이지숙 팀장이 잡지 홍보에서부터 구독자 모집 및 광고 섭외까지 자신이 만든 잡지를 알리는 방법을 알려준다. 마지막 강좌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수원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독립잡지 <사이다>를 방문해 현장 실무를 배우는 배우는 워크숍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을 제외한 세차례 강좌는 무료이며 강좌 시작일인 5일 전까지 cafe.naver.com/barsang21에 접속해 참가신청서를 받은 후 메일(pagtogether@daum.net)로 신청서를 보내면 참석 가능하다.

부산시민대학 특별강좌

깊이 있는 주제와 강의를 선보이는 '인문학의 향기, 오늘을 사는 지혜' 부산시민대학이 9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해운대문화회관 3층 회의실에서 펼쳐진다. 주말을 제외한 매일 요일별로 다른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월요일에는 역사연구가 정형진 교수가 역사 유물에 들어있는 문화코드가 가지고 있는 상징의미를 통해 초기 한국사의 흐름을 이해해보는 '고대사의 비밀: 10개의 문화코드', 화요일에는 영산대학교 신원봉 교수가 '주역'에 나타난 다양한 인간사와 독특한 서술형식을 이해해보는 '주역(2)', 수요일은 철학박사 박민수 교수가 서양철학의 본격적 태동을 알리는 플라톤, 근대 주관철학의 시작을 선포하는 데카르트, 철학의 현대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니체를 중심으로 서양철학의 흐름을 알아보는 '서양철학의 세 가지 전환점: 플라톤, 데카르트, 니체', 목요일은 문학평론가 권택우 교수가 예술의 영원한 주제인 '에로스'와 '타나토스'를 통해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성을 조명해보는 '시를 보는 세 개의 창: 사랑, 죽음, 성', 그리고 금요일에는 인문학자 배병삼 교수가 '논어' 원문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기며 읽고, 현재의 우리말로 해설한 '논어(2)' 강좌가 펼쳐진다. 수강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각 강좌당 수강료는 6만원이다. 문의는 부산시민대학(620-7300).



제8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이라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가 어느새 8회를 맞았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국제행사라 방학 때마다 빠지지 않고 행사장을 찾았다. 올해는 다른 일정 때문에 개막영화만 관람해 조금은 서운하지만 잠시라도 영화를 통해 다른나라 정서를 경험하고 즐거운 아이의 모습만으로도 행복해진다.

박은주(해운대구 우동)



부산시립합창단 써머판타지

음악회 감상이라는 여름방학 숙제 때문에 처음으로 음악회장을 찾았다. 어쩔 수 없이 찾았던 공연장이지만 클래식 음악을 전공해서 근엄할것 같았던 선생님들이 흥에 겨워 노래하는 의외의 모습에 정말 놀랐다. 내년에는 10대들을 위한 레퍼토리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김민서(연제구 거제4동)



부산시립교향악단 '금난새와 함께 하는 클래식은 내 친구'

큰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클래식은 내친구' 공연은 어느새 매년 여름방학 우리가족의 연례행사가 되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금난새 선생님의 재미있는 해설을 들으며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속으로 빠져들었다. 딱딱한 클래식의 경계를 허문 재미있는 클래식 세상,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다.

정현미(사하구 하단동)



뮤지컬 '그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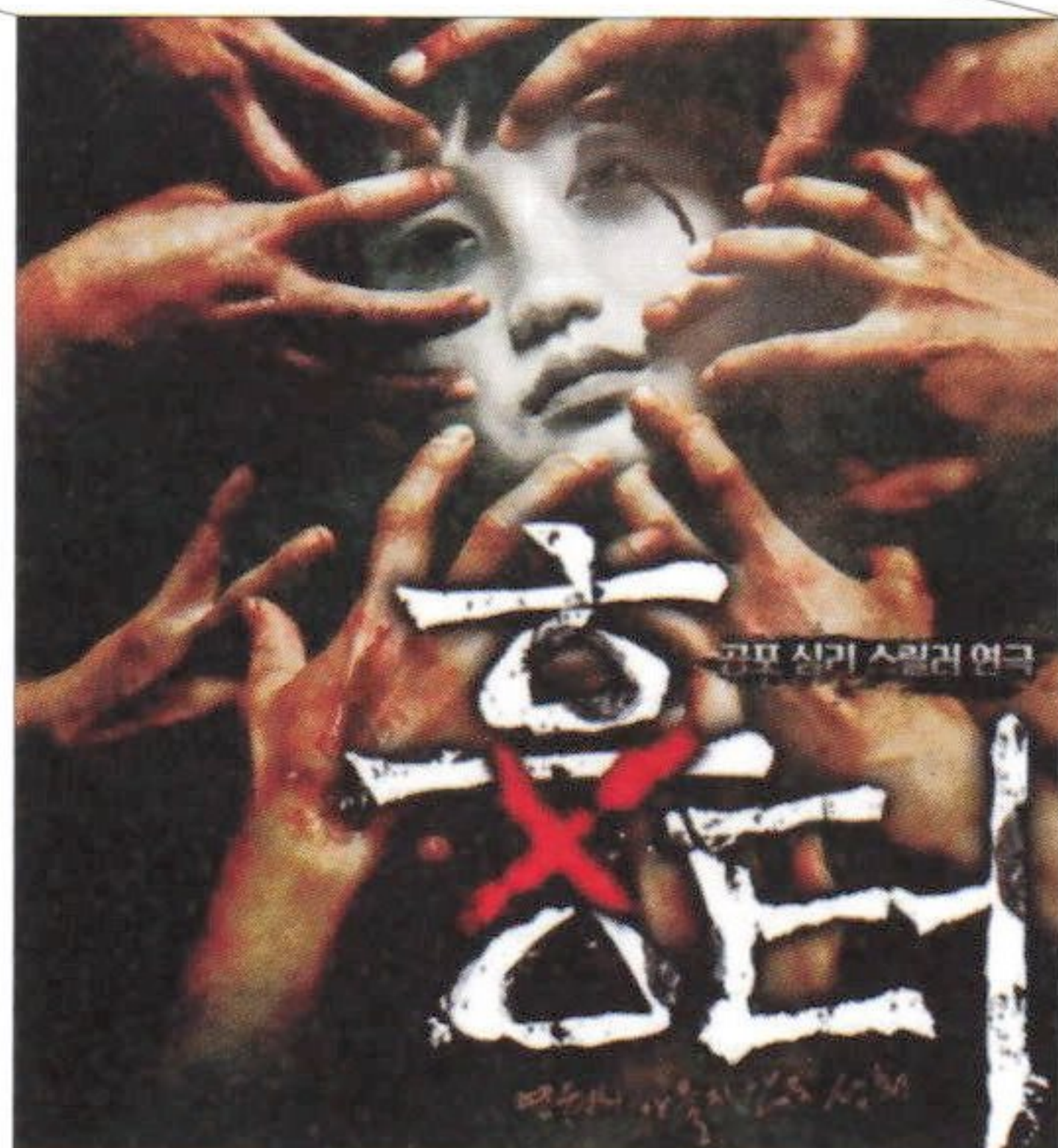
故 김광석의 노래를 담은 대형 창작 뮤지컬 '그날들'. 뮤지컬 어워즈 시상식을 보면서 정말 보고 싶었던 작품이었는데 부산에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일찌감치 예매를 하고 '그날들'을 손꼽아 기다렸다. 공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한시도 눈을 떼수 없는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에 절로 힐링되었다.

박은정(금정구 장전동)

오감 스릴러공포연극 '흉터'

어느 날 강렬하고도 섬뜩한 '흉터'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무더운 여름의 무료함을 잊기 위해 친구와 공연장으로 향했다. 흉터는 대학교 친구였던 동훈, 재용, 지은의 이야기를 치밀한 구성으로 엮은 공포연극으로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한다. 소름끼치는 반전, 오싹한 전율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다.

백지은(사하구 당리동)



공연후기 '100자 토크'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 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시신분을 선정하여 **공간소극장 초대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보내실곳 bsculture@naver.com
 마 감 수시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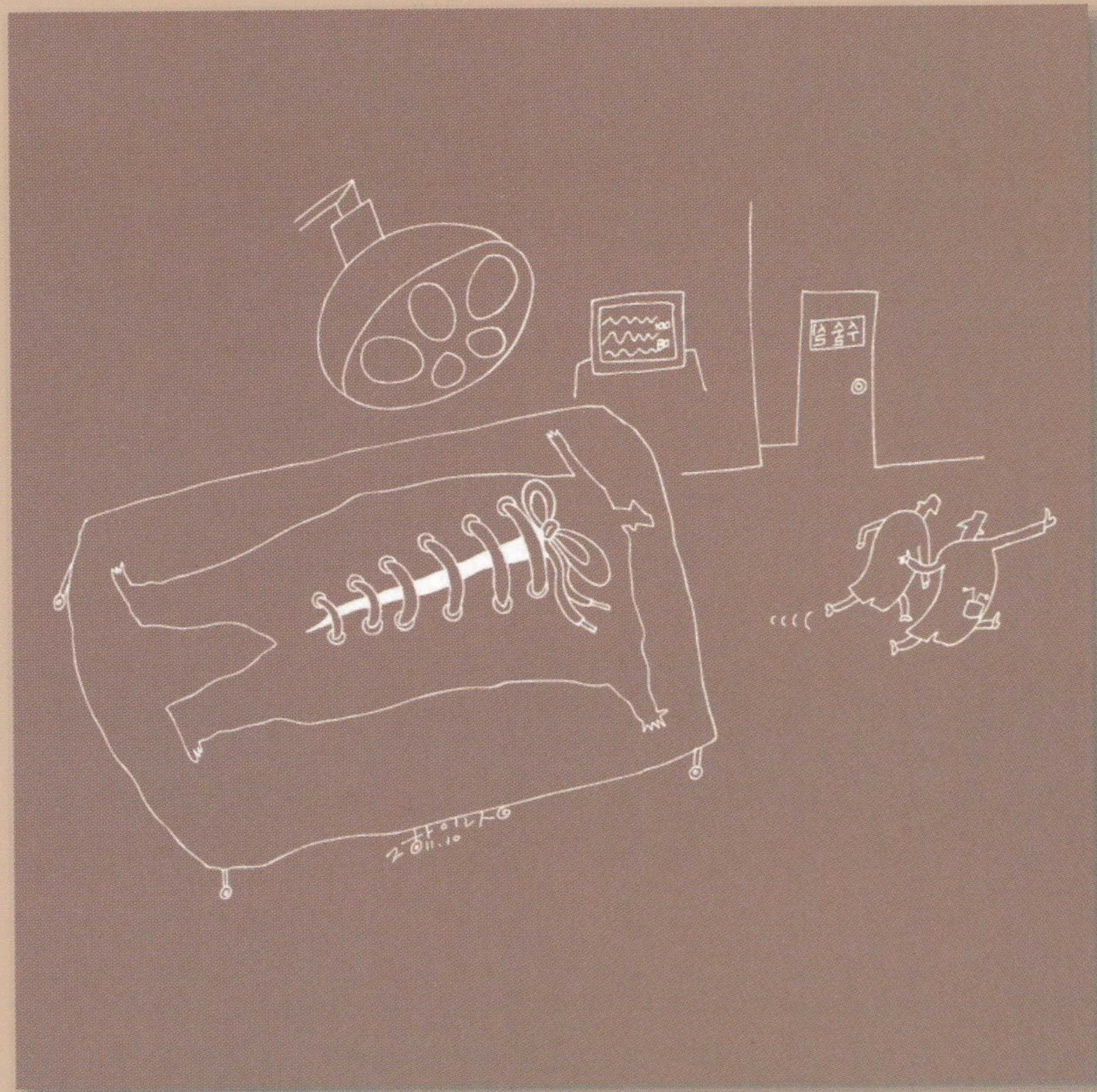
하인상의
생각그림

Metaphortoon

Good job!

“수고했어요”, “참 잘했어요”라는 말은 우리를 춤추게 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격려와 칭찬의 말을 들으면 또 다른 힘이 나는 게 언제나 신기하다. 이번 여름을 무사히 지내고 있는 모든 이에게 “참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주고 싶다.

메타포투니스트 · 시인



부산문화회관 제7기 문화대학 개강

9월 4일-11월 6일 매주 수요일 총 8회

부산문화의 메카인 부산문화회관에서 문화 예술교육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계발과 문화예술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문화대학 7기 강좌가 9월 4일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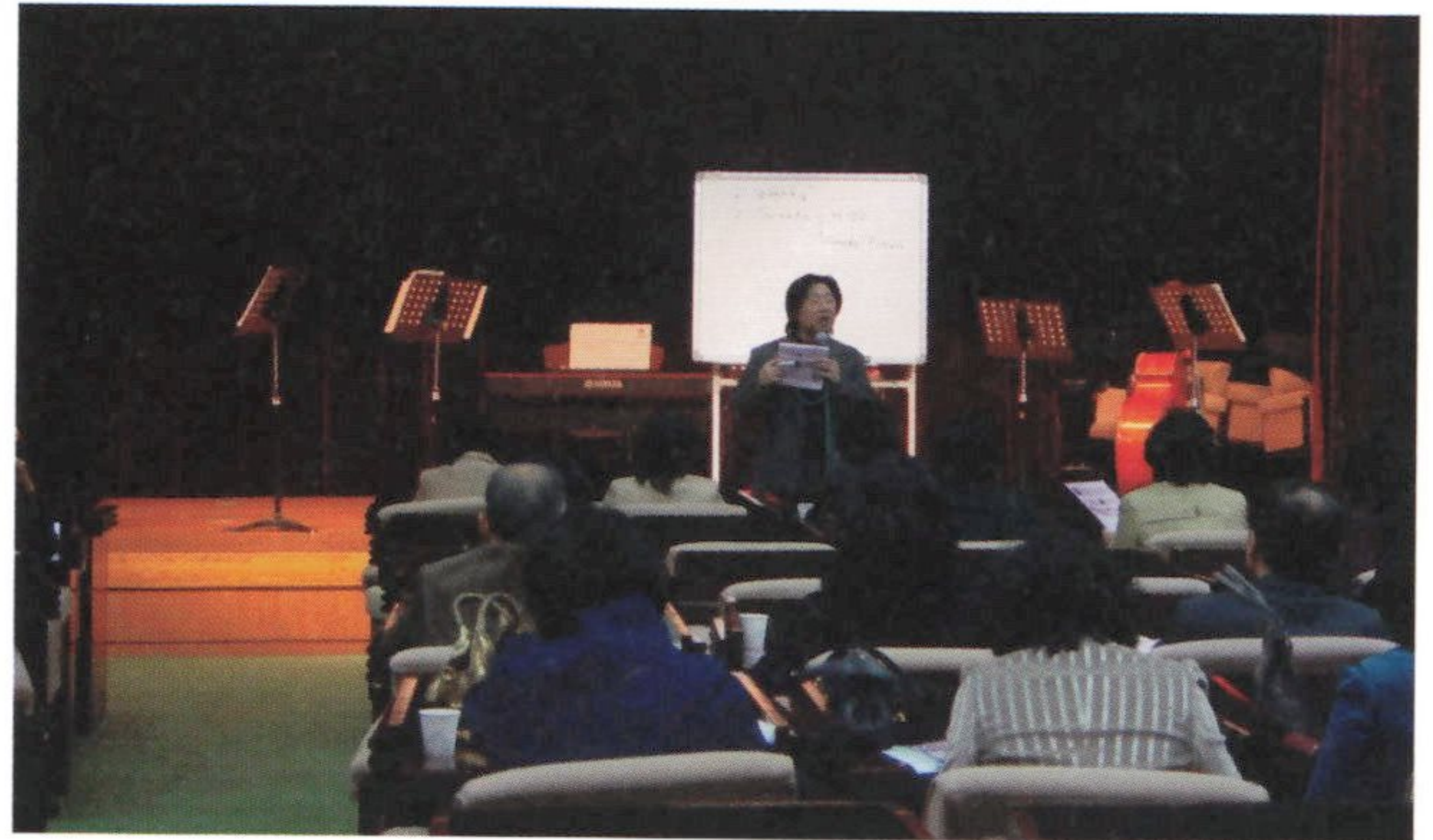
올해는 그동안 전 예술장르에 걸쳐 진행된 강좌 커리큘럼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무대 예술의 결정체 '오페라'를 테마로 오페라 역사와 오페라 제작 과정의 이해를 돕고 오페라 감상에 도움을 주기위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8월 19일부터 진행된 접수 첫날부터 수강 희망자들이 모여 100명의 수강 정원을 쉽게 초과, 8월 30일 접수 마감을 앞두고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좌는 11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강좌일정

- 1주 9. 4(수) 김완준(계명대 교수) 왜 오페라 하우스인가?
- 2주 9. 11(수) 김유섬(창원대 교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 '비올레타의 사랑과 인생'
- 3주 9. 25(수) 이소영(솔 오페라단 단장) 세계 오페라극장과 오페라 제작과정

- 4주 10. 2(수) 이동신(부산시향 부지휘자) 오페라의 역사
- 5주 10. 16(수) 김익준(국립오페라단 단장) 국립오페라단 운영을 중심으로 한 오페라이야기
- 6주 10. 23(수) 이용숙(오페라 해설가) 쉽고 재미있는 오페라 감상법
- 7주 10. 30(수) 김홍승(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한국 오페라의 발전 방향
- 8주 11. 6(수) 김덕기(서울대오페라연구소장) 탄생 200주년 베르디&바그너 · 문의_ 부산문화회관(607-6057)



9월 찾아가는 예술단

문화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9월에도 계속 이어진다.

9월에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부산정신병원 환우를 위한 음악회'를 비롯하여 내사랑 부산 공연,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등 6회의 공연이 펼쳐진다.

문의_ 부산문화회관(607-6046)

9월 4일(수)	14:00	부산정신병원	교향악단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부산정신병원 환우를 위한 음악회'
9월 5일(목)	14:00	부산대학병원	국악관현악단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문화예술 나눔의 장'
9월 6일(금)	19:00	광안1동 썬지공원	교향악단	내사랑 부산 공연 '우리마을 사랑 숲속 음악회'
9월 11일(수)	12:30	부산광역시청 1층 로비	교향악단	내사랑 부산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
9월 12일(목)	19:30	다누리센터 대강당	무용단	내사랑 부산 공연 '시립무용단 찾아가는 공연'
9월 25일(수)	12:30	부산광역시청 1층 로비	합창단	내사랑 부산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

제27회 부산청소년합창제 참가단체 모집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서는 2013년 제27회 부산청소년합창제에 참가할 부산지역 내 초·중·고교 합창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1. 모집부문 및 전형내용

행사명	모집부문	비고
제27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부산지역 초·중·고교 합창단	신청서 및 악보제출

2. 행사일

2013년 10월 26일(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3. 참가신청 및 심의 발표

- 참가신청 접수 : 2013년 9월 9일(월) ~ 9월 13일(금) 18:00 까지 접수
- 참가단체 심의 : 2013년 9월 23일(월)
- 참가단체 통보 : 2013년 9월 24일(화) 14:00
(개별통지 및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3년 9월 9일(월) ~ 2013년 9월 13일(금) - 6일간
- 접 수 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사무실 (☎ 607-3161~2)
-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합창단 프로필(8줄 기준으로 작성), 합창단 사진, 지휘자 사진, 반주자 사진, 연주 악보 제출.
- 유의사항 : 무반주합창 혹은 피아노반주만 가능, MR·마이크 사용불가
- ※ 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합창단에 제출해야 함.
(사진은 jpg 파일로 cht4029@paran.com으로 전송)

■ 문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장 모집 공고

1. 채용부문·인원·전형과목

구분	채용부문	인원	전형단계별 일시 및 장소
부산시립 예술단	홍보마케팅 부장	1명	·1차 서류심사 - 2013. 9. 6(금) ※ 전형위원 자체 심사 실시 ·2차 실기(PT심사)·면접심사 - 2013. 9. 12(목) 10:00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1층 회의실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전형 응 시 가능, 실기(PT심사)와 면접심사는 병 행 시행

※ 해당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 필한 자 또는 면제 재남자의 경우
-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 문화예술분야에 10년 이상 또는 홍보·마케팅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서류심사 시 외국어 가능자, 관련학과 전공자,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 ▷ 관련분야 : 홍보·마케팅분야(예술계열 유경험자 우대)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 ▷ 관련학과 : 홍보(광고) 마케팅 관련학, 신문방송학과, 예술계열 학과
- 겸직 불가

3.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3. 9. 3(화) ~ 9. 5(목) 17:00까지
 - 원서는 인터넷으로 출력된 자료 활용
 - 방문 및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051-607-6044)
(우608-811)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부산문화회관내 공연과(공연담당)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이력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경력(재직)증명서 각1부, 최종학위증명서 1부, 외국어능력검정필증 등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자기소개서 1통,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9. 9(월) 14:00, 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9. 16(월) 14:00, 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참조.

지난호정답

금	난	새		길	김	홍	도
	중	페	르	소	나	길	
아	일	랜	드	똘	정	동	진
	기	라	벨		글		주
몬	슈	기	네	스	북		만
테	제	베	에				어
크	르			잉	걸	불	
리	트	라	이	앵	글	성	철
스		마		랜	설		
토	스	단	헤	드	워		돈

8월 퍼즐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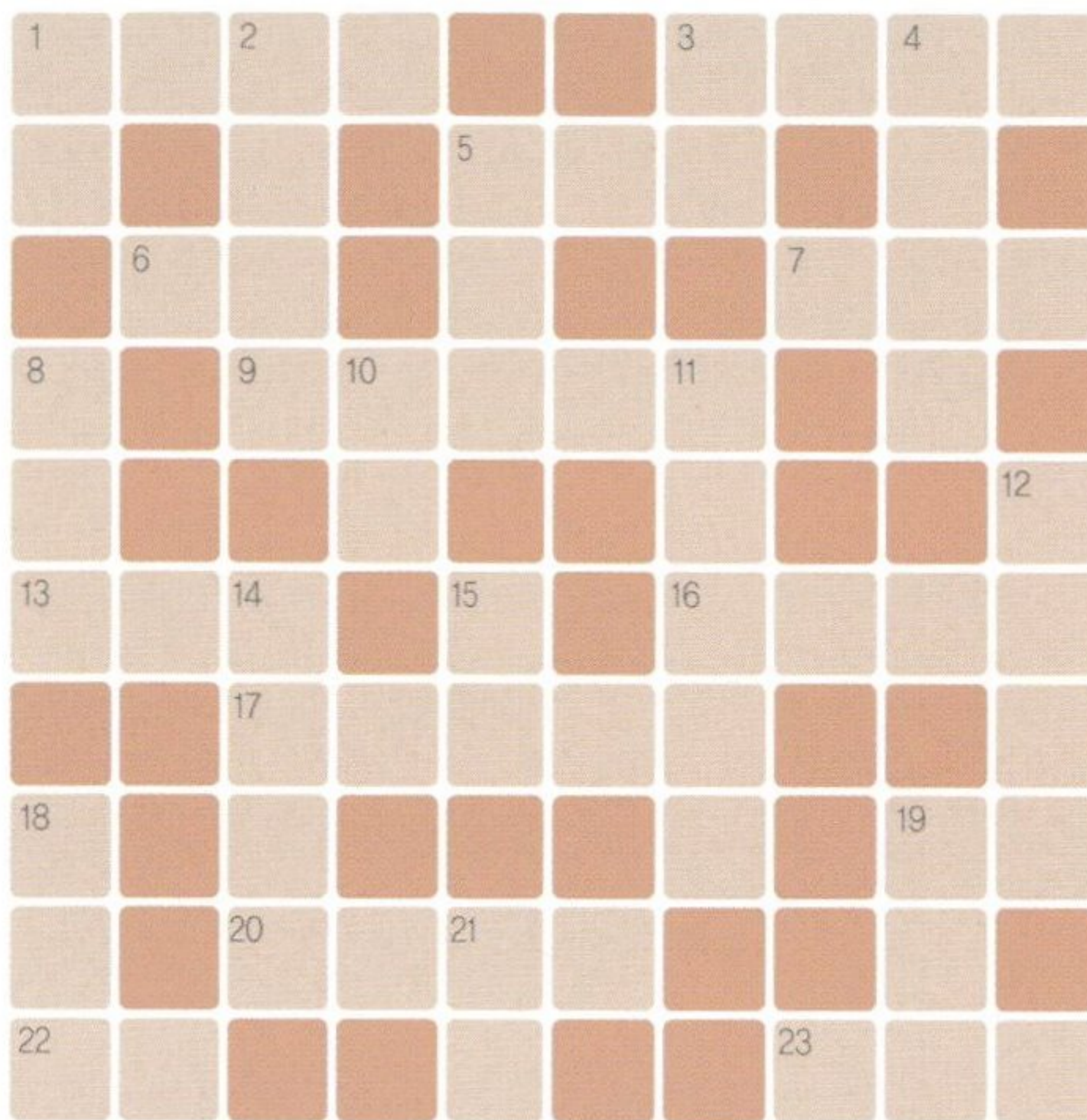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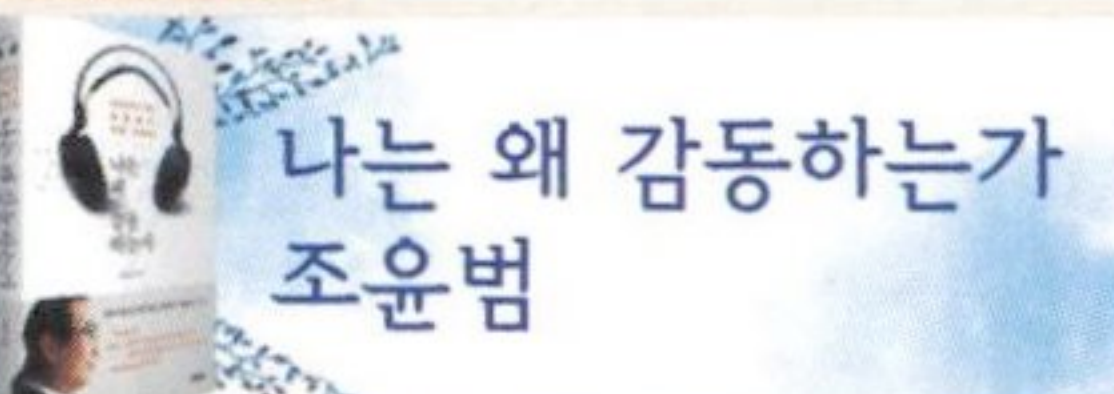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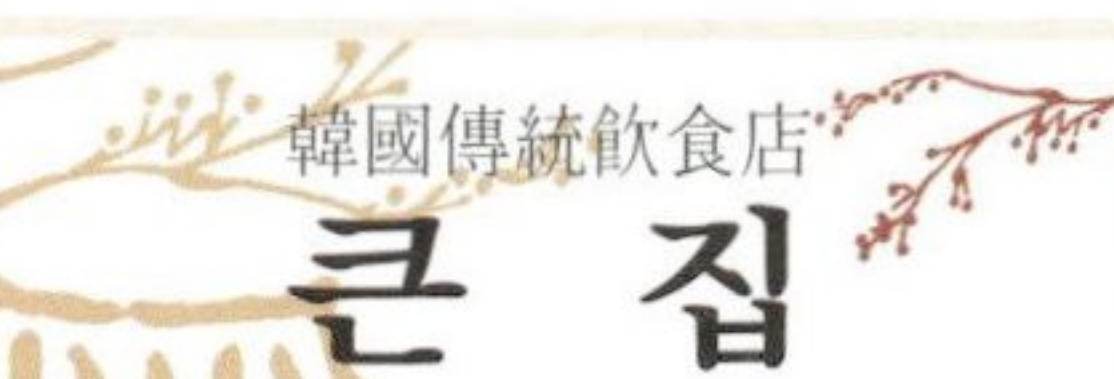
공간소극장 초대권 김은희(사하구 하단동) 박은정(금정구 청룡동) 배정미(연제구 거제3동) 손화진(해운대구 좌동) 조은지(수영구 남천동)

조은극장 초대권 김미영(서구 충무동) 박장환(동래구 총렬대로) 윤신정(연제구 거제3동) 이광섭(사상구 주례동) 장은영(양산시 북부동)

큰집 식사권 노정재(서구 충무동) 이병윤(사하구 괴정3동) 전광수(사하구 신평동) 최수영(사하구 당리동)

도서 나는 왜 감동하는가 김현주(연제구 연산5동) 이유진(동구 초량동) 박지은(수영구 광안동) 박현미(금정구 장전동) 황숙희(연제구 거제3동)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가로열쇠]

- 오스트리아의 실존했던 황후 ○○○○의 일대기를 비극적인 죽음과 광기의 이미지로 그려낸 뮤지컬.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9월 14일과 1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 아르헨티나 출생의 쿠바 정치가, 혁명가. 멕시코에 머무르면서 쿠바혁명에 참가한 후 1959년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자 국가토지개혁위원회 위원장, 중앙은행 총재, 공업 장관 등을 역임하며 쿠바정권의 기초를 세워나갔다. 이후 볼리비아로 건너가 산악지대에서 게릴라 부대를 조직한 후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혁명을 계획하고 활동하던 중 1967년 10월 정부군에게 포위된 후 총살당했다.
- 로마신화에 나오는 문(門)의 수호신. 영어에서 1월을 뜻하는 'January'는 '야누스의 달'을 뜻하는 라틴어 'Januarius'에서 유래했다.
- 중국 고대의 사상가, 유교의 시조. 그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은 인(仁)으로, '극기복례(克己復禮 :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에 따르는 삶이 곧 인(仁)이다)'를 그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
- 바이올린의 바로 아래 음역넓이를 말하며 겉모양은 바이올린과 거의 같으나 바이올린보다 1/7 정도 크다.
- 신라 제 35대 경덕왕 때의 승려 총담사가 화랑 기파랑을 추모하여 지은 십구체 향가.

[세로열쇠]

- 영국의 작곡가. 그가 작곡한 행진곡 '위풍당당'은 영국의 공식 모임에서는 관례적으로 반드시 연주되는 곡으로, 대영제국을 상징하는 곡이 되고 있다.
- 자신이 한 일을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는 것을 이르는 한자성어.
- 체크무늬 판과 말을 이용하여 두 사람이 펼치는 게임. 서양장기.
- 대표적인 칠현악기(撥絃樂器). 음역이 넓고 음색이 순수하고 화려하여 독주, 실내악, 관현악 등에 널리 쓰인다.
- 세기 초 프랑스에서 일어난 회화의 한 유파. 강렬한 순수 색채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며 마티스, 루오, 브라크 등이 대표적 작가이다.
- 지난 2001년, 아르바이트 후 귀가 도중, 일본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 역에서 취객이 선로위에 추락한 것을 보고 철로에 뛰어들어 구조하던 중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함께 구조하던 일본인 사진작가 세키네 시로와 함께 전동차에 치어 사망한 의인(義人). 정부에서 의사자로 선정되고, 국민훈장이 수여되었으며, 2008년에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 '너를 잊지 않을 거야'가 개봉되기도 했다.
- 앞뒤가 편평한 표주박 모양의 공명통에 자루를 달고 여섯 개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3년 9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기념일. 6월 6일.
- 국보 제18호, 부석사(浮石寺)의 본전(本殿)으로서 676년(신라 문무왕 16년) 의상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창건하였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목조건물 중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과 더불어 고대 사찰건축의 구조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 조선 후기 지리학자인 고산자 김정호(金正浩)가 1834년(순조 34년)에 제작한 '청구도(靑邱圖)'를 1861년(철종 12년) 증보, 수정한 대축척 지도첩. 조선시대의 지도 가운데 가장 정밀하고 정확한 세밀도로, 오늘날의 지도와 차이가 없다.
-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팀이 볼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서로 쳐서 넘기는 구기(球技).
- 북, 장구, 징, 팽과리 등 네 가지 민속타악기로 연주되는 음악, 또는 그 음악에 의한 놀이. 서서 연주하는 형태를 '선반', 앉아서 연주하는 형태를 '앉은반'이라고 한다.
- 호흡만으로도 빠르게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인해 한 도시가 초토화되어 가는 과정과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사투를 다룬 김성수 감독, 수애, 장혁 주연의 영화.
- 서경덕, 박연폭포와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로 불린 조선시대의 시인 겸 명기(名妓), 시(詩), 서(書), 음률(音律)에 뛰어났으며, 출중한 용모로 더욱 유명하였다.

줄을 매어, 왼손 손가락으로 줄을 눌러 음정을 고르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줄을 튕겨 연주하는 현악기.

- 가면무도회에서 살해된 스웨덴의 구스타프 3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베르디 오페라.
-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불쌍 사납게 싸우는 것을 비유하는 고사성어.
- 예술의 경지에 오른 위대한 무인 염문과 그를 사랑한 두 여인의 이야기를 그린 왕가위 감독, 양조위, 장쯔이, 송혜교 주연의 영화.
- 고조선(古朝鮮) 시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지금의 북만주 일대에 웅거한 부족 국가. '영고(迎鼓)'라는 제천대회(祭天大會)가 있었으며, 법률이 매우 엄정하여 도둑질, 간음 등에 대해서는 특히 엄벌하였다.
- 고려 시대에, 유학을 가르치던 최고의 국립 교육 기관.
- 중국 한(漢)나라의 한신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병사들이 물러서지 못하고 힘을 다하여 싸우도록 해 조(趙)나라의 군사를 물리쳤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오늘날에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더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리기도 한다.
- 흥부의 형.

어창이 곡마단



부제 : Story Concert - 봄날은 간다

원작 김상열

연출 문석봉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

오세준 (동서대학교 교수)

2013. **9.26**(목) ~ **29**(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평일 19:30 / 토요일 15:00, 19:30 / 일요일 15:00 /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주최  부산광역시 / 주관 부산시립극단 / 기술협력 **DSU 동서대학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 부산시립극단 607-3151

예매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  부산은행 전지점 /  INTERPARK 1544-1555 ticket.interpark.com

티켓링크 1588-7890 www.ticketlink.co.kr

** 사랑티켓을 이용하시면 3,000원에 관람이 가능합니다.(www.sati.or.kr)

September 2013 Program Guide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p>1</p> <p>Ⓢ Theater Porch 'King Lear lives in my house' 17:00 30,000 Theater Porch(703-3658, 010-8512-9903, 070-4205-9958)</p>	<p>2</p> <p>Ⓢ (2013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Music and Theater Opening Concert 'Kammersolisten der Deutsche Oper der Berlin' 19:30 50,000/30,000/20,000/BMIMF(070-7687-8292)</p> <p>Ⓢ Chang Chungyoon Contemporarg Dance Performacne Modern Dance 2013 19:30 10,000/Chang Chung Yoon(200-7822, 010-9320-7822)</p> <p>Ⓢ Theater Porch 'King Lear lives in my house' 19:30 30,000 Theater Porch(703-3658, 010-8512-9903, 070-4205-9958)</p>	<p>3</p> <p>Ⓢ Busan Citizens Together a Feast of Wind Music 19:30 10,000/Tone in Free Wind Orchestra(010-8503-0000)</p> <p>Ⓢ Theater Porch 'King Lear lives in my house' 19:30 30,000 Theater Porch(703-3658, 010-8512-9903, 070-4205-9958)</p>	<p>4</p> <p>Ⓢ (2013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Music and Theater 'Korea, C' 50,000/30,000/20,000/E</p> <p>Ⓢ Theater Porch 'King Lear lives in my house' 19:30 30,000 Theater Porch(703-3658, 010-8512-9903, 070-4205-9958)</p>
<p>8</p> <p>Ⓢ Kim Myeongja's Dance 18:00 20,000/10,000/Kim Myeongja(646-4480, 010-8554-6120)</p> <p>Ⓢ Kammersinfonie Stuttgart Stringensemble Concert in Busan 19:00 50,000/30,000/20,000 Korea Musica(02-2272-6516)</p> <p>Ⓢ The 30th Regular Concert of Six Melodic Ringing 19:00 Free/Six Melodic Ringing(010-6471-2053)</p>	<p>9</p>	<p>10</p>	<p>11</p>
<p>15</p> <p>Ⓢ Musical 'Elisabeth' 14:00, 19:00 130,000/110,000/90,000/60,000 SPA Entertainment(1599-7448)</p> <p>Ⓢ Soprano Yun Seongi Recital 17:00 20,000/Yun Seongi (010-7513-5121)</p>	<p>16</p> <p>Ⓢ The 44th Regular Piano Concert of Deutschland und freunde 19:30 10,000/Deutschland und freunde(010-2843-4358)</p> <p>Ⓢ The 3rd Regular Concert of Busan Mladi Clarinet Company 19:30 10,000/Lee Wonki(010-8280-9229)</p>	<p>17</p>	<p>18</p>
<p>22</p>	<p>23</p> <p>Ⓢ The 30th Regular Concert of of United Korean Orchestra 19:30 20,000/U.K.O.(010-7309-8069)</p> <p>Ⓢ The 18th Regular Perfomance of Timbre Ballet Academy 19:30 10,000/Timbre Ballet Academy(011-859-5162)</p>	<p>24</p> <p>Ⓢ The 45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Romantic Ballet Music' 19:30 2,000/B.P.Y.O(607-3111-3)</p> <p>Ⓢ The 6th Regular Concert of Silla Wind Orchestra 19:30 5,000/Silla Wind Orchestra(010-2614-2250)</p>	<p>25</p> <p>Ⓢ Tenor Oh Dongju's P... 20,000/Oh Dongju(607-...</p> <p>Ⓢ Quentin Kim Piano P... 20,000/Busan Arts Mar...</p>
<p>29</p> <p>Ⓢ Maksim Mrvica & his Band in Busan 17:00 120,000/ 100,000/80,000 60,000/Sungwoo(1599-1980)</p> <p>Ⓢ The 8th Busan International Tea& Craft Fair 11:00 Busan Tea Cultural Promotion study Communication(809-1551)</p> <p>Ⓢ The 48th Regular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er 15:00 10,000(A,E line 5,000)/B.M.T(607-3151)</p>	<p>30</p>	 <p>9. 14-15 Musical Elisabeth</p>	

2013년 9월 공연일정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1

극단 킷마루 '우리집엔 리어왕이 산다'
(부제 : 기억, 환상 그리고 실체) 17:00 균일 3만원
극단 킷마루(010-8512-9903, 070-4205-9958)

2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제
-도이치 오페 베를린 캄머솔리스텐 19:30
5만원·3만원·2만원/부산마루국제음악제(070-7687-8292)
장정윤의 현대무용 2013 '중이위의 감성을 모으다'
19:30 균일1만원/장정윤(200-7819, 7822)
극단 킷마루 '우리집엔 리어왕이 산다'
(부제 : 기억, 환상 그리고 실체) 19:30 균일 3만원
극단 킷마루(010-8512-9903, 070-4205-9958)

3

제17회 T.I.F 관악정기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해석이 있는 관악의 대향연 19:30
균일 1만원/(사)T.I.F(070-7624-7740, 010-8503-0000)
극단 킷마루 '우리집엔 리어왕이 산다'
(부제 : 기억, 환상 그리고 실체) 19:30 균일 3만원
극단 킷마루(010-8512-9903, 070-4205-9958)

4

부산마루국제음악제 '한중일'
5만원·3만원·2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070-7687-8292)

8

김명자의 춤 18:00
2만원·1만원/김명자무용단(646-4480, 010-8554-6120)
독일 캄머신포니 슈투트가르트 내한연주회 19:00
5만원·3만원·2만원/코리아무지카(02-2272-6516)
여섯가락의 울림 제30회 정기연주회 19:00
무료/여섯 가락의 울림(010-6471-2053)

9

10

11

15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엘리자벳'
14:00, 19:00 13만원·11만원·9만원·6만원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소프라노 윤선기 독창회 17:00
균일 2만원/윤선기(010-7513-5121)

16

제44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부산물라디클라리넷컴퍼니 제3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1만원/이원기(010-8280-9229)

17

18

22

23

U.K.O. 제30회 난치병어린이를 위한
사랑나눔음악회 19:30
균일 2만원/U.K.O.(010-7309-8069)
창단 24주년 기념 2013 땡브르발레연구회 정기공연
19:30
균일 1만원/땡브르발레연구회(011-859-5162)

24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5회 정기연주회
'로맨틱 발레 음악'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제6회 신라원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균일 5천원/신라원드오케스트라(010-2614-2250)

25

테너 오동주의 13번째 스토리
'사랑과 그리움' 19:30
균일 2만원/오동주(607-3142, 3143)
김정권 피아노 리사이틀 19:30
균일 2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

29

30

2013 막심 브라비차 내한공연 in 부산 17:00
12만원·10만원·8만원·6만원/예술기획 성우(1599-1980)
제8회 부산국제차어울림 문화제 11:00
균일 1만원/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
부산시립극단 제48회 정기공연 '언행이 곡마단'
(부제 : 불날은 간다) 15:00 균일 1만원(A열, E열 시야
가림석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

10/1

제6회 피아노그랜드 페스티벌 협주곡의 밤 19:30
부산음악협회 부산지회(634-1295)
제17회 한국가곡연구회 정기공연 19:30
균일 1만원/우리아트(010-5555-3825)

2

에르노 페허 피아노 리사이틀
균일 2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작품
신라대학교(999-5301)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p>5</p> <p>전통음악의 진수' 19:30 (070-8292)</p> <p>밤이 산다 ' 19:30 균일 3만원 (070-4205-9958)</p>	<p>6</p>	<p>7</p> <p>부산마루국제음악제 폐막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19:30 5만원·3만원·2만원 부산마루국제음악제(070-7687-8292)</p> <p>DOMO 제9회 정기연주회 18:30 무료/동원대학교 오케스트라(010-3572-7051)</p> <p>토요상설무대 - Ensemble of the Perfectio 16:00 무료(8세이상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p>12</p> <p>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69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결식 초·중생돕기 VIP 초청 WGN양상블 특별연주회 19:30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WGN양상블(011-9535-4601)</p>	<p>13</p> <p>제3회 테너 양승엽 독창회 '애창곡의 밤' 19:30 균일 1만원/양승엽(010-7767-4390)</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2 Yesterday '여행스케치' 19:3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p>	<p>14</p> <p>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엘리자벳' 14:00, 19:00 13만원·11만원·9만원·6만원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p> <p>뮤클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5천원/뮤클합창단(010-2307-6922)</p> <p>토요상설무대 - 부산시립무용단 16:00 무료(8세이상 선착순 입장)/부산문화회관(607-6056)</p>
	<p>19</p>	<p>20</p>	<p>21</p>
	<p>26</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3회 정기연주회 '프랑스음악의 밤-French'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열네 살 舞子'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p> <p>부산시립극단 제48회 정기공연 '언행이 곡마단' (부제 : 봄날은 간다) 19:30 균일 1만원(A열, E열 시야 가림석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p>	<p>27</p> <p>제8회 부산국제차어울림 문화제 15:00, 19:00 균일 1만원/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p> <p>제8회 부산국제차어울림 문화제 12:00 균일 1만원/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p> <p>부산시립극단 제48회 정기공연 '언행이 곡마단' (부제 : 봄날은 간다) 19:30 균일 1만원(A열, E열 시야 가림석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p>	<p>28</p> <p>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및 제139회 정기연주회 17:00 균일 1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p> <p>제8회 부산국제차어울림 문화제 11:00 균일 1만원/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p> <p>부산시립극단 제48회 정기공연 '언행이 곡마단' (부제 : 봄날은 간다) 15:00, 19:30 균일 1만원(A열, E 열 시야가림석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2)</p>
	<p>3</p> <p>제8회 나사함 한마음음악회 19:30 무료/(사)나사함(627-8521)</p>	<p>전시실</p> <p>2013 부산! 미술로 꿈꾸게 하다-대, 중전시실 9월 2일(월)-9월 7일(토) 부산미술협회(632-2400)</p> <p>제 8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대, 중전시실 9월 27일(금)-9월 28일(토) 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p>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선비고을 영주야간여행

2013년 10월 11일(금)

소백산과 태백산이 만나는 아름다운 선비고을 영주시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찾아 떠나는 풀내음 가득한 선비고을 영주 야간여행.

소백산예술촌을 중심으로 선비문화, 불교문화,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으로 특별한 가을을 즐겨본다.

- 10:0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4:00 소백산예술촌 도착,
마을 탐방 및 사과따기 체험
- 17:00 부석사 나들이-예불체험, 부석사 일몰 감상
- 19:20 저녁 식사
- 20:00 소백산예술촌 문화체험
- 21:30 부산으로 출발



청정고을산청

2013년 11월 8일(금)

지리산을 품고 있는 청정골 산청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고려말 공민왕 때 문익점(文益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면화(棉花)를 재배한 목면시배유지를 시작으로 해 묵은 담장 너머 엿볼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의 정서와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산청 남사예담촌 등으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30 산청도착, 목면시배유지,
성철대중사 생개(겉외사) 등 방문
- 12:30 중식
- 13:30 남사예담촌 도착, 마을 투어, 농촌체험
- 15: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00 부산으로 출발



2013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는 회원 부담)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culture.busan.go.kr

예술의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September Vol.261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9.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61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9.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61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Yesterday2
하늘아래 그 콘서트

여행스케치

2013. 9. 13. Fri. PM 7: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예매 :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57



센텀점



20% Discount



10% Discount

MOZART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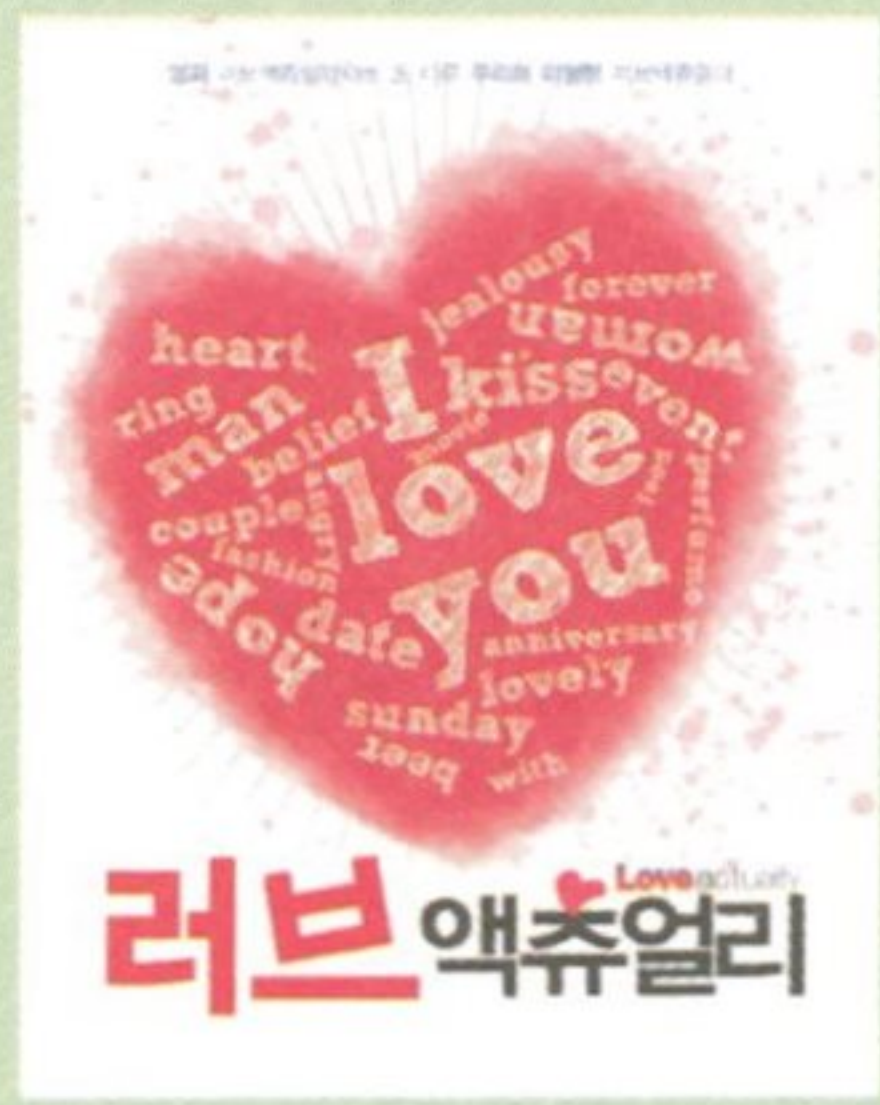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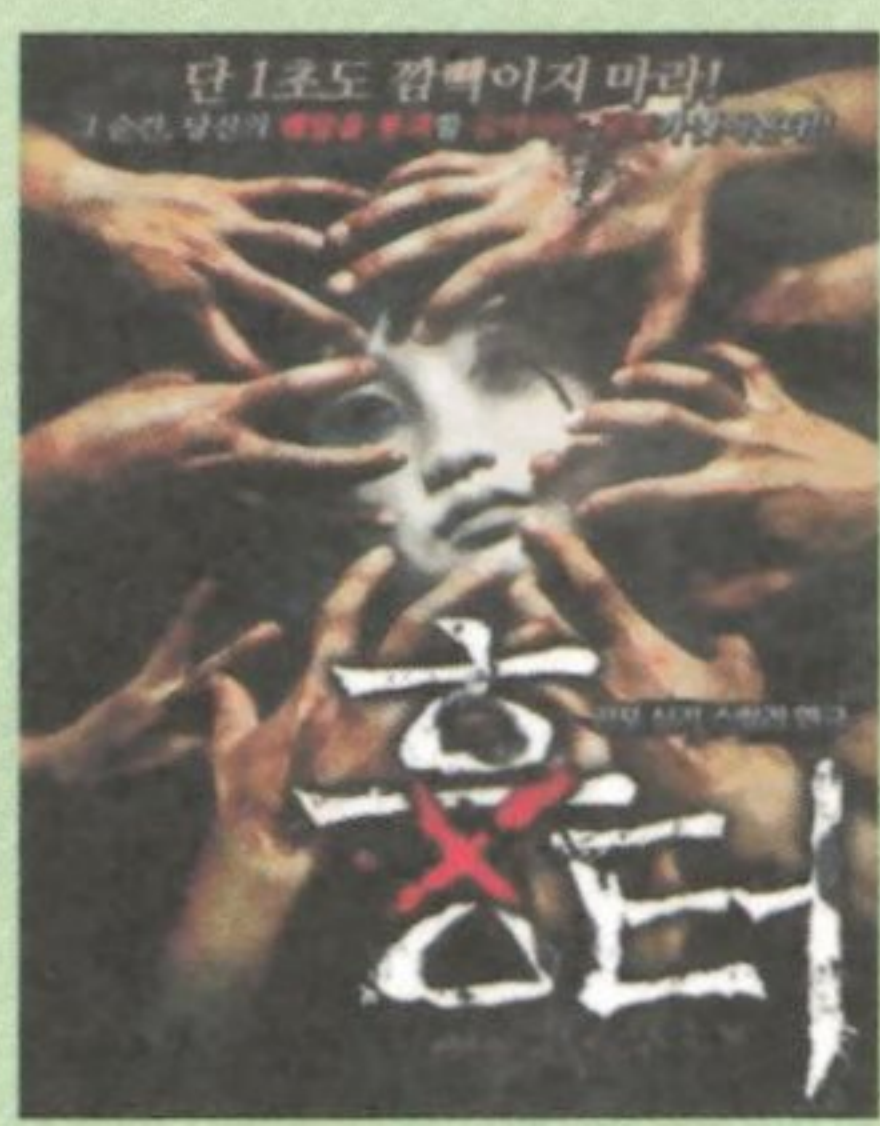
Newtop Dental Clinic
해운대뉴탑치과



20% Discount

러브 액츄얼리

연극
러브 액츄얼리



20% Discount

공포연극
헌터

토다이 센터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터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2-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운대 뉴탑치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부산 해운대구 우동 602-5
051)744-280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극 '러브 액츄얼리'

2013.9.5(목)-10.6(일)
평일 오후 5시, 8시, 주말·공휴일 오후 4시, 7시
(월요일, 9.19 휴관)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공포연극 '홍터'

2013.8.20(화)-9.22(일)
화-목 8시/금 6시, 8시/토 3시, 6시, 8시/일, 공휴일 3시, 6시
(월요일, 9.19 휴관)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경성대학교 비너스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13년 10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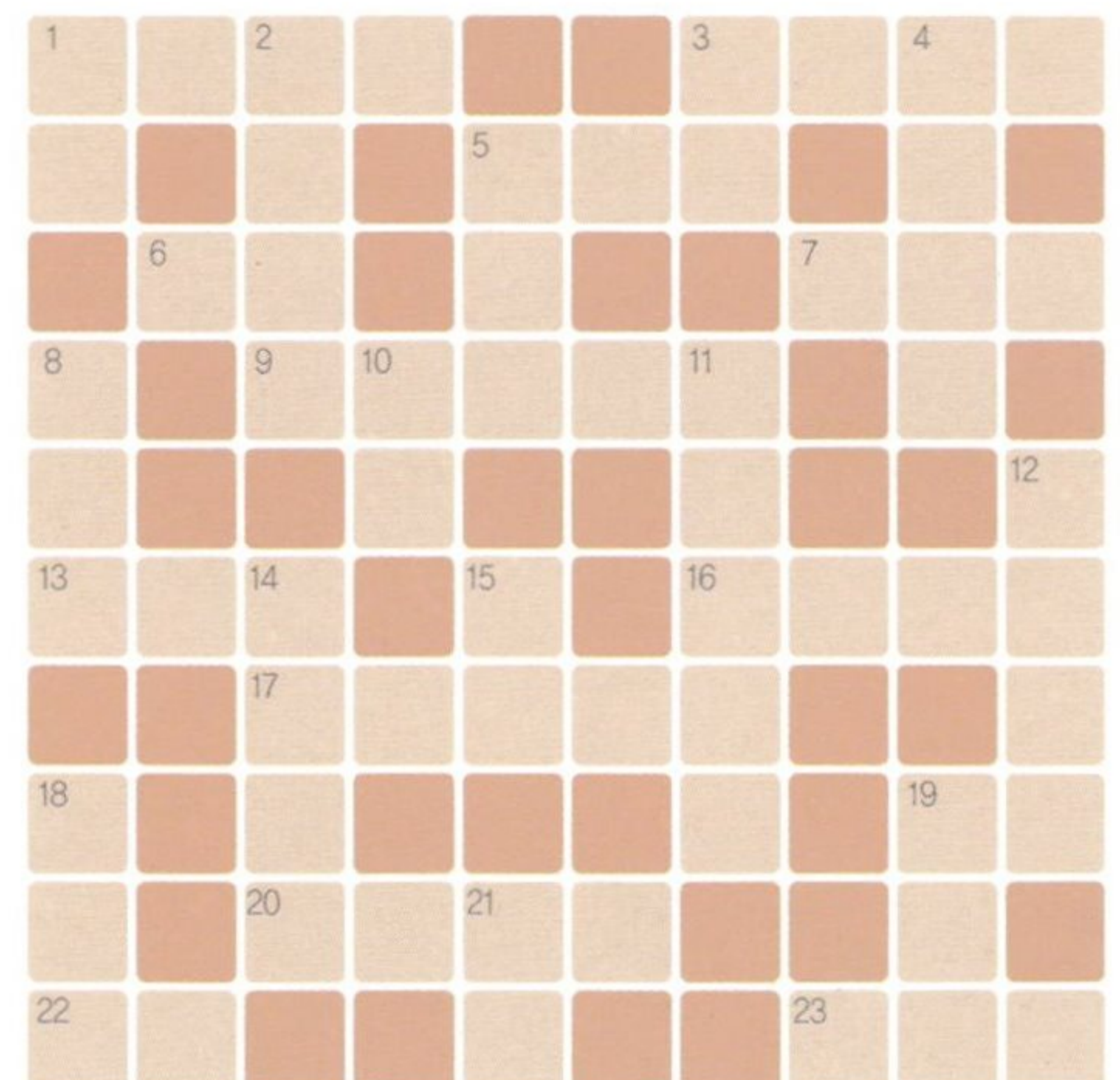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퍼즐정답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광고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 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청산하지 못한 역사!

그 아픔을 노래하다. 소녀 아리랑

열네살 舞子



Program

- ◆ Fly to the sky / 작곡: 한태수
- ◆ 노을이 머무는 언덕 / 작곡: 황호준
- ◆ 심진스님과 함께 하는 국악실내악
 - 사는일 눈물나면 / 작사: 황청원, 작곡: 강호중
 - 아버지의 노래 / 작사: 윤은선, 작곡: 윤은선
 - 소녀아리랑 / 작사: 고규태, 작곡: 조광재
- ◆ 일인시극 [열네살 舞子]
 - 작사: 김선우 / 작곡: 강봉천 / 연행: 홍순연
- ◆ 내게 주어진 시간 / 작곡: 이경섭



예술감독 김철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노래 심진스님



연행 홍순연

2013. 9. 26 (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티켓정보_ 균일 5,000원 공연문의_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 607-3123 /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주최_ 부산광역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후원_ 내일신문



2013

유키 구라모토 내한공연

유키 구라모토!!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 14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받아온 대한민국 공연계의 스테디셀러!
- 국내에서 발매된 1집~8집 플래티넘 기록, 뉴에이지 음반 최초 200만장 판매 기록
- 1999~2012년 매년 공연 전석 매진 기록

2013. 10. 29(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출연 : 유키 구라모토(피아노), 디토챔버오케스트라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주관 : 부산문화회관

티켓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청소년 30%(A석, 본인 한함)]

예매처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리켓링크, 부산은행 전지점 티켓오픈 : 2013년 9월 3일(화) 14:00